

#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Analysis and Projection of Changes in the Lives of  
Elderly Koreans

이윤경 · 정경희 · 염지혜 · 오영희 · 유혜영 · 이은진

연구보고서 2010-25

---

##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

발행일 2010년 12월  
저자 이윤경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  
가격 7,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694-4 93330

## 머리말

우리사회는 전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노인의 삶에도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은 다양한 사회보장체계가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노인의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노인세대는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신규 젊은 노인층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의해,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의해 건강, 경제 그리고 사회활동 및 가치관 등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는 ‘노인’이라는 동일 연령군에 속해 있지만 특성에 있어 매우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노인의 변화하는 삶의 모습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전망하여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은 1994년부터 2008년간 4회에 걸쳐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 14년간의 노인의 삶의 변화는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거주환경,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사회참여 그리고 노후 가치관의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이들 분석자료와 향후 노인세대로 편입될 전후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성을 비교하며 미래 세대 노인의 변화될 모습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

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정경희 연구위원, 염지혜 부연구위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유혜영 연구원과 이은진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해 주신 본 원의 선우 덕 연구위원과 김수봉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	1
요약 .....	3
<b>제1장 서론 .....</b>	<b>13</b>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5
제3절 기존연구 검토 .....	16
<b>제2장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 .....</b>	<b>27</b>
제1절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 .....	27
제2절 노인의 거주환경의 변화 .....	40
<b>제3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변화 .....</b>	<b>45</b>
제1절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	46
제2절 노인의 세대구성 변화 .....	51
제3절 사회적 연계망의 변화 .....	57
제4절 상속행태의 변화 .....	74
<b>제4장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 .....</b>	<b>81</b>
제1절 주관적 건강상태 및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	82
제2절 만성질환 유병률의 변화 .....	89
제3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변화 .....	98
제4절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와 보조기 착용여부 .....	107
제5절 노인의 수발실태 .....	112

<b>제5장 노인의 경제상태 및 사회참여 변화</b> .....	121
제1절 노후 수입원의 변화.....	121
제2절 노인의 사회참여 변화.....	145
<b>제6장 노인의 노후가치관 변화</b> .....	165
제1절 노년에 대한 인식 및 부양관.....	166
제2절 노후대책.....	182
<b>제7장 향후 노인세대의 변화 예측 및 노인복지정책 방향</b> .....	197
제1절 향후 노인세대의 변화 예측.....	197
제2절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205
<b>참고문헌</b> .....	209
<b>부록</b> .....	215

**표 목차**

〈표 1- 1〉 노인실태조사 개요(1994, 1998, 2004, 2008년) ·15

〈표 1- 2〉 한국 노인 삶의 변화 분석 관련 종단적 연구들 .....21

〈표 2-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30

〈표 2- 2〉 지역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32

〈표 2- 3〉 성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35

〈표 2- 4〉 연령대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37

〈표 2- 5〉 가구형태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39

〈표 2- 6〉 노인 가구의 주택유형 및 주택소유 .....41

〈표 2- 7〉 노인생활환경(부엌과 화장실) 형태 변화 .....42

〈표 3- 1〉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평균 자녀, 부모, 손자녀 수 ...49

〈표 3- 2〉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평균 형제·자매수·친척·  
친한 친구이웃 수 .....50

〈표 3- 3〉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세대구성 .....53

〈표 3- 4〉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동거세대 구성 .....56

〈표 3- 5〉 노인의 제특성별 협의 연계망의 크기 .....60

〈표 3- 6〉 노인의 제특성별 광의 연계망의 크기 .....61

〈표 3- 7〉 노인의 제특성별 자녀 및 손자녀와의 접촉 정도 .....64

〈표 3- 8〉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형제·자매·친척·친구이웃과의 접촉정도 ·67

〈표 3- 9〉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경제적 지원의 교환유형 .....71

〈표 3-10〉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정서적 지원의 교환유형 .....73

〈표 3-11〉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상속 유형 .....76

〈표 4- 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84

〈표 4- 2〉 노인의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87

〈표 4- 3〉 노인의 고혈압 유병률 변화 .....92

〈표 4- 4〉 노인의 당뇨병 유병률 변화 .....	94
〈표 4- 5〉 노인의 뇌졸중 유병률 변화 .....	95
〈표 4- 6〉 노인의 암 유병률 변화 .....	97
〈표 4- 7〉 노인의 특성별 수발을 .....	114
〈표 4- 8〉 노인과 수발자간의 관계 .....	117
〈표 5- 1〉 노인의 특성별 근로소득 수입원 변화 .....	126
〈표 5- 2〉 노인의 특성별 자산소득 소지율 변화 .....	127
〈표 5- 3〉 노인의 특성별 사적이전소득 비율의 변화 .....	130
〈표 5- 4〉 노인의 특성별 공적이전소득 비율의 변화 .....	131
〈표 5- 5〉 노인의 특성별 연금소득 비율의 변화 .....	133
〈표 5- 6〉 노인의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34
〈표 5- 7〉 노인의 지역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35
〈표 5- 8〉 노인의 성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36
〈표 5- 9〉 노인의 연령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37
〈표 5-10〉 노인의 교육수준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38
〈표 5-11〉 노인의 결혼상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39
〈표 5-12〉 노인의 가구형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41
〈표 5-13〉 노인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42
〈표 5-14〉 노인의 기능상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	143
〈표 5-15〉 노인의 특성별 동년배 비교 경제상태의 변화(5점 만점) ..	144
〈표 5-16〉 노인의 특성별 근로활동 참여비율의 변화 .....	147
〈표 5-17〉 노인의 근로직종의 변화 .....	149
〈표 5-18〉 노인의 특성별 종사직종의 변화 .....	150
〈표 5-19〉 노인의 근로이유의 변화 .....	152
〈표 5-20〉 노인의 특성별 근로이유의 변화: 생계형의 비율 .....	154

〈표 5-21〉 노인의 특성별 계속 근로 희망비율 .....	156
〈표 5-22〉 노인의 특성별 비근로자의 근로 희망비율 .....	158
〈표 5-23〉 노인의 단체활동 참여 비율 변화 .....	159
〈표 5-24〉 노인의 특성별 단체활동 참여 비율 .....	161
〈표 6- 1〉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	168
〈표 6- 2〉 기혼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 .....	171
〈표 6- 3〉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	174
〈표 6- 4〉 건강 기능 악화시 선호하는 수발 방법 변화 .....	178
〈표 6- 5〉 노후 대접받기 위해 재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181
〈표 6- 6〉 비참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1994, 1998년) .....	184
〈표 6- 7〉 비참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2004, 2008년) .....	185
〈표 6- 8〉 응답자 특성별 노후 대책 마련 여부 .....	189
〈표 6- 9〉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후 대책 유형별 준비 여부 .....	192

## 그림 목차

[그림 2- 1] 1994~2008년 성별 기대여명 .....	28
[그림 2- 2] 1994~2008년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 .....	29
[그림 2- 3]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독거비율의 성별 변화 .....	34
[그림 3- 1] 연도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	46
[그림 3- 2] 연도별 세대구성의 변화 .....	51
[그림 3- 3] 연도별 동거세대 구성의 변화 .....	54
[그림 3- 4] 연도별 연계망의 크기 변화 .....	58
[그림 3- 5] 연도별 경제적 지원 및 교환 유형 변화 .....	69
[그림 3- 6] 연도별 정서적 지원 및 교환 유형 변화 .....	72

[그림 4- 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	82
[그림 4- 2]	노인이 교육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에 응답한 비율 변화 .....	85
[그림 4- 3]	노인의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	86
[그림 4- 4]	노인이 교육수준별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에 응답한 비율 변화 .....	89
[그림 4- 5]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 .....	90
[그림 4- 6]	노인의 기능상태 변화 .....	100
[그림 4- 7]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완전자립의 변화	101
[그림 4- 8]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 완전자립의 변화	104
[그림 4- 9]	노인의 시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	107
[그림 4-10]	교육수준에 따른 청력 보조기 미착용시 ‘ 좋음’에 응답한 비율 변화 .....	109
[그림 4-11]	수발필요 노인(ADL, IADL 제한 노인)과 수발율 변화	112
[그림 4-12]	노인과 수발자간의 관계 .....	115
[그림 5- 1]	노인의 수입원 소지 비율의 변화 .....	122
[그림 6- 1]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	166
[그림 6- 2]	결혼한 자녀와 노부모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 .....	169
[그림 6- 3]	건강 기능 약화시 선호하는 수발 방법 변화 .....	175
[그림 6- 4]	‘ 자녀에게 대접받기 위해 재산이 필요하다’에 대한 인식 변화 .....	179
[그림 6-5]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	182
[그림 6-6]	노후 대책 마련 여부 변화 .....	188
[그림 6-7]	노후 대책 유형별 준비 여부 .....	191
[그림 7-1]	현 노인세대와 향후 노인세대간의 교육수준 .....	198

## 부표 목차

〈부표 1〉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목욕하기 .....	225
〈부표 2〉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옷 갈아입기 ...	226
〈부표 3〉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식사하기 .....	227
〈부표 4〉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걷기방 밖으로 나가기	228
〈부표 5〉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화장실 이용 ...	229
〈부표 6〉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집안일하기 .....	230
〈부표 7〉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전화 이용 .....	231
〈부표 8〉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물건 사기 .....	232
〈부표 9〉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교통수단 이용 .....	233
〈부표 10〉 노인의 시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	234
〈부표 11〉 노인의 시력 보조기 착용 여부 변화 .....	235
〈부표 12〉 노인의 청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	236
〈부표 13〉 노인의 청력 보조기 착용 변화 .....	236
〈부표 14〉 노인의 씹기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	238
〈부표 15〉 노인의 씹기 보조기 착용 변화 .....	239





## **Analysis and Projection of Changes in the Lives of Elderly Koreans**

The lives of elderly Koreans have changed a great deal with rapid socioeconomic change,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of the elderly, and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Understanding these changes is critical in steer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This study traces changes elderly Koreans have gone through in the last 14 years, and anticipates future changes they will face. We looked at different aspects of the changes, including older peopl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health and functions, 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their own perspectives on later life, using raw data from the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of elderly Koreans conducted in 1994, 1998, 2004, and 2008.

The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in which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should hea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who will soon constitute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elderly.



# 요약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노인복지정책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및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의 대상자인 현 노인층과 미래세대의 노인층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삶의 구성 영역별 노인의 변화하는 모습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함.
    - 노인의 가족관계, 경제, 건강, 사회참여, 가치관 등의 다양한 노인의 삶의 구성영역별 노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또한 노인의 연령군별 노인 삶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4회('94, '98, '04, '08)에 걸쳐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의 원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II.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 1. 노인의 가구 특성 변화

- 1994~2008년간 노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는 꾸준히 증가함.
-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서 다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대하지만, 노인 한 세대만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 1994년의 42.7%에서, 1998년의 48.0%, 2004년의 57.7%로 증가하는 반면 3세대가 동거하는 비율은 37.7%에서 32.9%, 24.6%로 급감
- 지원의 교환
  - 경제적 지원에 있어 1994년에는 무교환형이 28.0%, 일방적 수급형이 52.5%, 일방적 제공형이 10.4%, 상호교환형이 9.1%로, 노인의 약 절반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무교환형을 감소하였고 상호교환형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 상속행태
  - 전부 상속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속을 하더라도 일부만을 상속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재산이 있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998년에 2.6%에서, 2004년 10.5%, 2008년 11.6%로 지속적으로 증가
    - 도시지역노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 최근 연령 코호트에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있음.
    - 2008년 조사에 의하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응답이 69.5%로 가장 많고 ‘이들 중심으로 배분하겠다’ 7.2%로 기존의 장남 중심의 상속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2. 노인건강·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1994년 34.8% → 1998년 24.5% → 2008년 24.4%)
  -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4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변화
  - 지난 14년간 노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ADL의 6개 기능에서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립 노인의 비율은 전 항목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변화
  - 지난 14년간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노인의 74.6%가 집안일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도움이 필요 없었던 것에 비해('94년), 2008년에는 87.5%로 증가하여 노인의 독립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화이용하기, 일상생활용품이나 물건사기, 교통수단 이용하기의 항목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냄.
- 한국 노인들의 신체기능 상태가 과거에 비해 점점 좋아지고 신체보조용구 등의 이용비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욱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됨.
- ADL과 I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수발대상이라고 할때, 이들 중 수발을 받는 비율은 1994년 73.5%에서 1998년 65.1%, 2004년 36.9%, 2008년 29.5%로 감소하였음.
  - 특히 읍면부 지역과 여성노인의 경우 수발받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ADL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발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수발은 여전히 가족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점차 요양보호사나 간병인과 같이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내에서도 배우자에 의한 수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 노인의 경제 및 사회참여 변화

- 노인의 소득원 변화는 자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를 보임. 이에 반해 근로수입과 사적이전소득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1994년 노인의 10.5%만이 자산소득이 있는 반면 2008년도는 15.4%까지 증가하였으며,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은 2.9%에서 21.4%로 증가하였음.
    -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과 개인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현상이며 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계층의 증가를 나타냄.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기초노령연금 등으로서 공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은 1994년 6.3%에 그쳤으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8년 92.6%가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소득원에 있어 근로수입은 노인의 약 30%전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자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사적이전소득 또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주요수입원에 있어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주 수입원인 비율이 여전히 절반가량으로 높게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며, 공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1994년 동년배와 비교할 때 5점 만점에서 2.7점이었으나, 1998년 2.4점, 2004년 2.4점으로 낮아짐.

- 노인의 사회참여는 지난 14년간 근로활동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읍면부는 계속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동부는 감소, 그리고 남성은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냄. 또한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들의 근로활동 참여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근로직종에서도 농어업의 감소, 단순노무직의 증가가 뚜렷히 나타나며, 고위임직원 관리자의 증가가 나타남.
  - 그리고 점차 노인의 근로활동은 생계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가 증가되고 있음.
-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는 14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한 증가였으며, 그 외의 문화, 스포츠,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4. 노인의 가치관의 변화

- 결혼한 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에 대해서는 ‘동거’보다는 ‘별거’가 좋다는 방향으로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자녀동거 희망율은 58.2%(1994년)에서 26.6%(2004년)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짐.
-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장남’이라는 응답률이 1998년 54.9%, 2004년 57.5%, 2008년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 동거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장남’은 노부모 부양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
- 건강 악화시 선호하는 수발방법은 1994년 자녀에 의존적인 형태에서, 2004년 부부끼리 해결하는 형태로, 2008년에는 시설이나 병원과 같은 요양전문시설을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남.
-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자녀 및 가족’은 1998년 33.5%에서 2004년 18.7%, 2008년 11.8%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가 및

사회'는 1994년 22.4%, 1998년 26.2%, 2004년 40.8%로 크게 증가함.

○ 하지만 2008년에는 '국가 및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경제적인 노후 대책 마련율은 1994년에는 15.0%에서 2008년 33.8%로 크게 증가하였음. 노후대책 유형별로는 저축, 주택,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의 준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III. 향후 노인세대의 변화 및 정책방향

□ 미래 노인세대인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게 되면 노인의 특성은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임.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구조에서의 변화가 예상됨.

○ 특히 교육수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 인적 자원의 향상과 다양한 욕구가 도출될 것임.

○ 또한 노인의 가구형태는 지난 14년간 진행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형태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짐.

○ 그러나 자녀세대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어질 것이며, 현재 일방적 수급형이 감소되고 상호교환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에서는 객관적 건강상태는 지금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큼. 의학기술의 발달 뿐 아니라 현 예비노인세대의 경우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건강을 위한 행태를 고려했을 경우 객관적 건강상태는 향상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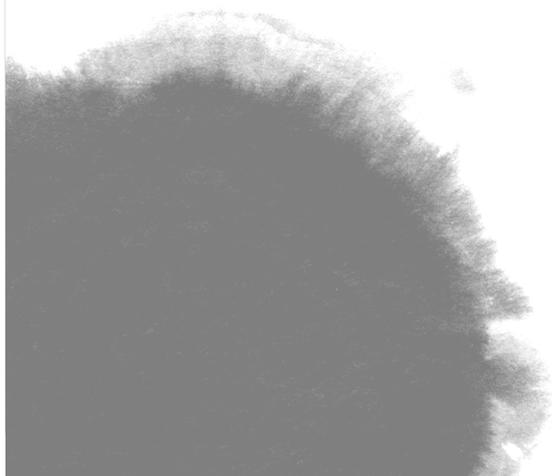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 미래 노인세대의 경제상태는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노후 소득원을 통해 노후를 영위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임. 따라서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 근로소득을 통한 노인이 증가할 것임. 그러나 여전히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층의 빈곤의 문제는 존재할 것이며 이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령세대의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

- 지금까지의 현 노인세대의 변화와 미래 노인세대의 변화를 예측해 볼때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다양성에 따라 세분화해야 함. 또한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되어야 할 것임.
  - 노후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예비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노인세대의 경제적 자립향상을 위해 노동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건강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이의 해소를 위한 건강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 01

##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의 노인복지는 1990년 정부의 ‘노인복지과’ 신설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소득, 건강, 여가문화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추진되어 최근 2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확대, 교통수당 그리고 노인건강보장을 위해 재가복지가 강화되고 의료복지시설의 실비 및 유료 시설 도입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의 급격한 확대,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 등의 노인복지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5년은 기존의 노인복지의 영역이 확대되어 향후 도래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계획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후 소득보장, 노후 건강보장, 노후 여가문화 보장 등의 영역에서의 포괄적이며 다양한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통해 보편적 복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복지정책을 비롯한 여러 사회변화는 노인 삶의 여러 측면, 즉, 건강, 경제, 사회활동 및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이들 정책의 변화는 노인 삶의 변화에 대한 욕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

다. 즉, 노인의 삶의 상태 및 욕구와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지속적인 관계를 갖으며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노인의 삶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및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의 대상자인 현 노인층과 미래세대의 노인층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현 노인세대는 ‘노인’이라는 동일 연령군에 속해 있지만 특성에 있어 매우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젊은 노인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노인의 특성은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특성은 가구형태를 비롯하여 경제상태,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건강, 사회활동 등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걸쳐 변화를 보이며, 특히 이는 연령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는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 시점을 기준으로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노인세대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삶의 구성 영역별 노인의 변화하는 모습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사회참여 그리고 노후 가치관 등의 다양한 노인의 삶의 구성영역별 노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영역별 변화를 조망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세대가 시대에 따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세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노인대상 조사인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에 실시되어 총 4차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라 3년 주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 및 소득, 사회참여 및 가치관의 변화, 그 외의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는 조사규모 및 조사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조사대상 연령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별 노인의 삶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개년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1-1〉 노인실태조사 개요(1994, 1998, 2004, 2008년)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조사 실시	1994년 1999년 4월 4일 ~ 5월 5일(32일)	1998년 4월 13일 ~ 5월 31일(49일)	2004년 6월 28일~9월 10일(75일간)	2008년 8월 11일~ 2009년 1월 10일 (5개월간)
조사 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2,058명	2,535명	3,278명	15,146명
수행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명대산학협력단
보고 서명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4개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및 기능, 경제 및 소득, 사회참여, 경제활동, 가치관 등의 공통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조사 년도별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으로 조사된 영역을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제3절 기존연구 검토

### 1. 노인의 삶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40~50대 중년층의 경제력 및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들이 노년층으로 진입하였을 때 예측되는 변화된 노인의 특성이나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매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당히 큰 인구규모가 노년층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이 노년층에 진입하는 계층에 기존의 노인문화가 서서히 침투되어 기존의 세력에 흡수되기 보다는 과거와는 다른 행태나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노인 삶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노인 삶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위해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횡단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가령 예비노인이나 중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 및 거주시설 욕구, 은퇴, 노후준비, 여가활동 등 노년의 삶과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횡단적 연구는 주거,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진행되었으나, 공통적으로 과거의 연구결과나 전국 노인실태조사, 고령자 통계 등 대규모 조사결과와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미래 노인의 행태 및 욕구의 변화나 새로운 문화의 출현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비교의 준거지점으로 축적된 연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인 삶의 변화 예측이 일회적인 단일 연구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노인층과 예비노인층

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의 차별성을 가시화한 몇몇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남진(2000)은 예비노인 집단(50~64세)과 노인집단(65세 이상)의 건강관심도, 건강행위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한 연구에서 예비노인 집단의 건강관심도, 건강행위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노인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건강관심도와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가 높으면 건강행위 정도가 높고, 건강행위 정도가 높으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비노인의 건강관심도를 높게 유지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박장근, 임란희(2007)는 서울 경기 지역 노인(60~75세)과 예비노인(50~59세)의 특성별 여가의식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였다. 동 연구에서 여가의식은 여가의 질, 여가의 성취감, 여가의 활동성, 여가의 긍정적 효과, 여가를 통한 대인관계로 구성되었고, 연구 결과 예비노인 집단이 모든 요인에서 노인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예비노인 집단과 노인집단의 비교보다는 각 집단내 개인특성에 따른 여가의식 차이를 검증하고 있어 두 집단의 직접적인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단일 연구에서 노인과 예비노인을 비교함으로써 세대간 차별성이나 향후 노인의 삶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 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예비노인의 상태가 그들이 노년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맹점이 있다. 또한 조사시점에서 예비노인은 노인에 비해 사회, 경제, 신체적 조건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예비노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의 노인 삶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외에 노인 삶의 변화를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 조사되어 있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패널 자료는 주기적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을 통해 구축된 자료이기 때문에 종단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고령자 패널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라는 점에서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패널 자료가 다수의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방법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년기 연구에 이용되는 패널 및 시계열 자료로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소에서 2003년부터 2년 주기로 구축해 온 고령패널이 있고, 패널 자료는 아니지만 1994년부터 3~4년 주기로 전국 조사로 실시된 노인실태조사 자료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1998년부터 매년 구축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자료나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공식통계가 이용되고 있다.

장숙량(2006)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림고령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건강기능상태의 변화를 파악하였는데, 분석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명백하게 저하되었고, 건강기능상태의 저하는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배우자 유무, 사회참여정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관련됨을 검증하였다.

윤현숙과 이미진(2006)은 서울과 춘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한림고령연구패널)의 1차년도와 3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과 거주 지역에 따라 은퇴로의 진입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은퇴로의 진입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노인의 성,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과 거주 지역에 따라 생애주기 동안 경험한 경제활동, 가정내 역할, 은퇴 이후 역할 등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2009)은 2003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한림고령연구패널을 이용하여 노년기의 정서 경험의 변화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조사가 실시된 6년 동안의 정서 경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적 정서 경험은 6년 사이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는 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전해숙, 강상경(2009)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 1, 2, 3차 자료(2006~2008

년)를 이용하여 60세 이상의 노인들(N=4,919)의 우울কে적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의 개인 내적 우울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두섭 외(2005)는 인구센서스 자료, 전국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거주형태, 세대간 지원교환, 노후가족관계에 대한 태도와 의식의 관점에서 가족의 지속성과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쇠약과 경제력 상실이 따르는 노년기의 특성상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인자녀와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쌍방향적인 세대간 지원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은 가족관계의 해체나 단절보다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등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적보장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김정석(2005)은 1994년과 2004년 실시된 전국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후부양관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가족책임에 대비한 개인책임 강조와 사회적 책임 강조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족책임이라는 전통적 노후부양관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부양관에 대한 노인집단간 차이도 적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가족책임으로부터 벗어난 노후부양관이 개인책임과 사회적 책임 중 어느 방향으로 진전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유보하였다.

김영범(2009)은 한림고령연구패널(1차-4차)을 이용하여 부양책임감이 나이와 세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양 책임감의 평균 점수는 1차, 2차 조사에 비해 3차, 4차 조사에서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양책임감에 대한 세대 및 연령 차이를 랜덤 상수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세대효과는 나타났으나 연령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세대별 부양책임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식민지 및 전쟁경험세대에서 산업화·민주화 세대에 비해 부양책임감이 높게 나타났다.

김정석(2007)은 횡단적 연구들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거주

형태를 보여주는 하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제1차, 제6차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노년기 거주형태의 유동성을 파악하였다. 종단적 연구 분석(로지모형분석)결과,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에는 연령의 증가와 배우자의 상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로써 횡단적 연구에서 유추되던 경험적 사실을 계량적으로 보여주었다.

마강래와 윤영호(2009)는 1996년, 2002년,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들의 통행수단이용률의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교통수단이용률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이후 연령대별 코호트 분석에서 자동차와 버스의 상대적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6년에 55~59세의 코호트는 2006년이면 고령화 그룹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코호트에 대한 10년간 교통수단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 분석에서 승용차와 버스 이용은 점차 줄어든 반면, 지하철과 도보의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 코호트의 교통수단 선택의 변화 추세가 다른 코호트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패널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종단적 연구들은 신체 및 건강, 가족관계, 가치관, 주거, 교통 등 특정주제 분야에 있어서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전망에 따른 시사점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자료 등 시계열 자료의 축적기간이 짧고 노인 삶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드러내는 연구가 일천한 국내 연구 상황에서, 소 연구영역별로 노인 삶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소 연구영역별로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특정한 주제영역에만 제한되어 노인 삶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건강, 노동, 사회참여 등 삶의 각 영역은 상호 연계되거나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이 가능할 때 변화 요인의 규명과 변화 요인간의 상호작용, 나아가 변화 전망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진다. 사회, 경제자본을 가진 중년층의 노인인구로의 진입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등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사전적 대비와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라도 변화하는 노인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표 1-2〉 한국 노인 삶의 변화 분석 관련 종단적 연구들

연구자	이용자료	분석기간	연구주제	연구내용
장숙량(2006)	한림고령연구패널	2003, 2005	신체 및 정신건강	노인의 건강기능상태의 변화
윤현숙, 이미진(2006)	한림고령연구패널	2003, 2005	신체 및 정신건강	은퇴로의 진입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및 영향 요인
유경,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2009)	한림고령연구패널	2003, 2005, 2007	신체 및 정신건강	노년기의 정서 경험의 변화 특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 요인
전해숙, 강상경(2009)	한국복지패널	2006~2008	신체 및 정신건강	노년기의 개인 내적 우울증상의 변화
김두섭, 김정석, 송유진, 최양숙(2005)	인구센서스 전국 노인실태조사	1994, 2004	가족관계	거주형태, 세대간 지원교환, 노후 가족관계에 대한 태도와 의식의 관점에서 가족의 지속성과 변동
김정석(2005)	전국 노인실태조사	1994, 2004	가치관	노후부양관의 변화와 영향 요인
김영범(2009)	한림고령연구패널	2003~2008	가치관	부양책임감의 변화 및 세대/연령 효과의 검증
김정석(2007)	노동패널	1998, 2003	주거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
마강래, 윤영호(2009)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1996, 2002, 2006	교통	고령인구들의 통행수단 변화패턴 분석

## 2.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노인복지정책 외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노인의 생활에 변화를 초래한다. 지난 20년간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 도입과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이며, 최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시·도별 노인을 둘러싼 복지정책의 변화를 노후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보호서비스 정책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기반은 1988년에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통해 5년간 가입 후 연금을 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993년 특례노령연금의 지급이 개시되고, 2000년에는 농어촌 지역 특례 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에서는 2000년 이후 도시와 농어촌의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2008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되었으므로 미래의 노인세대에 있어 국민연금은 주요한 노후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은 국민연금제도 뿐 아니라 1991년 노령수당 지급제도를 실시(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7만 6천 명, 월 1만원 지급)하였으며, 1998년 이를 경로연금제도(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노령수당 폐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들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제도는 빈곤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급여수준이 낮아 보편적 노후소득원이라기 보다는 노인의 빈곤해소 대책이었다. 하지만 2008년 노인의 약 70%가 수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급여수준도 이전 경로연금보다 높아지는 등 비로소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지난 20년간 구축되면서 노인세대의 경제적 특성은 정책변화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예상된다.

노후 건강보장정책은 노인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민의 8.8%만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았으므로 대부분의 노인의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제도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1990년에 이르러 전 국민의 93.7%를 대상으로 하고, 2006년 98%가 넘어섰다. 즉, 대부분의 노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노인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이외의 노인 수발을 포함한 보호 정책은 1950년대 전후 양로시설을 시작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들 보호가 활성화된 것은 최근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재가복지서비스가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요양시설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노인요양에 대해 사회보장정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요양보호가 사회적 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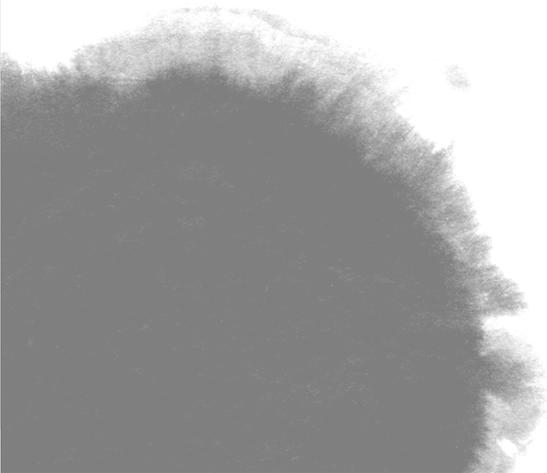
노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그리고 요양보장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은 노인의 건강, 경제, 그리고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이끈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변화를 초래함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정책은 노인의 생활 변화와 욕구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노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02

##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





# 제2장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

## 제1절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화

### 1. 노인의 인구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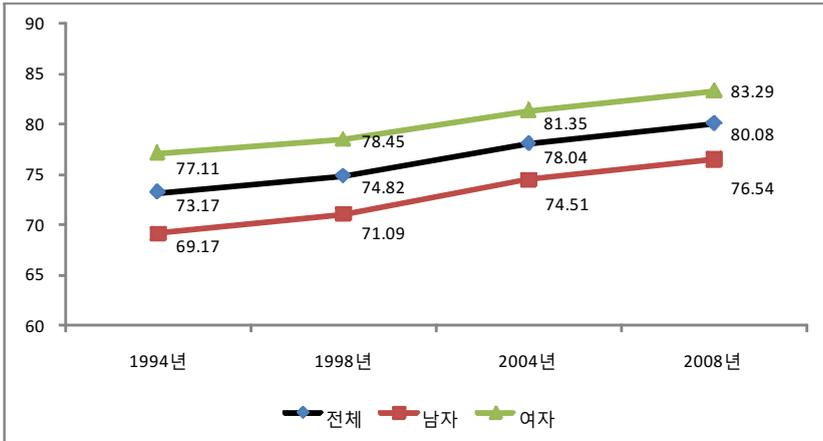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세계화로 인한 생활 문화 및 가치관의 서구화 등 격동의 근현대사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중장년 또는 노년기를 시작한 현 노인세대는 급속한 변화만큼이나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노인’이라는 동일 연령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은 개개인의 경험이나 자원의 차이, 그리고 사회 정책의 변화가 노인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횡단적 조사로 이루어진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노인의 특성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는 노인의 거주지역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1994년에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56.4%, 읍·면부가 43.6%이었으나, 동부 거주 노인이 1998년에는 63.0%, 2004년 67.9%, 2008년 65.7%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점차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읍면동 지역인 농어촌 지역은 지역의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많아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인의 수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인은 남녀의 성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남녀의 평균수명(기대여명)의 차이가

1994년 약 7.9세에서 2008년 6.8세로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남녀 성비의 차이도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1994~2008년 성별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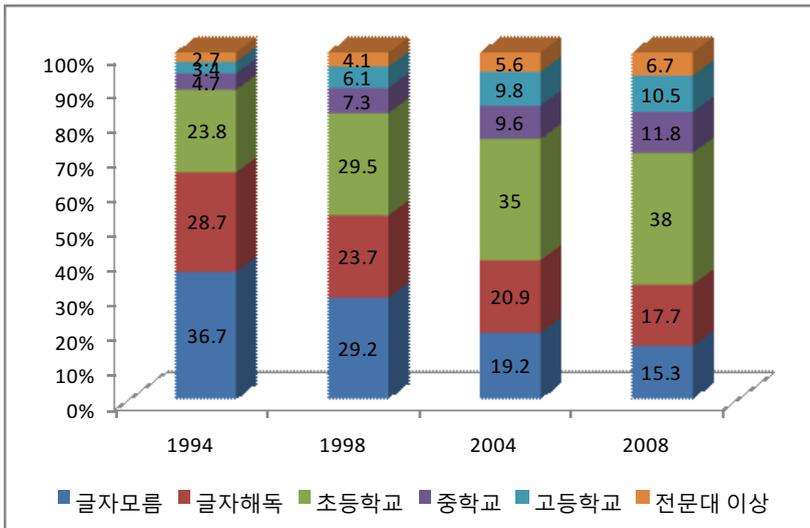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노인의 연령대별 구성 또한 변화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초기 노인(65~69세)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중기 노인(70~79세)과 후기 노인(80세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 인구센서스 조사자료와 비교해 볼 때 노인 집단 내 연령별 구성비에서 후기 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경향이다.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후기 노인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노인세대의 교육수준은 연령과 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국전쟁 이후에 학령기를 보낸 노인층과 전쟁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노인층, 그리고 남존여비사상이 높아 여성의 교육을 중시하지 않던 시대적 분위기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반영되어 노인세대의 교육수준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1994년

조사에서는 글을 모르고 글자해독만 가능한 노인은 28.7%였는데 2008년에는 17.7%로 감소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조사에서는 전문대 이상이 6.7%로 상당 수준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2] 1994~2008년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



노인의 유배우 비율은 지난 14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94년 유배우율이 47.9%인 것에 반해 2008년에는 64.5%로 증가하였다. 이는 성별 기대수명의 차이가 감소한 것이 한 원인일 것이다. 유배우 노인의 증가는 노인의 가구유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의 가구유형 또한 1994~2008년간 큰 변화가 나타난 특성 중 하나이다. 노인독신가구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에 다소 감소하였고, 노인부부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고령자통계 자료의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3.7%에서 2008년 5.6%로 증가한 것과 2007년, 2009년 사회조사 자료의 60세 이상 인구의 자녀 동거여부에 대한

결과 동거하고 있다는 노인이 39.9%에서 31.7%로 감소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0.1%에서 68.3%로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노인가구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특히 이들이 있을 경우 아들부부와 동거하거나 또는 노인부부로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의 가구유형이었다면, 최근에는 노년기가 되었을 때 노인부부로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할지라도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노인독신으로 살아가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94년	98년	04년	08년	구분	94년	98년	04년	08년
지역					교육수준				
동부	56.4	63.0	67.9	65.7	글자모름	36.7	29.2	19.2	15.3
읍·면부	43.6	37.0	32.1	34.3	글자해독	28.7	23.7	20.9	17.7
성					초등학교	23.8	29.5	35.0	38.0
남자	38.7	36.9	38.3	40.2	중고등학교	8.1	13.4	19.4	22.3
여자	61.3	63.1	61.7	59.8	전문대 이상	2.7	4.1	5.6	6.7
연령					가구유형				
65~69세	41.5	38.1	37.8	38.0	노인독신	13.6	17.9	20.6	19.7
70~74세	29.7	29.2	28.5	28.4	노인부부	26.8	27.9	34.4	47.0
75~79세	16.5	18.1	17.5	17.6	자녀동거	54.7	48.6	38.6	27.6
80세 이상	12.4	14.7	16.2	16.0	기타	4.9	5.5	6.4	5.6
결혼상태									
유배우	47.9	49.2	54.8	64.5					
무배우	52.1	50.8	45.2	35.5					
전체	100.0 (1,371)	100.0 (2,372)	100.0 (3,278)	100.0 (10,798)	전체	100.0 (1,371)	100.0 (2,372)	100.0 (3,278)	100.0 (10,798)

## 2. 지역과 성별 노인 특성 변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의 특성은 1994년~2008년간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지역간 정보격차의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노인의 성 구성을 살펴보면, 1994년도에는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남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08년으로 올수록 지역별 남녀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 평균 연령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부 지역보다 읍·면부 지역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1994년에는 동부와 읍면부 지역간의 차이가 없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부지역 거주노인의 연령분포는 초기 노인(65~69세)과 80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비중이 타 연령의 증가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읍면부 지역 거주 노인의 연령분포는 75세 미만의 노인은 감소 또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동부지역의 경우 신규 노인세대로의 진입이 높으며, 후기 노인의 진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후기 노인층이 되면서 자녀와의 동거 또는 근거리 거주를 위해 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동부 거주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읍면부의 경우 초등학교의 학력수준을 갖는 노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등이상의 교육수준의 노인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동부 지역 노인의 경우 중등이상의 교육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 노인의 비중도 9.4%까지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즉, 노인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향상을 이루었지만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자는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도시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혼상태는 동부와 읍·면부 지역 거주 노인 모두 유배우 비율이 크게 증

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지만, 특히 초기 노인의 비중이 높은 동부의 경우 읍면부에 비해 유배우율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노인의 가구유형의 변화는 노인독신과 부부가구의 증가, 자녀동거의 감소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14년만에 노인 가구의 주된 형태는 자녀동거형태에서 노인부부형태로 변화되었음이 나타났다. 특히 읍면부 지역에서는 노인독신과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78.1%로 대부분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자녀세대가 주로 도시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농어촌 노인의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거주하던 지역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표 2-2〉 지역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전체	56.9	43.1	63.0	37.0	67.9	32.1	68.6	31.4
성별								
남	37.3	40.4	35.5	39.1	38.5	37.7	40.6	39.4
여	62.7	59.6	64.5	60.9	61.5	62.3	59.4	60.6
연령								
65-69세	41.7	41.1	39.5	35.5	37.9	37.8	40.0	34.0
70-74세	29.9	29.4	29.4	29.0	29.2	27.1	27.7	29.8
75-79세	16.9	15.9	17.1	19.7	16.9	18.8	16.8	19.2
80세 이상	11.5	13.5	14.0	15.8	16.1	16.4	15.6	16.9
평균(세)	71.9	72.3	72.4	73.0	72.8	73.0	72.7	73.3
교육수준								
글자모름	30.3	45.1	39.5	36.1	17.3	23.1	11.0	23.6
글자해독	26.2	31.9	19.9	30.2	18.6	25.7	16.3	20.5
초등학교	27.6	18.9	31.7	25.9	33.5	38.0	35.8	42.0
중학교	6.6	2.2	9.2	4.1	11.3	5.9	14.0	7.7
고등학교	4.7	1.6	8.2	2.5	12.2	4.7	13.4	5.0
전문대 이상	4.5	0.4	5.8	1.2	7.1	2.6	9.4	1.3
결혼상태								
유배우	44.1	52.7	46.9	53.1	54.4	55.6	64.9	63.7
무배우	55.9	47.3	53.1	46.9	45.6	44.4	35.1	36.7
가구유형								
노인독신	10.9	17.1	16.8	19.8	19.2	23.5	16.5	25.9
노인부부	20.8	34.5	23.8	35.1	31.7	40.3	44.3	52.2
자녀동거	62.8	44.1	52.8	41.5	42.2	30.9	33.1	17.1
기타	5.5	4.2	6.6	3.7	6.9	5.3	6.0	4.9

성별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거주지역의 분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남성과 여성 모두 동부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연령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노인은 지난 14년간 연령분포의 차이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75세 미만 노인 비중의 약간의 감소와 75세 이상 노인의 약간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초기노인의 감소와 후기노인의 증가,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의 변화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후기 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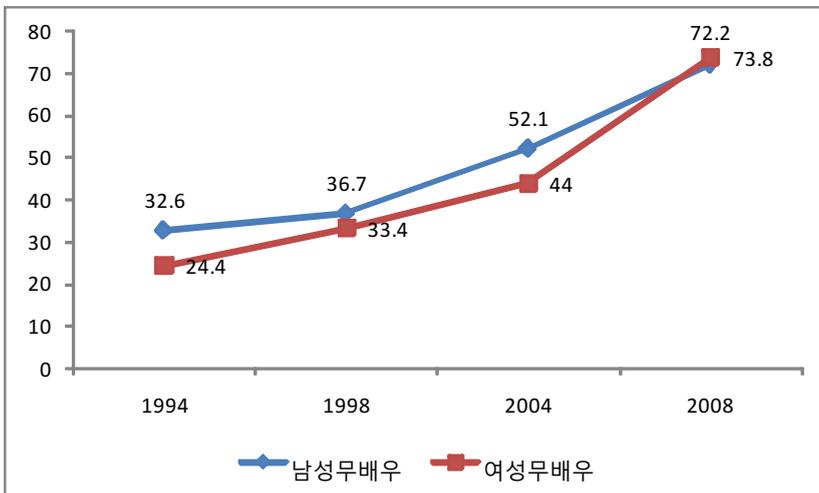
성별 교육수준의 변화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특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994년에 비해 2008년에 노인의 교육수준은 큰 향상을 보였고 특히 여성노인의 향상이 크게 나타났다.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해 여성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향이 반영되어 1994년 여성의 무학 비율이 79.7%였으나, 2008년 46.0%로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노인에 비해 큰 감소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 초등학교 학력자도 1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경향은 중고등학교 이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1994년 조사에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의 학력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남녀간 학력차이는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남성과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이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조사에서 남성의 유배우율은 83.8%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8년 90.4%까지 증가하여 대부분의 남성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유배우율이 25.2%에서 47.1%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노후를 배우자 없이 보내는 경우가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유배우율이 증가한 것은 남성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구유형에서도 나타난다. 남성노인의 경우 노인독신의 비중은 14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노인의 독신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여성노인의 약 30%는 독신노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의 성별 배우자 유무에 따른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과거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 독거비율이 24.4%이며, 남성노인의 경우 32.6%였으나, 2008년으로 오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졌다(그림 2-3 참조). 즉, 지난 14년간 노인의 거주형태는 자녀동거형태 중심에서 노인만의 가구형태인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 가구로 변화하였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노인부부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형태를 보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혼자서 사는 경우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졌다.

[그림 2-3]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독거비율의 성별 변화



〈표 2-3〉 성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39.7	60.3	36.9	63.1	38.3	61.9	42.6	57.4
지역								
동부	54.5	57.6	60.8	64.3	68.3	67.6	66.4	65.2
읍·면부	45.5	42.4	39.2	35.7	31.7	32.4	33.6	34.8
연령								
65~69세	45.6	38.8	43.3	35.0	43.8	34.1	43.1	34.5
70~74세	30.9	29.0	28.1	29.9	29.8	27.7	29.7	27.5
75~79세	14.4	17.7	15.9	19.3	14.8	19.1	15.7	18.9
80세 이상	9.1	14.5	12.7	15.8	11.5	19.7	11.5	19.1
교육수준								
글자모름	15.8	49.9	9.9	40.5	4.5	28.3	4.4	22.7
글자해독	26.9	29.8	17.2	27.5	11.8	26.5	9.4	23.3
초등학교	33.9	17.4	37.9	24.7	36.9	33.7	37.9	38.0
중학교	10.2	1.3	13.5	3.8	15.9	5.7	17.9	7.7
고등학교	7.3	0.9	12.0	2.6	18.0	4.7	17.3	6.0
전문대 이상	6.0	0.7	9.5	1.0	2.9	1.1	13.1	2.3
결혼상태								
유배우	83.8	25.2	86.4	27.6	88.4	34.0	90.4	47.1
무배우	16.2	74.8	13.6	72.4	11.6	66.0	9.6	52.9
가구유형								
노인독신	6.1	18.3	6.9	24.3	6.6	29.3	6.2	28.9
노인부부	47.3	13.9	48.3	16.0	54.5	22.0	65.2	34.8
자녀동거	42.8	62.2	40.8	53.2	33.4	41.8	24.1	30.0
기타	3.8	5.7	3.9	6.5	5.5	6.9	4.5	6.4

### 3. 노인의 연령 및 가구형태별 특성변화

연령대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초기 노인(65~69세)은 동부 거주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읍·면부 거주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노인의 경우 도시 지역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연도별 결과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후기 노인(75~79세)과 후기 노인(80세 이상)은 남성과 여성의 비

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노인이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에서 2008년으로 갈수록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중학교 졸업 학력의 초기 노인(65~69세)의 증가 폭이 1994년에서 2008년 10.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모든 연령대의 유배우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무배우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시점까지는 70세를 넘으면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으나 2004년에는 75세를 기점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80세를 넘으면서 무배우가 될 확률이 50%를 넘게 되었다. 즉,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점차 80세 이상까지 유배우가 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초기 노인(65~69세)과 중초기 노인(70~74세)의 경우 1994년과 1998년은 자녀동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4년과 2008년에는 노인독신과 노인부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후기 노인(80세 이상)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동거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이 높아질지라도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보다는 노인독신과 노인부부의 형태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4년 조사에서부터 나타나며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1994년에서 1998년에는 노인독신과 노인부부가구는 동부보다 읍면부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4년부터는 동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전반적으로 동부거주 노인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겠지만,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노인독신 또는 노인부부가구 유형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읍면부 보다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연령대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전체	41.5	29.7	16.5	12.4	38.1	29.2	18.1	14.7
지역								
동부	56.7	56.8	57.8	52.4	65.5	63.3	59.7	60.1
읍·면부	43.3	43.2	42.2	47.6	34.5	36.7	40.3	39.9
성별								
남	42.5	40.2	33.9	28.4	41.9	35.4	32.4	32.0
여	57.5	59.8	66.1	71.6	58.1	64.6	67.6	68.0
교육수준								
글자모름	27.2	37.0	44.0	58.1	19.5	28.2	38.2	45.3
글자해독	27.2	29.9	31.0	27.9	17.0	22.9	32.6	31.7
초등학교	33.1	21.0	16.7	9.0	38.1	30.8	21.1	15.0
중학교	5.4	6.2	3.4	0.3	10.5	7.6	3.7	3.1
고등학교	3.9	3.2	2.2	3.4	8.8	5.8	3.5	2.6
전문대 이상	3.2	2.7	2.7	1.3	6.0	4.7	0.8	2.3
결혼상태								
유배우	60.5	48.1	35.7	21.3	64.8	48.1	38.7	23.9
무배우	39.5	51.9	64.3	78.7	35.2	51.9	61.3	76.1
가구유형								
노인독신	11.6	16.9	13.4	12.6	16.6	21.2	17.5	15.4
노인부부	36.4	24.7	17.1	12.8	35.7	27.6	24.7	12.4
자녀동거	47.6	53.0	64.3	69.4	42.6	46.3	52.0	64.5
기타	4.4	5.4	5.3	5.2	5.1	4.9	5.7	7.7

〈표 2-4〉 계속

(단위: %)

구분	2004년				2008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전체	37.8	28.5	17.5	16.2	38.0	28.4	17.6	16.0
지역								
동부	67.9	69.5	65.4	67.5	69.2	64.0	62.5	63.8
읍·면부	32.1	30.5	34.6	32.5	30.8	36.0	37.5	36.2
성별								
남	44.3	40.1	32.5	27.2	45.7	42.1	35.8	28.8
여	55.7	59.9	67.5	72.8	54.3	57.9	64.2	71.2
교육수준								
글자모름	9.3	17.7	24.9	38.8	7.3	11.9	20.4	35.1
글자해독	13.4	19.1	28.9	32.7	12.4	15.8	21.7	29.5
초등학교	40.7	39.5	31.7	17.0	41.5	42.6	36.5	23.0
중학교	13.4	9.7	5.4	5.2	16.3	11.4	8.9	5.1
고등학교	15.8	8.6	3.6	4.5	14.6	11.4	6.4	3.8
전문대 이상	7.5	5.4	5.5	1.8	8.0	7.0	6.2	3.4
결혼상태								
유배우	70.2	58.4	42.2	26.2	78.9	69.8	53.9	32.9
무배우	29.8	41.6	57.8	73.8	21.1	30.2	46.1	67.1
가구유형								
노인독신	16.3	20.9	27.6	22.7	12.6	19.6	27.6	28.3
노인부부	42.6	36.7	28.1	18.2	55.6	52.1	39.9	25.4
자녀동거	35.3	35.3	39.7	50.7	26.7	25.0	28.7	33.3
기타	5.7	7.1	4.6	8.4	5.1	3.2	3.7	13.1

가구형태별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는 여성 노인의 비율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구는 남성의 비율이 30% 이상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8년 11.6%로 차이가 감소하였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여성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노인 독거 또는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무배우상태의 자녀동거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별 연령별 특성은 노인독신과 노인부부가구는 1994년과 1998년에는 75세 미만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4년과 2008년으로 오면서 7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노인만의 가구형태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5〉 가구형태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전체	11.9	29.1	53.8	5.2	17.9	27.9	48.6	5.5
지역								
동부	45.0	43.8	64.8	62.5	59.2	53.6	68.4	75.1
읍·면부	55.0	56.2	35.2	37.5	40.8	46.4	31.6	24.9
성별								
남	17.5	68.5	30.3	29.7	14.2	63.7	30.9	26.2
여	82.5	31.8	69.7	70.3	85.8	36.3	69.1	73.8
연령								
65~69세	35.4	56.2	36.1	36.8	35.2	48.6	33.4	34.8
70~74세	36.9	27.4	28.8	32.6	34.5	28.9	27.9	25.9
75~79세	16.2	10.5	19.4	17.6	17.6	16.0	19.3	18.8
80세 이상	11.5	5.9	15.7	13.0	12.6	6.5	19.4	20.5
교육수준								
글자모름	41.0	21.0	43.1	38.9	35.7	17.8	33.6	26.6
글자해독	31.4	26.7	28.1	39.0	25.2	20.2	25.2	24.1
초등학교	19.7	31.3	22.1	13.4	26.4	36.2	26.4	33.4
중학교	5.6	8.5	2.8	3.5	4.6	9.9	6.7	9.2
고등학교	1.4	6.4	2.5	2.0	5.2	9.7	4.8	1.9
전문대 이상	1.0	6.0	1.5	3.2	2.9	6.3	3.3	4.8
결혼상태								
유배우	3.1	99.7	35.1	32.0	4.4	100.0	37.7	38.8
무배우	96.9	0.3	64.9	68.0	95.6	-	62.3	61.2

〈표 2-5〉 계속

(단위: %)

구분	2004년				2008년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노인 독신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전체	20.6	34.4	38.6	6.4	16.6	47.3	30.0	6.1
지역								
동부	63.3	62.4	74.3	73.1	55.0	61.9	78.8	70.3
읍·면부	36.7	37.6	25.7	26.9	45.0	38.1	21.2	29.7
성별								
남	12.3	60.6	33.1	33.1	12.5	55.8	35.1	32.2
여	87.7	39.4	66.9	66.9	87.5	44.2	64.9	67.8
연령								
65~69세	29.9	46.8	34.6	34.1	24.2	44.9	36.7	34.7
70~74세	28.8	30.4	26.1	31.8	28.2	31.5	25.8	16.4
75~79세	23.4	14.3	18.0	12.6	24.7	15.0	18.3	11.7
80세 이상	17.8	8.5	21.3	21.5	23.0	8.7	19.3	37.3
교육수준								
글자모름	31.8	8.4	20.2	30.4	29.1	7.7	16.2	27.4
글자해독	26.3	15.5	24.1	13.3	25.5	13.1	19.1	22.3
초등학교	28.6	40.7	33.7	32.2	32.7	42.6	36.0	27.2
중학교	5.4	12.1	9.4	10.4	6.1	14.0	12.2	11.8
고등학교	5.6	13.8	9.0	5.9	4.1	13.7	10.2	7.9
전문대 이상	2.3	9.6	3.5	7.7	2.5	9.0	6.6	3.3
결혼상태								
유배우	1.6	99.9	44.3	46.4	-	100.0	53.8	46.6
무배우	98.4	0.1	55.7	53.6	100.0	-	46.2	53.4

## 제2절 노인의 거주환경의 변화

노인의 거주환경은 생활의 다양한 모습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지난 14년간 도시화,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인하여 노인이 생활하는 주택환경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형태도 1994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많이 변화하였다. 1994년에는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이 75.6%, 아파트 13.9%, 연립주택 5.7%, 다세대주택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8년과 2004

년, 2008년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1998년과 2004년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를 보이다가 2008년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200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다소 증가하였고, 다세대주택은 1998년 1.6%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5.6%까지 증가하였다.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증가하며, 또한 아파트가 도시의 일반적 주택형태로 변화하면서 노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소유형태에서는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할 때 자가의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전세가 크게 감소하고 월세의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독신, 노인부부의 가구형태가 빈곤한 노인의 경우 목돈이 필요한 전세보다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 노인 가구의 주택유형 및 주택소유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주택유형				
단독주택	75.6	71.8	62.0	60.5
아파트	13.9	18.7	28.6	24.8
연립주택	5.7	4.3	2.5	5.8
다세대주택	2.6	1.6	3.9	5.6
비거주용 건물내	0.3	-	-	-
상가주택	1.9	3.2	2.4	2.5
기타	-	0.4	0.6	0.8
주택소유 <sup>1)</sup>				
자가	-	73.8	60.3	76.4
전세	-	13.6	19.7	7.5
전·월세	-	6.0	9.5	-
월세	-	3.5	5.4	7.4
기타	-	3.1	5.1	8.8

주: 1) 주택소유: 2004년 월세항목 보증금 없는 월세 포함, 기타 항목 관사, 무상 포함.

편리한 주택 시설은 기능이 저하되는 노인이 계속적으로 재가에서 거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14년간 노인의 거주 생활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노인이 거주하는 부엌은 1994년 재래식 부엌이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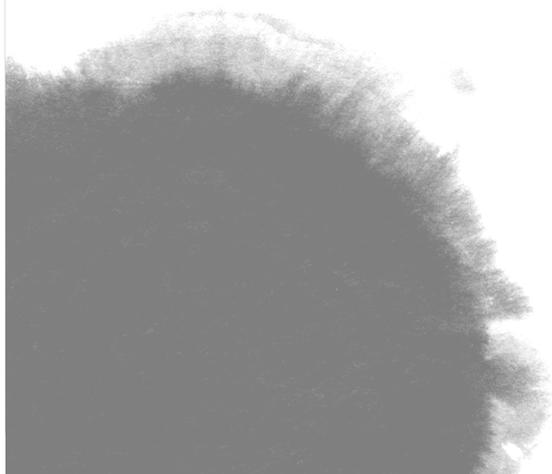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였으나 2008년 3.4%로 줄어들어 대부분의 노인은 입식부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은 1994년 재래식의 비율이 47.9%였으나, 2008년은 11.5%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노인은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시설 또한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1994년에 가정내에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가 47.3%였으나, 2008년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가 91.1%로 가정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가 높아졌다. 노인의 주거환경은 지난 14년간 급속히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2-7〉 노인생활환경(부엌과 화장실) 형태 변화

구분	(단위: %, 명)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부엌				
없다	1.5	-	0.3	-
입식	66.0	-	95.2	96.6
재래식	32.5	-	4.5	3.4
화장실				
없다	1.5	-	0.1	-
수세식	50.7	-	80.3	88.5
재래식	47.9	-	19.5	11.5
목욕시설				
없다	47.3	-	11.4	-
온수	49.4	-	84.7	91.1
비온수	3.3	-	3.8	8.9

# 03

##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변화





## 제3장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변화

본 장에서는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노인에게 가용한 가족관계의 규모와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자녀 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수, 손자녀 수, 형제자매 수, 친척 유무 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이웃의 수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tie)들은 Cantor가 제시한 사회적 후원체계의 각 구성요소들이다(Cantor, 1979)<sup>1)</sup>.

둘째, 세대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3세대 이상이 동시에 생존하여 ‘콩깍지’가족(beanpole family)화 현상(Binstock and George, 2001)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관심사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세대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세대의 수에 대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동시에 생존하고 있는가 하는 가용성의 측면과 한 가구내에 몇 세대가 동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주형태의 두 측면에서 검토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의 제특성(Moren-Cross and Lin, 2006) 중 조사자료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연계망의 크기, 연계끈과의 접촉빈도, 자원의 교환을 통한 상호성과 연계망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관련 노인의 행태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은 자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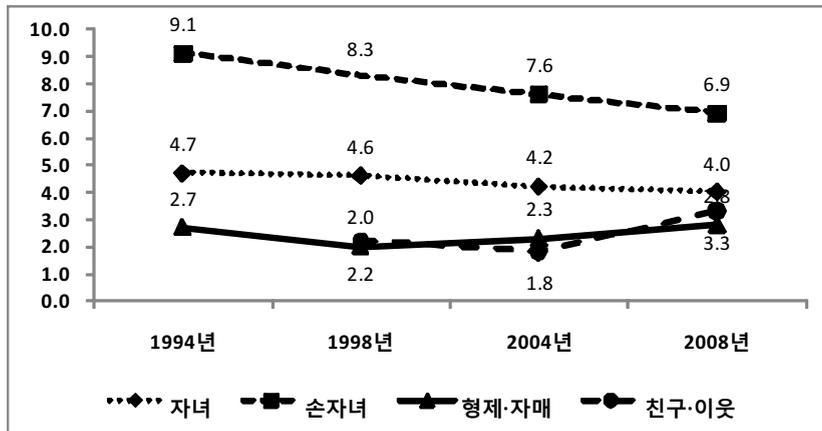
1) Cantor는 자아가 중심에 있고, 각 후원의 원천들이 자아로부터의 사회적 거리의 정도와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밖으로 뻗어 나가는 후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각 구성요소에는 일차적인 비공식 관계인 친족, 이차적인 비공식 관계인 친구, 이웃, 공식적인 관계인 동료, 단체성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척도라는 의미가 있다.

## 제1절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1994년부터 2008년까지라는 14년간 가족의 규모와 구성에 있어 변화와 더불어 지속성이 함께 발견된다.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더불어 손자녀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1994년의 4.7명에서 1998년의 4.6명, 2004년의 4.2명, 2008년 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손자녀의 경우도 1998년의 9.1명에서 2008년 6.9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1] 연도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반면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비율은 1994년의 5.8%에서 2008년의 8.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하여 이제 노인도 직계의 최고 윗세대가 아닌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형제·자매의 경우는 200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 더 많은 형제·자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는 현상으로, 평균수명의 증대가 노년기를 함께 하게 되는 형제·자매의 수를 증대시킨 것은 아닌가 추측케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이 친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인 비공식적인 관계 외에도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차적인 비공식적 관계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수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 수는 1998년의 2.2명, 2004년의 1.7명, 2008년의 3.3명으로 년도별 차이가 있어 년도별 경향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는 조사별로 친한 친구·이웃을 정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케 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중요한 타자에 있어 노인의 제특성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 또한 지속성과 변화가 동시에 발견된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일관되게 자녀의 수가 도시거주 노인은 농어촌 지역 거주노인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노인세대들의 장년기 때의 출산률이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높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모의 생존율과 형제·자매수에 있어서는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다. 단, 2008년의 경우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형제자매수가 2.6명으로 도시지역 노인의 2.9명에 비하여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에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정리해보면 도시지역 거주노인이 농어촌 지역의 노인에 비하여 직계가족의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친한 친구·이웃의 경우는 1998년의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없고, 2004년에는 도시지역 노인이 1.8명, 농어촌지역 노인이 1.6명으로 도시지역이 높았지만, 2008년에는 각각 3.1명과 3.5명으로 농어촌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친구·이웃관계에 있어서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자녀 수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손자녀 수는 남자노인이 약간 많으며, 부모생존율은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향성이 모든 조사에서 발견된다. 즉 1994년도의 경우 여자노인의 4.1%가 생존부모가 있는 반면 남자노인의 경우는 8.4%이며, 2008년

2) 2008년의 경우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친척을 조사하였으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움.

의 경우 각각 12.5%와 5.1%인데, 이는 남자노인들이 자신보다 몇 살 아래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보다 나이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친한 친구·이웃수에 있어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음으로 친한 친구·이웃수가 조사된 1998년 조사의 경우 남자노인이 2.6명이고 여자노인이 2.0명이었고, 2004년의 경우는 각각 2.0명과 1.6명, 2008년 조사에서는 3.5명과 3.1명이다.

연령별로는 1994년에는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하여 자녀수가 많지만 1998년에는 70~74세군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2004년에는 오히려 후기노인에게서 가장 많아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8년도 조사에서도 연령과 자녀수가 비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출생년도별로 비교해 보면 1919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가 1930년 이후에 출생한 경우에 비하여 자녀수가 많은데, 이러한 시대별 출산행태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동일한 출생코호트별 자녀수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1919년 이전 출생코호트의 경우는 1994년의 4.5명, 1998년의 4.4명, 2004년에 4.7명, 2008년에 5.0명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조사마다 이들 출생코호트의 상대적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수가 적고 손자녀수도 적은 경향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부모 생존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친척이 있는 비율은 무학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친한 친구·이웃의 수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년도별 변화없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비공식적인 관계의 규모가 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녀, 부모, 손자녀에 있어 가구유형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으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형제·자매수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한 친구·이웃의 수도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높아, 노인부부가 비교적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1〉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평균 자녀, 부모, 손자녀 수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sup>2)</sup>	2004년			2008년		
	자녀	부모 <sup>1)</sup>	손자녀	자녀	자녀	부모 <sup>1)</sup>	손자녀	자녀	부모 <sup>1)</sup>	손자녀
전체	4.7	5.8	9.1	4.6	4.2	10.0	7.6	4.0	8.0	6.9
지역										
동부	4.5	5.4	8.0	4.2	4.0	10.0	7.1	3.8	9.0	6.2
읍·면부	5.0	6.1	10.6	5.1	4.6	9.8	8.6	4.6	6.3	8.2
성										
남자	4.8	8.4	8.2	4.7	4.2	16.2	6.8	3.9	12.5	6.1
여자	4.6	4.1	9.7	4.5	4.3	6.0	8.1	4.2	5.1	7.4
연령										
65~69세	4.8	9.2	7.5	4.4	3.9	18.8	6.0	3.5	15.5	5.2
70~74세	4.7	4.7	8.8	4.7	4.3	6.6	7.6	4.1	6.2	6.9
75세 이상	4.5	1.2	12.1	4.6	4.6	1.8	9.7	4.6	1.3	8.7
출생년도										
1919년 이하	4.5	1.2	12.1	4.4	4.7	0.0	11.7	5.0	0.0	11.5
1920년~1929년	4.7	7.3	8.1	4.7	4.6	1.9	9.3	4.6	0.6	9.0
1930년~1934년	4.5	18.8	5.6	4.4	4.3	7.5	7.5	4.4	2.6	7.8
1935년~1939년	-	-	-	-	3.9	19.3	6.0	-	-	-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7	3.6	10.4	4.6	4.7	2.3	9.5	4.6	2.6	8.6
무학(글자해독)	4.9	3.8	9.4	4.7	4.4	4.0	8.4	4.2	6.5	7.2
초등학교	4.6	10.5	7.9	4.6	4.2	10.7	7.5	3.8	13.4	5.8
중고등학교	4.4	7.9	7.3	4.3	3.8	18.6	6.0	3.4	13.4	5.1
전문대학이상	4.0	4.3	6.3	4.0	3.5	21.3	5.2	3.2	16.2	4.5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4.3	2.4	8.4	3.9	3.8	3.3	7.5	4.2	2.5	7.2
노인부부가구	4.7	4.6	8.3	4.8	4.3	10.9	7.7	4.0	8.2	6.7
자녀동거가구	4.8	5.4	9.7	4.7	4.4	10.9	7.6	4.1	8.7	6.7
기타가구	5.2	100.0	8.4	4.1	3.9	22.0	7.1	4.1	23.3	8.0

주: 1)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있는 비율 2) 부모와 손자녀에 대하여 조사되지 않았음.

〈표 3-2〉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평균 형제·자매수·친척·친한 친구이웃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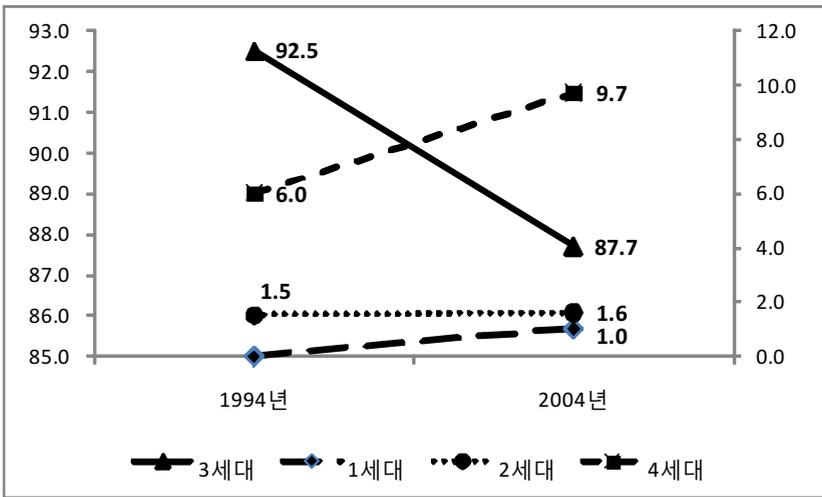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형제 자매	친척 <sup>1)</sup>	친구 이웃 <sup>2)</sup>	형제 자매	친척 <sup>1)</sup>	친구 이웃	형제 자매	친척 <sup>1)</sup>	친구 이웃	형제 자매	친척 <sup>1)</sup>	친구 이웃
전체	2.7	98.0	-	2.0	91.4	2.2	2.3	87.7	1.8	2.8	56.2	3.3
지역												
동부	2.7	97.8	-	2.0	90.6	2.2	2.3	86.3	1.8	2.9	53.7	3.1
읍·면부	2.7	98.2	-	1.9	92.9	2.2	2.3	90.6	1.6	2.6	61.4	3.5
성												
남자	2.7	98.5	-	2.0	91.8	2.6	2.4	89.2	2.0	2.8	59.7	3.5
여자	2.6	97.7	-	2.0	91.2	2.0	2.3	86.7	1.6	2.8	53.8	3.1
연령												
65~69세	2.8	98.7	-	2.5	92.6	2.6	3.1	90.6	2.0	3.5	62.5	3.6
70~74세	2.7	97.3	-	2.0	91.7	2.1	2.2	86.2	1.7	2.8	58.6	3.4
75세 이상	2.3	97.6	-	1.4	89.7	1.8	1.5	95.3	1.4	2.0	47.0	2.8
출생년도												
1919년 이하	2.3	97.6	-	1.2	98.7	1.6	1.1	88.1	1.0	1.0	32.1	1.7
1920년~1929년	2.8	98.1	-	1.9	91.5	2.2	1.5	85.1	1.5	1.7	43.4	2.6
1930년~1934년	3.3	98.9	-	2.6	93.4	2.5	2.3	86.0	1.8	2.5	53.2	3.1
1935년~1939년	-	-	-	-	-	-	3.1	91.0	2.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4	98.5	-	1.7	89.9	1.7	1.8	84.3	1.3	2.1	45.2	2.4
무학(글자해독)	2.6	97.4	-	1.9	93.0	1.8	2.0	85.2	1.4	2.7	56.2	3.2
초등학교	2.8	98.2	-	2.2	91.9	2.5	2.5	90.0	1.7	3.1	60.6	3.5
중고등학교	3.4	97.3	-	2.2	90.8	2.8	2.7	88.1	2.4	3.3	61.4	4.0
전문대학이상	3.2	98.7	-	2.3	91.4	3.6	2.9	91.0	2.9	3.5	66.7	4.7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5	98.6	-	2.0	88.4	2.1	2.1	83.5	1.7	2.5	50.0	2.9
노인부부가구	2.9	98.6	-	2.2	92.9	2.5	2.5	90.7	1.9	3.0	60.3	3.6
자녀동거가구	2.6	97.9	-	1.9	92.3	2.1	2.3	87.7	1.7	2.7	55.3	3.1
기타가구	2.4	100.0	-	1.9	86.7	1.6	2.4	84.7	1.8	2.6	47.6	2.8

주: 1) 친척이 있는 비율임 2)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웃의 수

## 제2절 노인의 세대구성 변화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서 다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 1994년과 2004년이라는 10년 사이에 그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92.5%에서 87.7%로 감소한 대신 4세대의 비율이 6.0%에서 9.7%로 3.7%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1994년에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전혀 없는 노인이 없었지만 2004년에는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3-2] 연도별 세대구성의 변화



이러한 세대구성을 계층성별로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경우 2세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어촌거주 노인에게서는 4세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자노인에 비하여 4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남녀노인간의 차이도 더 커지고 있다. 1994년에는 동비율이 남자노인이 8.5%, 여자노인 4.2%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지만 2004년에는 그 격차가 더 커져서 각각 15.9%와 5.7%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자들이 자신보다 어린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있어 배우자의 부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전의 노인의 경우 4세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능성은 최근 들어서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기준 70세 이전의 노인의 9.4%가 4세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은 2004년에 18.1%로 증가하였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동 비율이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아도 뚜렷하다. 2004년의 경우 1935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4세대 비율이 18.6%로 1920년대 출생자의 1.9%나 1930~1934년대 출생자의 7.3%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4세대의 비율이 높고 1세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경우 4세대 비율이 2004년 기준 8.5%로 경제상태를 좋거나 보통이라고 평가한 노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육수준이나 경제사정이 좋을수록 전체적인 가족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케 한다. 한편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별로 비교해보면 1994년에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2004년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4세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3〉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세대구성<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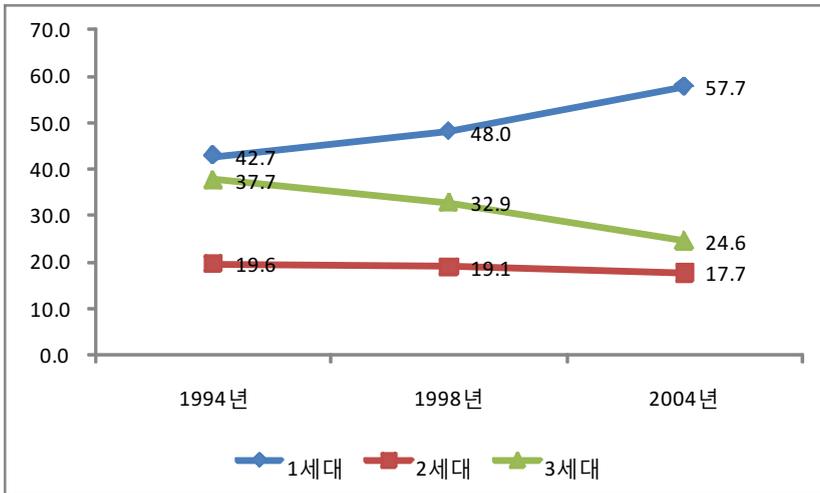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1994년				2004년			
	1	2	3	4	1	2	3	4
전체	-	1.5	92.5	6.0	1.0	1.6	87.7	9.7
지역								
동부	-	2.2	91.8	6.0	1.2	1.9	87.3	9.6
읍·면부	-	0.6	93.4	6.0	0.6	0.9	88.6	9.9
성								
남자	-	1.8	89.7	8.5	0.5	2.2	81.3	15.9
여자	-	1.3	94.5	4.2	1.4	1.1	91.8	5.7
연령								
65~69세	-	2.5	88.1	9.4	0.5	2.3	79.1	18.1
70~74세	-	1.3	93.9	4.8	1.5	1.5	90.6	6.5
75세 이상	-	0.0	98.6	1.4	1.3	0.7	96.2	1.8
출생년도								
1919년 이하	-	0.0	98.6	1.4	2.0	1.8	96.2	0.0
1920년~1929년	-	2.0	90.5	7.5	1.3	0.5	96.2	1.9
1930년~1934년	-	3.2	77.3	19.5	1.5	1.6	89.6	7.3
1935년~1939년	-	-	-	-	0.3	2.3	78.8	18.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	1.4	95.0	3.6	1.9	1.0	94.9	2.2
무학(글자해독)	-	0.7	95.5	3.9	1.3	0.5	94.5	3.8
초등학교	-	2.6	86.4	11.0	0.8	1.2	87.7	10.3
중고등학교	-	2.2	89.4	8.4	0.8	2.4	78.6	18.2
전문대학이상	-	0.0	95.5	4.5	0.0	7.1	72.6	20.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	1.9	95.4	2.7	4.3	1.0	91.6	3.1
노인부부가구	-	1.4	94.0	4.6	0.5	1.1	87.6	10.8
자녀동거가구	-	1.6	92.7	5.6	0.0	2.1	87.5	10.4
기타가구	-	0.0	0.0	100.0	0.0	2.9	76.6	20.6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	0.0	91.8	8.2	0.0	1.8	86.3	11.9
보통	-	2.0	94.0	4.0	0.4	1.5	87.9	10.2
나쁘다	-	1.8	91.2	7.0	1.8	1.6	88.1	8.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	2.3	93.3	4.5	0.0	2.9	83.9	13.2
약간 좋다	-	1.5	92.5	6.1	0.5	1.3	87.0	11.3
보통	-	1.2	91.9	6.9	1.5	1.6	87.5	9.4
약간 나쁘다	-	1.7	93.0	5.3	1.2	2.0	88.2	8.7
매우 나쁘다	-	1.5	92.5	6.0	0.5	0.0	91.9	6.6

주) 1998년과 2008년은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분석하지 못하였음.

한편, 동일 가구 내에서 실제 몇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가용한 세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동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이 어떤 세대와 동거하는가와 상관없이 동거세대의 수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노인이 부모, 자녀, 손자녀 세대 중 한 세대하고만 동거하는 경우 모두 2세대 동거로 분류되었다. 노인 한 세대만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이 1994년의 42.7%에서, 1998년의 48.0%, 2004년의 57.7%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3세대가 동거하는 비율은 37.7%에서 32.9%, 24.6%로 급감하고 있다. 즉 가용한 세대의 수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세대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 연도별 동거세대 구성의 변화



이러한 변화를 노인의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거주 노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노인 1세대만 동거하는 비율은 농어촌 거주 노인에 비하여 낮은 반면 3세대가 동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다. 그러나 1세대 가구의 증가와 3세대 가구의 감소라는 경향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2세대 가구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편이라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여자노인에 비하여 1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여자노인에 비하여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3세대가구의 비율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높다. 1세대가구의 비중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는 최근 들어올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세대 가구의 경우는 여자노인이 조금 높던 것에서 최근 들어와서는 남자노인에게서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변화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모두 3세대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는 최근에 들어 더 빨라졌고 남자에 비하여 여자노인에게서 속도가 빠른 것으로 관찰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대 가구의 비중에 있어 연령군별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등 1세대 가구 증가 경향이 모든 연령군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후기 노인의 경우 3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은 등 3세대 가구에 있어서의 연령군별 차이는 유지되고 있다. 한편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면 동일한 출생연도의 노인도 최근에 올수록 1세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가구구성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교육수준별 차이가 컸지만 최근 들어와 그러한 교육수준별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노인 1세대가구의 보편화 현상에 따라 교육수준별 차이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3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교육수준별 차이의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세대 가구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하는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3세대 가족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성인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하는 경향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관적 경제상태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을수록 3세대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가용한 세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경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1994년에 50.2%, 1998년에 49.9%이던 것이 2004년에 들어와 그 비율이 급증하여 59.7% 수준이다.

〈표 3-4〉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동거세대 구성<sup>1)</sup>

(단위: 명,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1	2	3 <sup>1)</sup>	1	2	3	1	2	3
전체	42.7	19.6	37.7	48.0	19.1	32.9	57.7	17.7	24.6
지역									
동부	33.7	20.8	45.5	42.9	21.2	35.9	53.4	18.7	27.8
읍·면부	54.5	18.1	27.5	57.0	15.4	27.7	66.7	15.4	17.9
성									
남자	54.1	18.6	27.3	56.2	20.3	23.5	62.1	19.0	18.9
여자	35.3	20.3	44.4	43.2	18.4	38.4	53.9	16.8	28.3
연령									
65~69세	49.1	20.6	30.4	52.9	23.3	23.8	59.4	20.9	19.7
70~74세	42.3	19.8	37.9	49.9	16.0	34.1	58.2	16.3	25.5
75세 이상	32.3	17.9	49.8	39.7	16.6	43.6	55.0	14.6	30.4
출생년도									
1919년 이하	32.3	17.9	49.8	31.8	20.2	48.0	44.3	19.4	36.3
1920년~1929년	46.3	20.2	33.5	50.8	15.4	33.8	57.1	13.6	29.3
1930년~1934년	43.4	31.9	24.8	51.9	25.8	22.4	59.3	16.4	24.3
1935년~1939년	-	-	-	-	-	-	58.2	21.5	20.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4.1	21.3	44.6	42.5	18.6	39.0	56.1	15.6	28.3
무학(글자해독)	41.4	19.3	39.3	44.6	15.6	39.8	55.5	16.9	27.6
초등학교	46.3	19.1	34.6	51.6	19.1	29.4	57.6	16.9	25.5
중고등학교	63.9	14.4	21.7	54.2	23.5	22.4	58.7	20.0	21.3
전문대학이상	64.2	22.3	13.5	58.0	27.6	14.4	67.9	22.7	9.4
결혼상태									
무배우	29.2	20.1	50.7	37.2	18.4	44.5	50.2	15.9	33.9
유배우	57.1	19.2	23.7	58.8	19.8	21.4	63.5	19.0	17.5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40.3	16.7	43.0	42.9	13.7	43.4	56.0	12.0	32.0
보통	36.3	22.2	41.5	47.0	18.6	34.4	55.6	19.1	25.4
나쁘다	50.2	17.9	31.9	49.9	20.7	29.4	59.7	17.9	22.4

주: 1) 1994년에는 4세대가 동거하는 0.2%가 포함된 결과임.

2) 2008년에는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분석하지 못함.

3) 세대의 수의 경우와는 달리 가구형태별 동거세대 구성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 생략하였음.

## 제3절 사회적 연계망의 변화

### 1. 연계망의 크기

노인이 폭 넓은 연계망을 갖고 있을수록 노인의 삶의 기회는 확장될 수 있다. 노인이 갖고 있는 연계망은 정서적 지지, 정보제공, 물질적인 보조 등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Campbell, Marsden and Hurbert, 1986; Gronovetter, 1982; Kadusin, 1982; Lin, 1982; Walker, 1985). 특히 가족의 경우 그러한 기능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가 사회적 연계망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Cantor의 위계적 대체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으로부터의 거리에 기초한 동심원상의 관계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수, 손자녀 수, 형제자매 수, 친척 유무, 친구이웃 수, 참여단체 수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조사마다 조사된 내용이 다르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4개년도 조사에서 조사된 사회단체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Cantor(1979)가 제시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연계망 구성 요소 중 공식관계는 제외하고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친척등과 같은 비공식 관계와 친구, 이웃과 같은 2차 비공식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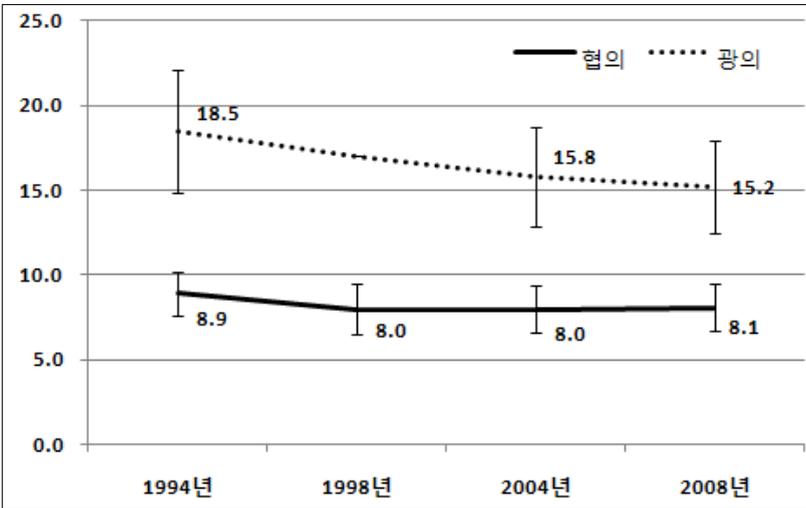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는 2가지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첫째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수, 친척<sup>3)</sup>의 수만 합한 연계망의 크기로 측정되었는데(협의), 이는 1998년에는 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수, 친척 뿐만 아니라 부모와 손자녀 수도 포함하되(광의), 1998년도 분석을 제외하였다. 앞서 개별 연계관(tie)

3) 1994, 1998, 2004년 조사에서 친척은 유무만이 조사되었으므로 있는 경우 '1'로 계산하였음.

을 살펴보았지만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를 통하여 그러한 연계근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협의를 개념에 기초한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는 1994년에 8.9명이며 1998년과 2004년 8명, 2008년에 8.1명으로 1994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광의의 정의에 의할 경우 1994년에 18.5명에서 2008년에 15.2명으로 조사되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자녀 수와 손자녀 수의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의의 사회적 연계망의 경우 표준편차가 2.6~2.9로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광의의 경우는 1994년 7.2, 2004년 5.8, 2008년 5.5로 최근에 올수록 변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연도별 연계망의 크기 변화



제특성별로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노인이 그 크기가 크다. 2008년 기준 농어촌지역의 노인은 협의의 8.4명, 광의의 16.8명으로 도시지역의 7.9명과 14.4명에 비하여 크다. 또한 도시지역의 노인이 농어촌 지역 노인에 비하여 변이가 큼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협의의 정의에 의하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그 크기가 크지만 광의의 정의에 의할 경우 반대로 여자노인의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손자녀 수가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령과 출생년도별로 사회적 연계망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협의의 정의에 의한 사회적 연계망의 크기는 전기 노인에 비하여 후기노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적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아도 동일한 코호트도 최근에 올수록 협의의 사회적 연계망이 축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연령효과가 연계망의 크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광의의 연계망은 후기 노인에게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녀도 나이가 들어 손자녀 수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동일한 코호트도 최근에 올수록 연계망의 크기가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사망보다는 손자녀의 증가의 폭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혼상태별로는 협의의 사회적 연계망은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유배우 노인이 크지만, 광의의 사회적 연계망에 있어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협의의 연계망의 크기가 크고 광의의 경우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가장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별로 살펴보면 경제사정이 좋은 경우 협의나 광의의 연계망 크기가 크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협의의 연계망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광의의 경우는 오히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커지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 악화와 노화에 따라 손자녀 수도 많아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5〉 노인의 제특성별 협의 연계망의 크기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8.9	2.6	8.0	2.9	8.0	2.7	8.1	2.8
지역								
동부	8.7	3.1	7.6	3.5	7.8	3.0	7.9	2.9
읍·면부	9.3	2.3	8.5	2.2	8.4	2.2	8.4	2.5
성								
남자	9.4	2.4	8.5	2.6	8.3	2.4	8.2	2.6
여자	8.7	2.7	7.7	3.0	7.7	2.8	8.0	2.9
연령								
65~69세	9.2	2.5	8.5	2.8	8.5	2.5	8.4	2.8
70~74세	9.0	2.6	8.1	2.8	7.9	2.6	8.3	2.6
75세 이상	8.2	2.8	7.2	2.8	7.3	2.7	7.5	2.9
출생년도								
1919년 이하	8.2	2.8	6.7	2.7	6.9	2.6	6.6	2.9
1920년~1929년	9.1	2.5	8.0	2.8	7.3	2.7	7.1	2.8
1930년~1934년	9.5	2.5	8.6	2.8	8.0	2.6	8.0	2.9
1935년~1939년	-	-	-	-	8.6	2.5	8.3	2.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8.6	2.5	7.5	2.8	7.6	2.7	7.5	2.8
무학(글자해독)	9.1	2.7	7.9	2.7	7.7	2.7	8.1	2.7
초등학교	8.9	2.6	8.4	2.9	8.2	2.5	8.3	2.8
중고등학교	9.7	2.6	8.2	3.2	8.1	2.8	8.2	2.9
전문대학이상	9.2	3.0	8.0	2.6	8.3	2.9	8.3	3.0
결혼상태								
무배우	8.2	2.7	7.0	2.9	7.0	2.6	7.2	2.7
유배우	9.7	2.3	8.9	2.5	8.7	2.4	8.5	2.7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7.7	2.5	6.8	3.0	6.8	2.7	7.2	2.5
노인부부가구	9.6	2.3	8.9	2.5	8.7	2.4	8.5	2.7
자녀동거가구	8.9	2.7	7.9	2.8	8.0	2.6	7.9	3.0
기타가구	9.3	2.2	7.3	3.6	7.5	3.0	7.7	3.1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9.5	2.8	8.6	2.5	8.3	2.5	8.6	2.8
보통	9.0	2.5	8.3	2.8	8.3	2.6	8.2	2.8
나쁘다	8.7	2.6	7.6	2.9	7.7	2.7	7.7	2.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9.3	2.8	8.3	2.6	8.3	2.6	8.2	2.9
약간 좋다	9.0	2.7	8.0	2.8	8.1	2.6	8.4	3.0
보통	8.9	2.5	7.9	2.8	8.0	2.7	8.0	2.6
약간 나쁘다	8.9	2.6	8.0	2.9	8.0	2.7	8.0	2.8
매우 나쁘다	8.9	2.6	7.8	3.0	7.5	2.8	7.6	2.8

〈표 3-6〉 노인의 제특성별 광의 연계망의 크기

(단위: %)

구 분	1994년		2004년		2008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8.5	7.2	15.8	5.8	15.2	5.5
지역						
동부	17.3	8.2	15.1	6.3	14.4	5.5
읍·면부	20.0	6.5	17.1	4.8	16.8	5.1
성						
남자	18.0	6.6	15.4	5.3	14.5	5.1
여자	18.8	7.6	16.0	6.1	15.6	5.7
연령						
65~69세	17.2	5.8	15.0	5.0	14.0	5.0
70~74세	18.5	6.9	15.7	5.6	15.4	4.9
75세 이상	21.7	9.6	16.8	6.8	16.4	6.1
출생년도						
1919년 이하	21.7	9.6	17.7	7.3	18.3	8.3
1920년~1929년	17.7	6.2	16.6	6.7	16.3	6.7
1930년~1934년	15.9	4.8	15.7	5.6	16.1	5.3
1935년~1939년	-	-	15.0	4.9	15.1	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9.5	7.4	16.9	6.5	16.4	6.1
무학(글자해독)	19.3	7.2	16.3	5.9	15.6	5.4
초등학교	17.0	6.7	15.9	5.4	14.3	4.9
중고등학교	18.1	7.4	14.5	5.3	13.5	4.9
전문대학이상	16.0	6.4	14.2	5.4	13.0	5.0
결혼상태						
무배우	18.5	7.9	15.2	6.3	15.2	5.8
유배우	18.4	6.6	16.2	5.4	15.1	5.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16.8	6.9	14.8	6.3	15.0	5.2
노인부부가구	18.3	6.0	16.5	5.3	15.4	5.2
자녀동거가구	18.9	7.9	15.7	5.9	14.7	5.8
기타가구	19.2	5.3	15.1	6.0	16.1	7.4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20.1	7.6	16.2	5.2	15.8	5.4
보통	18.6	7.4	16.3	5.7	15.5	5.4
나쁘다	17.5	6.6	15.2	6.0	14.6	5.6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7.6	8.0	15.3	5.4	14.1	5.6
약간 좋다	18.6	7.3	15.9	5.7	15.0	5.5
보통	18.5	6.5	15.7	5.9	15.1	5.0
약간 나쁘다	18.2	7.0	15.8	5.8	15.5	5.5
매우 나쁘다	19.3	8.2	15.7	6.0	14.7	5.8

## 2. 연계끈과의 접촉 정도

각 연계끈과의 접촉 정도는 사회적 연계망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이다. 망의 특성은 연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의 밀도, 크기, 망구성원간의 유사성과 인구학적 특성, 위치특성으로 연계망 구성원 간의 연계의 정도, 연계의 강도, 상호작용빈도, 관계의 지속기간, 감정적인 친밀성, 관계(Tie)의 복잡성(Multiplexity), 관계의 상호성(Reciprocity), 망 내 다른 구성원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관계의 수(Reachability) 등이 파악될 수 있다(Moren-Cross and Lin, 2006). 그러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접촉 빈도와 도움을 교환정도를 통한 상호성의 파악만이 가능하다.

부모와의 접촉 정도는 조사마다 조사된 방식이 상이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녀 및 손자녀와의 접촉 정도만을 살펴보았다. 접촉 정도는 방문이라는 대면 접촉과 전화 등을 통한 연락빈도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조사되었으나 전화 등을 통한 연락빈도가 시대별 변화에 더 민감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문회수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조사 시는 방문빈도가 거의 매일, 1주에 2~3회 정도, 주 1회 정도, 2주 1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3개월에 1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일 년에 한두번 정도,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지만 종합적인 비교를 위하여 이를 연속형 변수로 환원하여 비교하였다. 즉 거의 매일은 년 365회, 1주 2~3회는 131회, 1주에 1회는 52회, 2주 1회는 26회, 월 1회는 12회, 3개월에 1회 정도는 4회, 6개월에 1회 정도는 2회, 1회 이하는 1회,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는 0회로 환산하였다. 2008년 조사의 경우는 2주 1회와 월 1회가 통합되어 한 달에 한두번 정도로 조사되었고, 6개월에 한 번과 일 년에 한번은 통합되어 일 년에 한두번 정도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각각 그 중간값으로 환산하여 각각 18회와 6회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선택 항목의 차이가 접촉 빈도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자녀와의 접촉 빈도는 1994년의 경우 53.3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녀와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998년에 76.5일 2004년에 74.3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71.1일로 대체적으로 70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자녀의 경우는 1994년과 2004년에는 각각 40일과 39.4일로 큰 변화가 없으나 2008년에는 26.3일로 급감하였으나 실제 접촉빈도의 급감이라기보다는 조사상의 차이 또는 손자녀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노인이 농어촌지역 노인에 비하여 자녀 및 손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4개년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2008년도 조사에서는 손자녀와의 접촉빈도에 있어서의 지역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199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가 여자노인에 비하여 자녀 및 손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으며, 연령군별로도 후기 노인에 비하여 전기노인의 접촉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65~69세 군은 77.4일일에 비하여 75세 이상의 경우는 62.4일로 15일의 차이가 있다.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면 동일한 코호트도 1998년도 조사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노년기에도 일정시기까지는 자녀와의 접촉이 빈번이 이루어지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녀나 손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성에는 년도별 차이가 없다. 즉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정비례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 십수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조사년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비하여 손자녀와의 접촉빈도의 연관성은 최근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노인의 제특성별 자녀 및 손자녀와의 접촉 정도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sup>1)</sup>	2004년		2008년	
	자녀	손자녀	자녀	자녀	손자녀	자녀	손자녀
전체	53.3	40.0	76.5	74.3	39.4	71.1	26.3
지역							
동부	63.1	49.7	81.6	78.1	42.5	80.6	33.1
읍·면부	41.2	28.1	67.9	66.6	33.3	51.8	12.7
성							
남자	51.5	37.0	80.6	76.8	44.1	76.4	31.4
여자	54.6	42.0	74.0	72.7	36.4	67.4	22.9
연령							
65~69세	56.4	44.7	83.4	81.6	55.3	77.4	35.7
70~74세	45.7	41.1	74.7	71.9	35.0	72.7	24.5
75세 이상	57.6	30.7	69.1	66.7	23.1	62.4	17.7
출생년도							
1919년 이하	57.6	30.7	68.0	56.9	13.4	39.7	14.2
1920년~1929년	51.9	43.2	75.9	69.9	25.7	60.2	16.5
1930년~1934년	54.3	43.8	82.3	73.1	35.6	68.5	20.9
1935년~1939년	-	-	-	80.2	55.9	73.4	24.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50.3	34.5	69.4	66.2	28.3	55.0	15.3
무학(글자해독)	57.4	43.2	65.9	64.7	30.6	66.0	22.7
초등학교	50.4	42.0	78.6	75.5	44.0	82.2	33.2
중고등학교	51.7	41.5	102.5	83.3	44.8	82.1	43.1
전문대학이상	76.0	51.2	80.7	94.3	59.6	97.4	44.3
결혼상태							
무배우	54.7	38.4	65.3	68.9	32.8	57.4	18.8
유배우	52.1	41.6	86.8	78.2	44.3	78.1	30.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57.8	31.3	70.2	82.9	37.5	63.3	17.4
노인부부가구	45.4	31.8	85.0	74.7	41.8	81.4	29.1
자녀동거가구	56.6	45.4	73.4	70.4	40.0	59.7	28.4
기타가구	8.5	7.7	76.6	64.6	27.3	62.4	22.5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71.7	54.5	107.8	102.2	56.8	81.3	31.0
보통	51.0	37.0	88.8	82.3	42.6	74.7	25.5
나쁘다	46.6	35.1	58.9	61.2	33.0	61.8	24.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84.8	70.2	83.5	89.2	45.4	95.0	76.6
약간 좋다	56.1	49.1	85.7	80.1	43.4	85.6	80.3
보통	44.8	27.9	69.0	76.3	38.6	71.3	100.0
약간 나쁘다	51.5	36.6	76.4	66.9	37.9	63.3	98.5
매우 나쁘다	44.3	29.1	71.5	62.5	32.1	64.7	86.4

주: 1) 1998년에는 부모와 손자녀에 대하여 조사되지 않음.

한편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1994년도에 29.2일, 1998년도의 경우 26.4일, 2004년도 22.4일로 자녀나 손자녀와의 접촉빈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 정도가 74.3일, 손자녀가 39.4일인 것에 비하여 형제자매는 22.4일에 불과하다.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에 비해서는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형제자매에 비하여 친척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노인에 비하여 농어촌지역 노인의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가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지만, 도시지역 노인의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는 약간 상승한데 비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역간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의 차이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친척과의 접촉빈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농어촌 거주 노인의 형제자매,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형제자매, 친척들의 타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한 접촉기회의 감소와 친족공동체의 약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형제자매나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남자노인에게서 높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그 차이는 형제자매의 경우 매우 극명하게 들어난다. 그러나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여자노인의 경우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남자노인들의 형제자매와의 접촉빈도는 서서히 감소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전기노인들이 후기노인에 비하여 형제자매나 친척과 빈번히 접촉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신체적인 노화와 사망등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나 친척과의 접촉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출생코호트별 비교를 통해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형제자매나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리 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 들어와 그러한 교육수준간의 차이는 많이 약화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하여 활발한 형제자매와의 관계나 친척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지만, 친척과의 접

촉에 있어 결혼상태별 차이는 최근에 들어와 악화되고 있다. 또한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의 경우가 지속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형제자매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다. 반면 노인독거가구는 상대적으로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별로는 1994년을 제외하고는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형제자매와 더 빈번히 접촉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척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뚜렷한 변화의 흐름이나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조사인 2008년에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이웃의 경우는 평균 접촉 빈도가 245.2일로 일년의 약 2/3를 친구 및 이웃과 접촉하고 있어 이들이 노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갖는 의미가 큼을 볼 수 있다. 접촉일수가 200일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도 조사에서는 165.6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008년 조사에서는 다른 조사에 비하여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웃의 수가 3.3명으로 다른 조사가 2명 선이었던 것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것과 함께 생각하면 좁은 범위의 강한 유대에 기초한 친구이웃관계가 폭 넓은, 그러나 접촉빈도는 조금 낮추는 형태로 변화해 간 것은 아닌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높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정경희, 1995). 그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가 높아 변화의 흐름인지 아니면 전체적은 낮은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와 같은 조사상의 특이성에 의한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표 3-8〉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형제자매·친척·친구이웃과의 접촉정도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	친척 <sup>1)</sup>	친구 이웃
전체	29.2	43.1	245.2	26.4	37.1	225.2	22.4	30.8	229.4	32.8	165.6
지역											
동부	12.9	11.8	200.3	16.0	13.2	195.2	16.5	14.7	211.3	26.4	145.2
읍·면부	50.3	84.1	304.4	43.8	77.5	276.7	34.4	63.0	267.3	45.6	131.7
성											
남자	47.6	43.1	255.7	39.4	45.6	214.5	30.4	33.7	194.2	33.1	141.4
여자	17.5	43.1	238.5	19.3	32.1	231.4	17.1	28.9	251.5	32.6	141.0
연령											
65~69세	34.5	45.2	259.6	28.6	40.2	221.5	24.4	28.1	207.7	34.3	141.2
70~74세	28.0	43.3	240.2	23.5	35.9	240.0	20.8	33.2	238.1	35.3	129.9
75세 이상	18.0	39.5	227.2	26.0	34.2	215.1	20.6	32.1	251.9	16.4	131.5
출생년도											
1919년 이하	18.0	39.5	227.2	19.8	29.6	201.5	18.0	24.9	238.1	22.8	197.4
1920년~1929년	32.0	44.4	251.5	27.6	37.9	237.0	20.3	32.9	253.3	28.3	202.5
1930년~1934년	30.9	47.5	254.1	26.7	39.8	215.6	22.1	33.4	232.4	30.4	200.1
1935년~1939년	-	-	-	-	-	-	24.0	27.8	209.4	35.4	182.8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0.8	56.0	271.1	23.9	43.1	246.2	17.5	36.1	293.8	35.9	129.9
무학(글자해독)	27.9	41.2	243.5	30.6	38.9	245.3	21.6	29.2	274.7	32.0	138.5
초등학교	33.0	36.1	242.3	29.8	39.8	228.5	28.3	35.4	236.1	34.8	149.2
중고등학교	24.7	28.3	195.2	18.0	20.1	174.1	19.6	24.7	161.0	31.1	145.3
전문대학이상	4.8	11.5	128.5	19.4	22.5	118.3	10.8	12.6	107.9	32.7	151.5
결혼상태											
무배우	19.8	39.7	236.7	21.9	31.3	231.5	16.5	29.7	257.2	33.8	130.5
유배우	39.0	46.7	254.4	30.6	42.8	218.9	26.5	31.6	208.2	32.3	146.6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34.0	70.7	284.7	32.3	53.2	252.7	16.0	36.0	275.6	40.1	124.5
노인부부가구	39.5	57.2	260.2	31.4	54.0	225.0	26.0	33.1	215.1	33.0	143.4
자녀동거가구	21.7	28.9	226.4	20.1	22.1	214.7	20.5	26.0	214.3	27.3	147.2
기타가구	71.1	26.5	257.5	31.4	23.7	221.9	33.7	27.4	231.8	33.3	159.8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24.6	51.5	237.1	34.4	40.7	248.5	24.5	34.0	187.1	43.4	144.7
보통	27.9	30.4	233.4	27.0	42.5	214.3	25.0	33.3	231.4	31.6	137.6
나쁘다	32.9	52.0	263.3	23.9	32.1	228.6	19.7	28.1	238.0	27.1	143.9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7.0	35.6	237.1	31.3	27.3	211.6	22.6	28.4	183.5	46.6	139.1
약간 좋다	34.8	40.9	249.6	31.8	43.1	229.4	26.3	34.5	222.7	39.6	137.7
보통	30.7	44.4	249.2	26.0	32.5	224.8	17.1	27.8	234.5	30.8	140.1
약간 나쁘다	28.0	41.5	248.4	21.0	37.3	227.8	24.5	34.3	250.0	31.0	147.4
매우 나쁘다	22.9	53.0	231.6	25.8	40.9	223.4	20.9	23.1	216.8	26.0	168.9

주: 1) 2008년에는 형제자매와 친척이 분리되지 않고 접촉 및 연락빈도가 조사되었음.

성별로 살펴보면 1994년과 2008년에는 남자노인이 좀 더 높은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1998년도와 2004년도에는 여자노인이 높은 접촉빈도를 보이고 있어 일관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연령군별로도 조사별로 상이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출생년도별로 일관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데, 친구·이웃과의 관계가 노인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거주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나 건강상태와의 관계에서도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가구형태에 비하여 친구·이웃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주민이 매우 중요한 지지와 지원의 역할을 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 3. 지원의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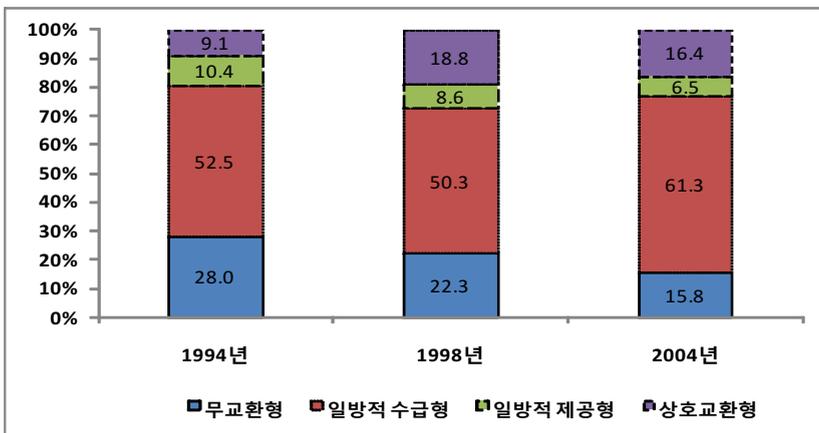
노인의 삶에 있어 가족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는 다양한 지원의 교환실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조사된 다양한 지원의 주 지원자나 수혜자가 가족이므로 자원의 교환을 가족간의 지원의 교환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원의 내용에는 경제적인 지원, 가사지원이나 수발 등과 같은 도구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이라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4개의 조사가 상이한 방식으로 지원의 제공과 수혜 실태를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는 조사내용이 너무 상이하여 비교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도, 1994년과 1998년에는 주택, 식생활, 의류 및 생필품, 보건의료비, 축의금 및 부조, 여가생활이라는 6개 생활비 항목별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조사한 반면, 2004년 조사에서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한 항목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1994년,

1998년, 2004년도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2008년 조사는 기존의 방식과 상이한 방식으로 지원의 교환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분석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즉, 기존조사가 지원 내용별 자원자와 수혜자가 누군가를 조사한 반면, 2008년 조사는 자녀, 손자녀 등 각 대상별로 어떠한 지원을 노인에게 제공하거나 받았는가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지원의 교환에 있어 동일한 틀로 비교할 수 없어 2008년도 조사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원의 교환행태는 전혀 도움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 무교환형, 받기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일방적 수급형, 반대로 주기만 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일방적 제공형, 주고 받고를 모두 하고 있는 상호교환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해볼 때 경제적 지원에 있어 1994년에는 무교환형이 28.0%, 일방적 수급형이 52.5%, 일방적 제공형이 10.4%, 상호교환형이 9.1%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약 절반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무교환형은 감소하였고 상호교환형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 연계망의 도구적인 쓰임새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5] 연도별 경제적 지원 및 교환 유형 변화



노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 노인의 경우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절대적인 수준은 악화되고 있다. 성별로는 지속적으로 남자노인에게서 무교환형이 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는 일방적 수급형의 비율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높다.

연령군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무교환형은 감소하고 일반적 수급형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모든 조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상호교환형은 전기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향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후기노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향이 지속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출생년도별 비교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며 동일한 코호트에서도 최근에 올수록 일방적 수급형의 비율이 높아져 노화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방적 수급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단 2004년 조사에서는 교육수준별 일방적 제공형의 비중 차이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일방적 수급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다. 이들 노인들은 전통적인 형태처럼 가구주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거나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3개 조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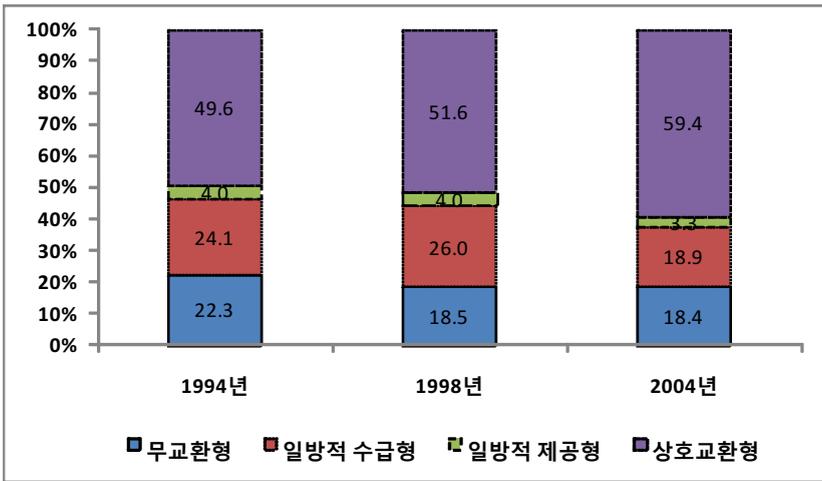
〈표 3-9〉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경제적 지원의 교환유형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전체	28.0	52.5	10.4	9.1	22.3	50.3	8.6	18.8	15.8	61.3	6.5	16.4
지역												
동부	27.3	57.8	6.6	8.3	23.8	54.2	7.2	14.8	16.5	64.5	7.0	14.9
읍·면부	28.9	45.6	15.4	10.2	19.7	43.7	10.8	25.8	14.5	60.7	5.3	19.6
성												
남자	33.6	39.2	17.9	9.4	26.6	40.3	13.9	19.2	19.2	52.7	10.1	18.0
여자	24.4	61.0	5.6	8.9	19.7	56.2	5.4	18.6	13.7	66.7	4.2	15.4
연령												
65~69세	33.9	40.2	16.2	9.8	26.2	39.9	12.6	21.3	17.3	54.1	9.5	19.1
70~74세	26.9	55.4	9.1	8.6	23.3	51.0	7.2	18.5	15.8	63.9	5.2	15.1
75세 이상	19.3	69.8	2.3	8.7	16.2	63.3	4.5	16.0	13.9	68.4	3.6	14.1
출생년도												
1919년 이하	19.3	69.8	2.3	8.7	12.0	69.0	2.5	16.4	14.4	75.1	0.5	10.0
1920년~1929년	31.0	46.5	13.2	9.3	23.4	51.4	7.6	17.6	13.9	67.8	3.9	14.4
1930년~1934년	32.0	32.4	25.5	10.0	26.1	37.4	13.8	22.7	16.1	63.4	5.6	14.9
1935년~1939년	-	-	-	-	-	-	-	-	17.3	53.3	9.7	19.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24.4	59.8	6.9	8.9	19.9	58.5	4.6	17.0	16.6	64.6	4.9	13.9
무학(글자해독)	25.3	56.6	9.7	8.4	16.7	58.7	5.6	19.0	15.2	67.3	3.7	13.8
초등학교	29.8	45.6	14.4	10.1	23.1	46.5	9.3	21.1	13.6	60.9	6.2	19.3
중고등학교	44.5	35.0	9.4	11.1	29.9	36.5	14.2	19.5	18.1	57.4	7.8	16.7
전문대학이상	34.8	34.0	27.0	4.3	38.8	21.9	27.2	12.1	21.7	46.5	18.1	13.8
결혼상태												
무배우	20.0	67.2	3.7	9.1	16.2	63.0	4.8	15.9	15.3	64.9	4.6	15.3
유배우	36.5	36.8	17.5	9.1	28.3	37.8	12.2	21.7	16.3	58.6	7.9	17.2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57.5	34.8	5.9	1.8	35.5	43.4	9.6	11.5	24.6	59.4	4.5	11.4
노인부부가구	49.0	21.9	21.6	7.5	39.6	27.5	15.4	17.6	17.7	60.3	6.7	15.3
자녀동거가구	8.7	74.8	5.5	11.0	6.9	68.3	3.0	21.9	9.0	65.8	6.3	18.9
기타가구	43.4	23.2	14.3	19.1	19.8	37.8	17.5	25.0	14.0	46.6	13.4	26.0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21.8	49.4	15.6	13.3	17.3	42.1	11.3	29.3	17.9	47.1	10.7	24.4
보통	23.1	57.6	9.1	10.3	21.6	46.7	10.9	20.8	12.4	58.7	8.8	20.1
나쁘다	35.7	48.9	9.7	5.7	24.0	55.0	6.1	15.0	17.9	66.6	3.7	11.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24.1	46.5	17.1	11.9	22.9	41.3	10.9	24.8	17.1	48.9	11.9	22.1
약간 좋다	25.0	48.4	13.6	13.0	23.6	42.6	11.8	22.0	15.5	58.4	7.5	18.5
보통	27.6	53.1	10.1	9.2	19.9	51.7	8.7	19.7	15.4	60.2	8.1	16.3
약간 나쁘다	35.0	53.8	6.5	4.7	21.9	53.3	6.9	18.0	13.9	67.7	3.2	15.2
매우 나쁘다	25.8	60.5	7.0	6.7	23.8	58.5	5.8	11.9	21.2	64.2	3.9	10.8

한편 정서적 지원의 경우 상호교환형이 가장 많아 절반이고, 무교환형이 약 1/4, 일방적 수급형이 약 1/4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 일방적 수급형이 약 절반 정도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이다. 이러한 구성형태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상호교환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6] 연도별 정서적 지원 및 교환 유형 변화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하여 상호교환형이 적고 일방적 수급형의 비율이 많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군별로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교환형은 전기노인에게서 높고 7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낮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일방적 수급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출생년도별 비교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최근 코호트에게서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일방적 수급형의 비중이 감소한다. 또한 동일한 코호트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아,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에 비하여 유배우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정서적 지원의 교환유형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전체	22.3	24.1	4.0	49.6	18.5	26.0	4.0	51.6	18.4	18.9	3.3	59.4
지역												
동부	20.6	27.2	4.2	48.0	17.9	26.8	4.0	51.3	17.6	18.2	3.3	60.9
읍·면부	24.5	20.1	3.8	51.6	19.4	24.6	4.0	52.0	20.0	20.5	3.3	56.2
성												
남자	16.7	18.9	6.0	58.4	13.7	23.3	3.7	59.4	16.7	12.7	3.4	67.3
여자	15.9	27.4	2.8	44.0	21.3	27.6	4.2	47.0	19.4	22.9	3.3	54.5
연령												
65~69세	18.8	15.7	4.3	61.2	13.6	20.7	4.6	61.1	14.9	14.9	3.1	67.1
70~74세	21.2	28.1	4.5	46.2	18.6	26.5	4.1	50.9	18.7	17.3	3.8	60.2
75세 이상	29.4	33.3	3.0	34.3	24.8	32.5	3.1	39.6	22.6	25.9	3.1	48.4
출생년도												
1919년 이하	29.4	33.3	3.0	34.3	27.1	36.2	3.1	33.6	20.0	39.4	2.1	28.4
1920년~1929년	19.8	20.9	4.4	54.9	19.1	25.9	4.5	50.6	22.6	24.4	3.2	49.9
1930년~1934년	10.2	18.0	7.9	63.9	12.2	20.3	3.7	63.8	18.6	16.9	3.8	60.7
1935년~1939년	-	-	-	-	-	-	-	-	14.8	14.5	3.1	67.6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1.0	28.1	2.3	38.6	26.8	30.1	3.5	39.6	24.8	28.0	4.4	42.7
무학(글자해독)	23.8	25.2	3.6	47.3	22.6	30.2	3.5	43.7	22.0	20.0	3.4	54.6
초등학교	15.2	20.5	5.2	59.2	13.9	21.9	4.3	59.9	13.8	18.7	2.8	64.8
중고등학교	9.6	16.8	5.8	67.8	8.6	22.3	4.3	64.7	16.6	12.7	3.7	67.0
전문대학이상	0.0	17.2	14.2	68.7	5.5	16.9	6.8	70.8	20.5	10.5	1.8	67.2
결혼상태												
무배우	30.3	30.5	4.1	35.2	24.4	29.4	4.6	41.6	24.7	27.3	4.2	43.8
유배우	13.7	17.3	3.9	65.1	12.5	22.6	3.5	61.4	13.5	12.5	2.6	71.4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35.9	24.9	2.4	36.9	28.3	24.3	3.9	43.6	30.0	28.2	3.5	39.4
노인부부가구	12.4	18.0	3.8	65.9	12.7	21.8	3.2	62.3	13.5	11.6	3.3	71.7
자녀동거가구	24.1	26.7	4.5	44.7	17.6	29.2	4.7	48.5	16.9	20.3	3.0	59.8
기타가구	15.0	9.0	4.2	71.8	21.8	25.6	2.8	49.4	16.9	20.9	5.0	57.2

〈표 3-10〉 계속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무교환	일방적 수급	일방적 제공	상호 교환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13.3	22.2	6.9	57.6	13.7	19.6	5.1	61.6	19.9	13.3	3.0	63.8
보통	22.1	22.9	3.5	51.4	15.5	25.9	2.9	55.7	16.6	16.6	3.1	63.8
나쁘다	26.3	26.0	3.3	44.4	21.7	27.5	4.6	46.2	19.4	21.9	3.6	55.1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6.9	12.1	2.3	68.8	12.1	18.8	5.6	63.5	20.8	6.9	4.2	68.1
약간 좋다	18.6	21.0	4.5	55.9	15.7	22.3	3.7	58.3	16.1	18.1	2.2	63.6
보통	20.7	23.3	5.4	50.7	17.1	25.5	4.0	53.5	17.6	19.1	4.4	59.0
약간 나쁘다	23.1	29.5	2.5	45.0	20.9	29.9	4.0	45.3	19.6	20.0	3.0	57.4
매우 나쁘다	33.9	30.6	4.5	31.0	22.4	29.2	3.7	44.7	20.5	26.4	3.2	49.9

## 제4절 상속행태의 변화

노인 중 상속할 재산과 상속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떠한 상속행태를 보이는가를 통하여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상속의 동기는 다양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행태가 다양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혜, 2008; 정경희, 1999).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4시점의 조사가 상속행태에 대하여 동일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994년과 1998년, 2004년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모두 실제 행태를 조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반면, 2008년 조사는 향후 상속계획과 생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응답결과를 자녀에게 상속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다 소진할 것인지, 사회환원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사결과 재분류와 해석에 기초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994년, 1998년, 2004년 조사 모두 상속할 재산과 상속할 자녀가 있는 노인의 약 60%는 아직 상속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 상속한 경우 구체적인 상속 행태에는 변화가 감지되어, 전부 상속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상속을 하더라도 일부만을 상속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즉, 상속가능한 재산의 일부만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향후 상속해줄 것이라는 암시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상속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산이 있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998년에 2.6%에서, 2004년의 경우 나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자녀에게 상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응답으로 가 준할 경우 10.5%, 2008년의 경우도 1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조사는 노인이 재산상속을 어떠한 의미와 의도를 갖고 계획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이 69.5%로 가장 많고 아들중심으로 배분하겠다는 응답은 7.2%로 낮은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이 7.8%, 효도하는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이 4.0% 등으로 기존의 장남중심의 상속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노인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농어촌지역 노인에 비하여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게서 강하게 나타났고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들에게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연령군별로는 60대 노인에게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가는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해 보면 동일한 코호트에서도 최근에 올수록 다 상속했다는 응답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즉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는 경우는 나이가 들에 따라 서서히 시작한 상속을 마무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올수록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높아져 상속에 대한 노인의 태도가 양극화하고 있다.

노인부부기구의 경우와 유배우 노인의 경우 아직 물려주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아직 사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율도 다른 가구에 비하여 노인부부와 유배우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1〉 노인의 제특성별·연도별 상속 유형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전부	일부	아직	전부	일부	아직	물려줄 생각 없음
전체	28.0	9.4	62.7	24.1	9.9	63.4	2.6
지역							
동부	26.9	5.4	67.8	22.1	10.1	63.8	4.0
읍·면부	28.9	12.9	58.3	26.5	9.7	62.9	0.8
성							
남자	12.0	9.9	78.1	10.9	10.4	75.0	3.6
여자	42.5	9.0	48.5	35.1	9.5	53.7	1.7
연령							
65~69세	18.5	7.2	74.4	11.0	10.1	74.4	4.5
70~74세	32.2	11.6	56.2	22.2	9.1	67.6	1.2
75세 이상	41.7	11.0	47.2	47.3	10.6	41.1	1.0
출생년도							
1919년 이하	41.7	11.0	47.2	55.7	10.7	33.6	0.0
1920년~1929년	23.9	8.9	67.2	25.7	9.6	62.8	1.9
1930년~1934년	7.5	6.3	86.3	7.9	10.2	77.1	4.9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46.4	9.4	44.2	42.7	9.1	48.3	0.0
무학(글자해독)	32.4	12.3	55.3	37.1	9.2	52.7	1.0
초등학교	12.3	8.6	79.1	15.9	10.0	71.4	2.6
중고등학교	8.5	4.4	87.1	6.6	12.1	77.4	2.6
전문대학이상	3.9	3.9	92.2	0.0	9.2	76.0	14.9
결혼상태							
무배우	56.8	6.1	37.1	48.5	7.3	43.1	1.1
유배우	9.3	11.5	79.2	9.0	11.6	76.0	3.5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5.4	6.8	67.8	27.4	10.3	56.8	5.5
노인부부가구	3.7	8.4	88.0	7.6	10.0	79.6	2.8
자녀동거가구	45.2	11.0	43.8	36.1	9.5	53.2	1.2
기타가구	14.7	6.2	79.2	26.3	12.8	57.5	3.5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31.0	10.2	58.7	21.6	13.2	61.2	4.0
보통	30.4	11.1	58.4	26.5	10.7	60.5	2.3
나쁘다	23.4	6.9	69.8	22.1	7.5	67.9	2.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19.1	18.4	62.5	15.5	13.8	67.0	3.7
약간 좋다	24.0	9.2	66.8	22.7	10.6	64.9	1.8
보통	28.7	8.2	63.1	21.2	9.7	65.2	3.8
약간 나쁘다	29.5	7.1	63.4	32.0	7.2	59.2	1.7
매우 나쁘다	40.8	10.3	58.9	24.2	11.0	62.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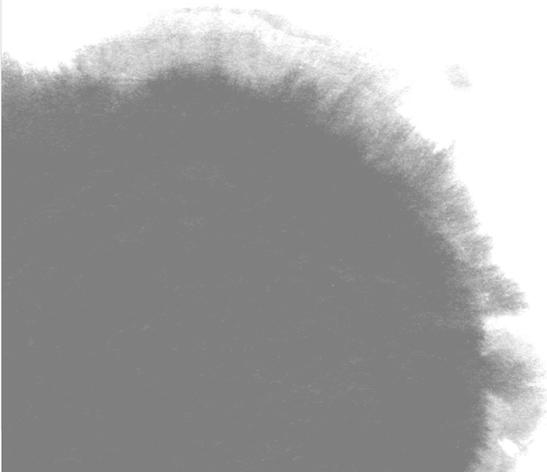
〈표 3-11〉 계속

구분	2004년					2008년					
	전부	일부	아직	나	사회 환원	골고 루	아들 중심	효도	경제	사회 환원	나
전체	16.4	12.2	60.9	9.2	1.3	69.5	7.2	4.0	7.8	2.0	9.6
지역											
동부	14.5	9.6	62.5	11.7	1.8	68.8	6.1	3.7	8.4	2.6	10.4
읍·면부	20.0	16.9	57.9	4.6	0.6	71.0	9.6	4.4	6.4	0.7	7.9
성											
남자	7.8	14.5	66.9	9.2	1.7	71.2	6.4	3.3	6.7	2.4	10.1
여자	23.6	10.4	55.9	9.2	1.0	68.3	7.8	4.4	8.5	1.7	9.2
연령											
65~69세	6.8	13.5	70.3	8.6	0.9	70.7	6.0	3.6	6.9	2.5	10.4
70~74세	16.3	9.7	61.8	10.5	1.7	68.6	7.3	3.4	8.6	2.2	9.9
75세 이상	33.5	13.0	43.2	8.6	1.8	69.0	8.6	4.9	8.1	1.2	8.2
출생년도											
1919년 이하	46.2	12.6	34.0	7.3	0.0	71.4	11.8	5.0	2.8	3.3	5.8
1920년~1929년	31.3	12.2	45.8	8.8	2.0	68.6	9.2	5.4	7.8	1.2	7.8
1930년~1934년	6.9	12.9	70.5	8.8	0.9	69.1	7.2	4.2	8.9	1.2	9.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6.0	5.1	49.2	9.7	0.0	62.3	10.0	6.2	8.0	0.7	7.9
무학(글자해독)	27.3	10.3	54.2	7.9	0.3	69.3	8.0	4.1	8.0	1.1	9.5
초등학교	10.4	13.4	65.8	9.2	1.2	69.1	6.0	2.6	9.8	2.2	10.4
중고등학교	9.5	14.4	63.4	10.7	2.0	73.7	4.0	2.9	5.5	3.3	10.6
전문대학이상	3.2	18.5	66.8	6.1	5.4	70.1	2.3	1.6	5.3	10.2	10.7
결혼상태											
무배우	34.1	6.9	47.3	10.3	1.4	64.6	9.3	5.4	8.4	1.8	10.6
유배우	7.5	14.9	67.7	8.6	1.3	72.2	6.1	3.2	7.4	2.1	9.0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3.3	7.2	52.8	14.6	2.0	64.0	7.9	4.1	8.2	2.2	13.6
노인부부가구	6.5	17.6	66.2	8.0	1.6	73.0	6.0	2.9	7.1	2.5	8.6
자녀동거가구	25.9	7.6	59.5	6.4	0.7	68.6	8.3	5.7	8.8	1.0	7.7
기타가구	15.3	14.5	54.5	15.2	0.6	63.5	10.8	4.7	7.3	1.7	11.9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13.7	18.7	58.0	5.8	3.9	72.3	7.7	3.1	6.8	2.9	7.2
보통	16.1	14.3	62.7	5.9	1.0	71.1	7.4	4.1	6.8	1.2	9.6
나쁘다	17.6	8.0	60.0	13.5	0.9	66.5	6.9	4.4	9.2	2.0	11.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	8.2	19.3	63.5	6.6	2.3	64.9	8.6	5.8	5.8	4.9	10.0
약간 좋다	14.7	12.2	62.5	8.5	2.1	70.9	8.0	2.7	7.0	2.7	8.7
보통	20.0	10.3	59.1	9.7	0.9	70.2	6.6	3.8	7.1	2.3	10.0
약간 나쁘다	16.5	11.3	61.0	10.2	1.0	69.7	7.2	4.2	8.3	1.4	9.1
매우 나쁘다	18.7	13.3	58.5	9.1	0.3	65.9	6.5	5.7	8.6	1.3	12.0



# 04

##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





## 제4장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점으로 197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위생상태 개선, 영양상태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40~50년 전보다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건강상태의 향상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1970년 남자의 기대수명 58.7세, 여자의 기대수명 65.6세에서 2010년 남자 76.2세, 여자 82.9세로 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17세 이상 높아졌다(통계청, 2010).

그러나 지난 40년간 건강상태 향상 및 기대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5년 노인 10명당 약 9명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장년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07).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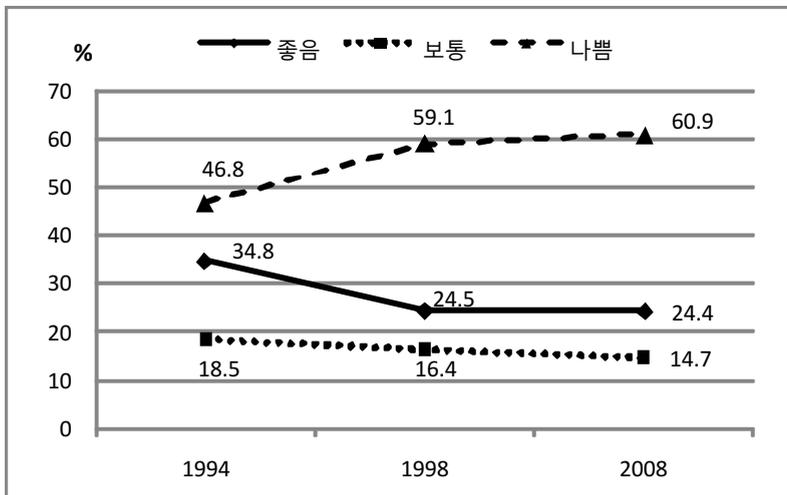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추정되고 있는 한국노인들의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를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유병률, 시력·청력·씹기와 보조기 사용여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제1 절 주관적 건강상태 및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평가 혹은 인식”으로 정의되며 “질병유무 및 장애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ang, 1986). 더 나아가 주관적 건강상태는 단일 질문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Nunley, Hall, & Rowles, 2000) 및 사망(Bath, 2003; Ferraro & Kelley-Moore, 2001)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한국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를 [그림 4-1]에서 살펴보면 ‘ 좋음’에 응답한 사람이 1994년 34.8%에서 1998년 24.5%, 2008년 24.4%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나쁨’에 응답한 비율에서 반대로 나타나는데 2008년에 이르러서는 한국노인 3명중 약 2명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04년에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질문하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그림 4-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주관적 건강상태를 노인 일반특성에 따라 <표 4-1>에서 살펴보면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읍면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신체 기능 상태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젊을수록 질병이 없고 신체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은 연령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기할만한 점은 1998년과 2008년 조사에서 1910년~1919년에 태어난 응답자들의 경우 자신들보다 젊은 1920년~1929년에 태어난 응답자들 보다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보통 젊은 코호트의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와 반대의 결과가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은 1910년~1919년 코호트의 특성으로 보여 진다.

가구유형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 좋음’에 응답한 노인부부가구가 각각 41.9%, 28.3%, 27.7%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가구형태인 자녀동거가구의 응답비율 34.6%, 24.6%, 26.1% 보다 각각 더 높았다. 이는 노인부부가구가 우리사회에 이미 일반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거나 최소한 신체 기능 상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노인부부가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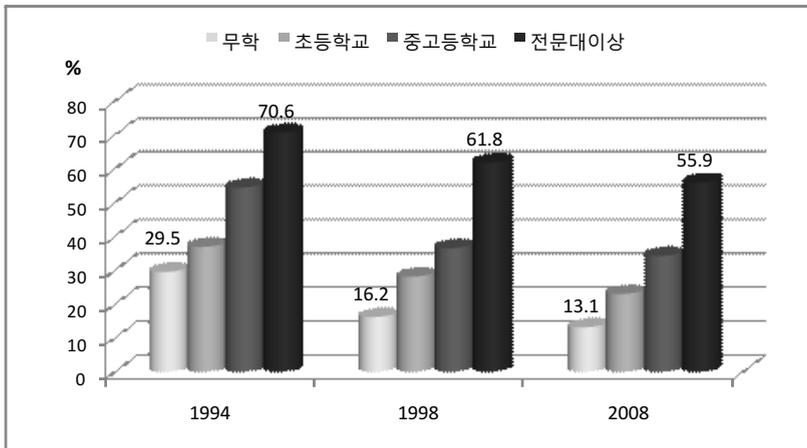
〈표 4-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2008년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전체	34.8	18.5	46.8	24.5	16.4	59.1	24.4	14.7	60.9
지역									
동부	37.4	19.5	43.1	25.6	16.6	57.8	26.8	15.3	57.9
읍·면부	31.3	17.1	51.6	22.8	16.0	61.2	19.8	13.6	66.6
성									
남자	43.8	20.5	35.7	36.6	17.2	46.2	35.4	15.2	49.4
여자	29.0	17.2	53.8	17.5	15.9	66.6	17.0	14.4	68.5
연령									
65~69세	39.1	18.5	42.4	26.4	17.0	56.6	31.6	14.8	53.7
70~74세	36.4	20.3	43.3	22.4	16.8	60.8	23.8	15.1	61.1
75~79세	29.8	16.2	54.0	21.3	14.0	64.7	17.1	14.6	68.3
80세 이상	18.7	16.3	65.0	28.5	17.0	54.5	16.5	14.1	69.4
출생년도									
1909년 이하	3.5	7.1	89.5	27.4	13.0	59.6	51.5	48.5	0.0
1910년~1919년	28.2	17.3	54.6	27.8	15.8	56.4	19.2	19.3	61.4
1920년~1929년	38.0	19.3	42.8	21.0	16.5	62.5	16.6	13.5	69.9
1930년~1934년	39.2	22.9	37.9	29.5	16.7	53.7	17.1	15.4	67.5
1935년~1939년	-	-	-	-	-	-	26.2	14.1	59.7
교육수준									
무학	29.5	17.0	53.5	16.2	15.1	68.7	13.1	13.7	73.2
초등학교	36.9	24.3	38.8	28.1	15.3	56.7	23.0	14.5	62.5
중고등학교	54.4	13.9	31.7	36.5	23.1	40.4	34.2	16.6	49.2
전문대이상	70.6	11.4	18.0	61.8	19.2	19.0	55.9	14.6	29.6
결혼상태									
유배우	41.2	19.6	39.2	29.4	16.5	54.1	28.9	15.1	56.0
무배우	28.8	17.4	53.8	19.7	16.3	64.0	16.3	14.0	69.7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2.8	18.0	59.2	20.1	15.4	64.5	14.8	12.6	72.6
노인부부가구	41.9	18.4	39.7	28.3	16.4	55.3	27.7	15.3	57.0
자녀동거가구	34.6	18.8	46.7	24.6	16.1	59.2	26.1	15.4	58.4
기타가구	31.8	17.6	50.6	19.3	22.4	58.2	22.3	14.0	63.7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50.2	20.7	29.1	49.8	13.1	37.1	49.8	12.8	37.4
보통	35.6	19.7	44.7	26.4	21.2	52.4	31.5	17.5	51.0
나쁨	27.6	16.5	55.9	17.4	13.6	69.0	14.0	12.1	73.9
기능상태									
제한없음	50.9	22.4	26.7	35.2	20.8	44.0	29.4	16.6	54.0
ADL제한	30.8	18.0	51.2	20.6	14.6	64.9	10.3	10.6	79.1
IADL제한	8.1	11.7	80.3	7.0	9.3	83.8	3.5	5.5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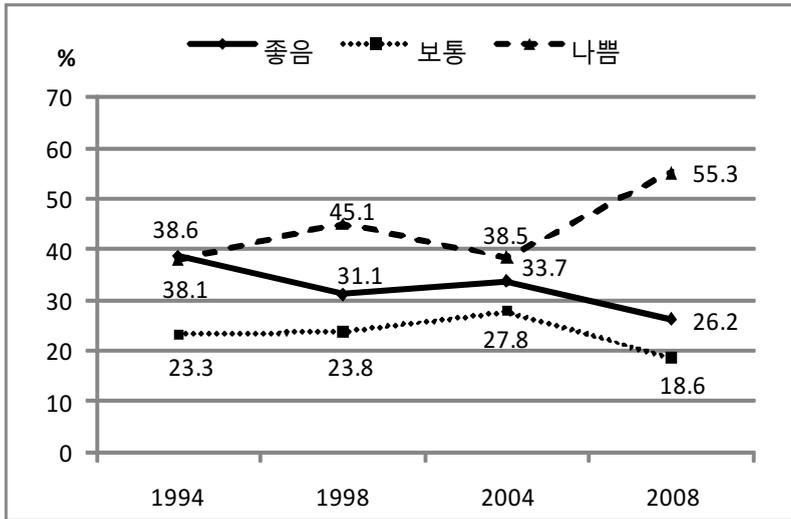
[그림 4-2]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무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등 교육수준 각각의 측면에서 보면 비록 최근으로 올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각 년도 단위로 본다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또 다른 대표적인 지표인 가구소득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무응답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체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대신하여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모든 년도에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응답자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4년 27.6%, 1998년 17.4%, 그리고 2008년 14.0%로 지난 14년 동안 약 14% 가량 낮아졌다. 즉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공고화되었다.

[그림 4-2] 노인이 교육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에 응답한 비율 변화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그림 4-3]에서 살펴보면 1994년 ‘좋음’에 응답한 사람은 38.6%, 1998년 31.1%, 2004년 33.7%, 2008년 26.2%로 2004년을 제외하고 그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나쁨’에 응답한 사람들은 연도별로 38.1%, 45.1%, 38.5%, 55.3%로 역시 2004년을 제외하고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자신의 건강을 동년배와 비교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그림 4-3] 노인의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한국노인의 일반특성에 따른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노인부부가구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신체 기능 상태에 제한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동년배에 비해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표 4-2〉 노인의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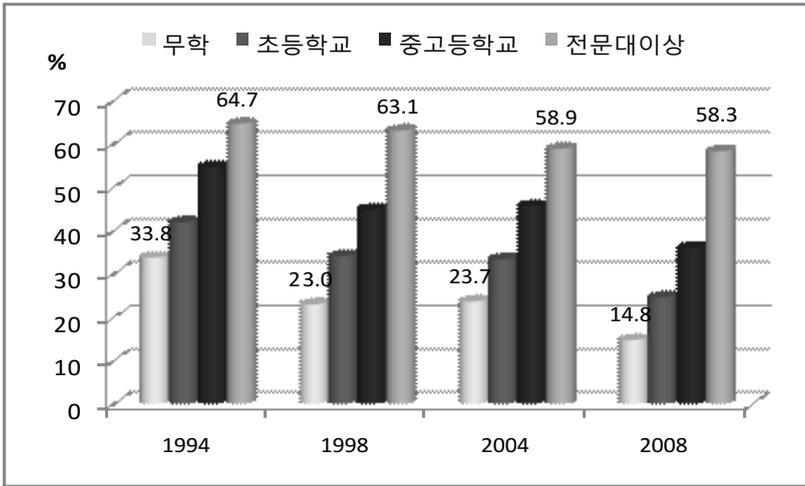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좋음	보통	나쁨									
전체	38.6	23.3	38.1	31.1	23.8	45.1	33.7	27.8	38.5	26.2	18.6	55.3
지역												
동부	41.3	23.8	34.9	31.7	24.7	43.5	35.0	27.8	37.2	28.7	18.3	53.1
읍·면부	35.0	22.7	42.3	30.0	22.1	47.9	30.8	27.8	41.3	21.4	19.1	59.5
성												
남자	48.3	24.1	27.6	41.9	23.9	34.3	46.8	26.3	26.9	37.2	19.0	43.8
여자	32.4	22.8	44.8	24.7	23.7	51.6	25.4	28.7	45.8	18.8	18.3	62.9
연령												
65~69세	38.8	23.2	38.0	32.0	24.4	43.6	36.6	26.1	37.3	32.5	19.1	48.4
70~74세	41.4	24.3	34.3	27.6	23.5	48.8	29.8	32.5	37.7	25.5	18.7	55.9
75~79세	38.0	20.2	41.8	27.6	24.0	48.4	33.0	25.1	42.0	19.3	18.1	62.6
80세 이상	29.6	26.0	44.4	41.4	21.9	36.8	34.6	25.6	39.8	19.9	17.5	62.6
출생년도												
1909년 이하	18.5	24.0	57.5	47.3	8.7	44.0	100.0	0.0	0.0	51.5	48.5	0.0
1910~1919년	36.7	22.1	41.2	38.2	23.3	38.5	43.9	24.1	32.0	32.4	19.3	48.4
1920~1929년	39.9	23.7	36.5	27.7	23.8	48.5	32.6	26.3	41.1	18.8	17.5	63.7
1930~1934년	37.8	27.2	35.1	33.2	24.5	42.3	29.8	31.3	38.9	19.3	18.9	61.8
1935~1939년	-	-	-	-	-	-	36.6	26.4	37.0	27.5	17.8	54.7
교육수준												
무학	33.8	21.9	44.3	23.0	24.8	52.3	23.7	27.7	48.6	14.8	17.7	67.5
초등학교	41.9	28.1	30.0	34.1	20.7	45.2	33.4	28.3	38.3	24.6	18.8	56.6
중고등학교	54.7	20.3	25.0	44.9	26.0	29.1	45.7	26.6	27.8	36.1	20.1	43.8
전문대이상	64.7	20.6	14.6	63.1	26.1	10.7	58.9	29.9	11.2	58.3	15.9	25.8
결혼상태												
유배우	45.7	23.1	31.2	35.2	23.4	41.4	37.8	27.1	35.1	30.5	18.9	50.5
무배우	31.9	23.6	44.5	27.0	24.1	48.9	28.4	28.8	42.8	18.3	17.9	63.9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8.7	19.8	51.5	29.9	18.0	52.1	25.6	30.0	44.3	16.8	16.5	66.7
노인부부가구	45.2	21.4	33.4	34.4	22.1	43.5	38.4	25.3	36.3	29.6	19.5	50.9
자녀동거가구	38.2	24.7	37.1	28.9	27.5	43.5	35.2	28.0	36.8	27.0	19.7	53.3
기타가구	34.8	29.4	35.8	36.7	19.4	43.9	26.1	32.8	41.2	26.1	12.6	61.3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56.1	20.1	23.8	56.2	24.7	19.1	64.1	14.3	21.7	54.5	13.5	32.0
보통	37.8	30.5	31.7	33.9	28.1	38.0	37.7	33.9	28.3	32.8	21.6	45.7
나쁨	31.9	18.1	50.1	23.3	20.4	56.2	23.7	26.2	50.1	15.8	16.1	68.1
기능상태												
제한없음	55.3	23.6	21.1	43.1	26.7	30.2	35.9	29.3	34.8	31.3	20.5	48.2
ADL제한	32.1	27.4	40.5	26.7	25.2	48.1	23.6	19.9	56.5	11.1	15.1	73.9
IADL제한	12.0	20.5	67.5	11.2	17.5	71.3	6.0	11.7	82.3	5.1	7.8	87.1

교육수준별 노인의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는 [그림 4-4]에 제시되었다. 앞서 논의한 교육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모든 년도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년배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년도로 올수록 무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등 모든 교육수준에서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최근으로 올수록 동년배와 비교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94년 무학인 사람 중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은 33.8%, 전문대이상인 사람 중에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은 64.7%로 전문대이상인 사람들의 응답비율이 약 31%포인트 가량 더 높았다. 무학인 사람과 전문대이상인 사람들의 ‘ 좋음’에 응답한 응답비율 격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에는 약 40%포인트, 2004년 약 35%포인트, 2008년 약 44%포인트로 2004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4년간 그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연도에서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범주들의 연도별 변화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노인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주관적 건강 및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4-4] 노인이 교육수준별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에 응답한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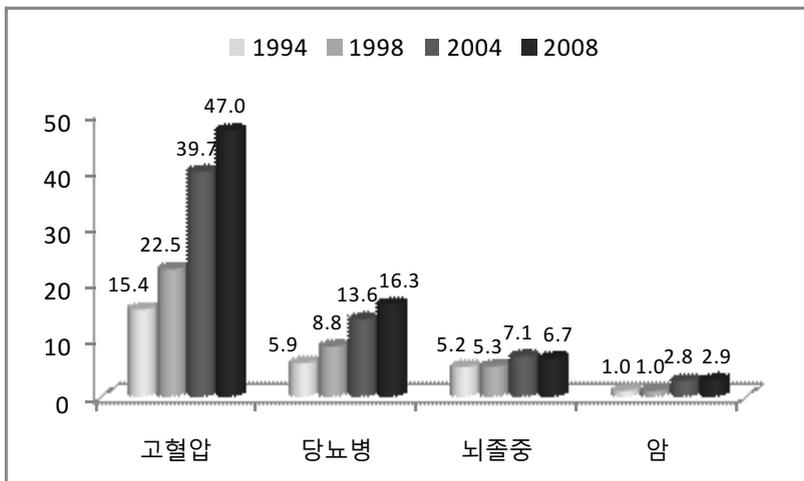
## 제2절 만성질환 유병률의 변화

2008년 현재 건강보험상의 노인인구는 460만 명에 달하며 이는 건강보험 인구의 9.6%를 점유하고 있다.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로 10조 4,310억 원을 지출했으며 노인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18만 8,985원으로 2001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건강보험관리공단, 2009). 이와 같이 노인진료비 지출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질환 유병률을 노인의 일반특성, 특히 신체적 기능제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난 1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절에서는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모든 년도에서 동일하게 질문한 대표적인 네 가지 질병(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에 대한 의사의 진단여부를 기준으로 연도별 유병률을 비교해 보았다. 본인이 인지하는 질병의 유무인 경우 실제

그 질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단 여부를 질병유무의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그림 4-5]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의 유병률은 지난 1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고혈압의 유병률은 1994년 15.4%, 1998년 22.5%, 2004년 39.7%, 2008년 47.0%로 지난 14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뇨병의 경우 1994년 5.9%에서 2008년 16.3%로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뇌졸중 및 암과 같은 중증 만성질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암의 경우 2008년의 유병률은 2.9%에 지나지 않지만 1994년에 비해 이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2007년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9년 이하 암유병률은 4.7%(남 7.03%, 여 3.31%)로 남자는 14명당 1명, 여자는 30명당 1명이 9년 암유병자인 것으로 보고했는데(보건복지가족부·중앙암등록본부, 2009), 본 분석결과의 암 유병률이 이보다 낮은 이유는 노인조사 대상자로 암환자에게 설문지 인터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4-5]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지난 14년간 증가한 것은 기름진 음식 섭취 등 서구화된 식생활이 만연된데 비해 낮은 신체활동으로 인한 비만 증가가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암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진이든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검진이든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 조기진단율이 높아진 것도 유병률 상승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의사에 의해 진단된 고혈압 유병률의 변화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사람,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 지난 14년간 유병률이 거주지와 성별 각 범주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2008년 그 격차는 1994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연령에 있어서 고혈압 유병률의 가장 높은 증가는 75~79세에서 나타났다. 1994년 이 연령대의 노인 약 10명 중 한 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면 2008년에는 과반수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모든 코호트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졌다. 1994년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혈압 유병률도 높았으나 2008년에는 각 교육수준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미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학이 가장 높은 48.3%의 유병률을 보였다. 결혼상태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도 1994년에는 유배우자가 더 높았으나(16.4%) 2008년에는 유배우자가 44.1%, 무배우자가 52.3%로 무배우자가 더 높아졌다. 가구유형에 따른 유병률은 노인독거가구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았으며 2008년 51.2%로 독거노인 2명중 한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2008년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보통일 때 가장 낮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신체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2008년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낮았으며 ADL제한이 있는 경우 1994년에는 6.3%의 유병률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51.2%의 유병률을 보여 무려 40%가 넘는 유병률 증가가 있었다. 고혈압 유병률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는 기능상태와 상관없이 고혈압이 한국노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결과이다.

〈표 4-3〉 노인의 고혈압 유병률 변화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체	15.4	84.6	22.5	77.5	39.7	60.3	47.0	53.0
지역								
동부	17.9	82.1	23.7	76.3	41.4	58.6	48.8	51.2
읍·면부	12.3	87.7	20.4	79.6	36.1	63.9	43.6	56.4
성								
남자	13.2	86.8	17.0	83.0	33.7	66.3	40.7	59.3
여자	16.8	83.2	25.7	74.3	43.4	56.6	51.3	48.7
연령								
65~69세	19.7	80.3	23.3	76.7	40.2	59.8	42.7	57.4
70~74세	14.6	85.4	26.4	73.6	40.2	59.8	48.2	51.8
75~79세	9.0	91.0	20.8	79.2	41.7	58.3	52.0	48.0
80세 이상	11.7	88.3	14.7	85.3	35.3	64.7	49.8	50.2
출생년도								
1909년 이하	4.6	95.4	2.8	97.2	28.7	71.3	0.0	100.0
1910~1919년	11.1	88.9	19.0	81.0	30.2	69.8	36.7	63.3
1920~1929년	17.6	82.4	24.0	76.0	40.7	59.3	51.7	48.3
1930~1934년	17.6	82.4	23.3	76.7	40.5	59.5	50.9	49.1
1935~1939년	-	-	-	-	39.9	60.1	47.1	52.9
교육수준								
무학	13.5	86.5	21.6	78.4	37.5	62.5	48.3	51.7
초등학교	16.8	83.2	24.3	75.7	39.7	60.3	46.4	53.6
중고등학교	21.0	79.0	24.2	75.8	41.8	58.2	46.1	53.9
전문대이상	30.7	69.3	16.4	83.6	47.9	52.1	47.4	52.6
결혼상태								
유배우	16.4	83.6	21.4	78.6	37.3	62.7	44.1	55.9
무배우	14.5	85.5	23.6	76.4	42.6	57.4	52.3	47.7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16.8	83.2	21.2	78.9	44.9	55.1	51.2	48.8
노인부부가구	14.5	85.5	20.5	79.5	36.5	63.5	44.4	55.6
자녀동거가구	15.9	84.1	23.6	76.4	38.8	61.3	49.2	50.8
기타가구	12.0	88.0	27.2	72.8	45.5	54.5	43.8	56.2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17.0	83.0	20.8	79.2	35.2	64.8	49.3	50.8
보통	17.1	82.9	23.5	76.6	39.5	60.5	45.8	54.2
나쁨	12.9	87.1	23.3	76.7	42.2	57.8	48.2	51.8
기능상태								
제한없음	17.3	82.7	19.4	80.6	38.8	61.2	46.2	53.9
ADL제한	6.3	93.8	21.1	78.9	43.1	56.9	51.2	48.8
IADL제한	17.5	82.5	28.3	71.7	43.5	56.5	48.3	51.7

지난 14년간 의사에 의해 진단된 당뇨병의 유병률은 고혈압 유병률 만큼은 아니지만 급속한 증가를 보여준다(표 4-4 참조). 거주지역, 성별의 각 범주에서 유병률이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1994년과 2008년 범주별 격차를 비교해 보면 동부와 읍면부, 남녀의 격차가 거의 비슷했다. 연령대로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75~79세에서 14년 동안 약 14%포인트 높아져 가장 높은 유병률 증가를 보였다.

당뇨병의 경우 오히려 젊은 코호트일수록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 1930~1934년 출생 노인들이 1994년에 비해 가장 높은 유병률 증가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은 2004년까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형태를 보였으나 2008년에 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수준이 낮은 중고등학교가 전문대이상보다 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보통 서구에서 보여지는 교육수준과 유병률 간의 부적관계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4년에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사람이 유병률이 높았으나 2008년에는 이들이 가장 낮은 유병률을 보인다. 2008년 신체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 역시 유병률이 가장 낮았으며 ADL이나 IADL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20%를 웃도는 높은 당뇨병 유병률을 보였다.

뇌졸중 유병률 변화를 보면 앞서 기술한 질병들에 비해 그 증가율이 낮았다(표 4-5 참조). 동부 거주자가 읍면부 거주자에 비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보통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질병 유병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자녀동거가구가 모든 년도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동거 이유 중의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수발에 대한 욕구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뇌졸중 유병률이 높았다. 신체기능상태에 따른 유병률은 제한 없음의 경우 1994년에 0.6%에서 2008년 4.2%로 증가한 것에 반해 IADL제한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1994년에는 12.7% 유병률을 보이다가 2008년 25.1%로 노인 4명중에 한명이

뇌졸중을 앓고 있을 만큼 신체기능장애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표 4-4〉 노인의 당뇨병 유병률 변화

(단위: %)

구 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체	5.9	94.1	8.8	91.3	13.6	86.4	16.3	83.7
지역								
동부	7.7	92.3	9.8	90.2	14.8	85.2	17.6	82.4
읍·면부	3.6	96.4	7.0	93.0	11.0	89.0	13.7	86.3
성								
남자	5.8	94.2	8.2	91.8	12.1	87.9	15.1	84.9
여자	6.0	94.0	9.1	90.9	14.5	85.5	17.1	82.9
연령								
65~69세	7.3	92.7	9.5	90.5	15.2	84.8	17.3	82.7
70~74세	6.8	93.2	11.0	89.0	13.9	86.1	17.5	82.5
75~79세	2.8	97.2	6.3	93.7	16.5	83.5	16.7	83.4
80세 이상	3.3	96.7	5.2	94.8	6.2	93.8	11.4	88.6
출생년도								
1909년 이하	4.8	95.2	2.6	97.4	0.0	100.0	0.0	100.0
1910~1919년	2.7	97.3	6.3	93.7	5.4	94.6	4.9	95.1
1920~1929년	7.1	92.9	9.4	90.6	12.7	87.3	13.1	87.0
1930~1934년	7.7	92.3	9.5	90.6	14.4	85.6	17.4	82.7
1935~1939년	-	-	-	-	15.3	84.7	16.9	83.1
교육수준								
무학	4.6	95.4	7.8	92.2	12.1	88.0	15.7	84.3
초등학교	7.4	92.6	9.0	91.0	14.4	85.6	16.0	84.0
중고등학교	7.7	92.3	10.8	89.2	14.7	85.3	17.3	82.7
전문대이상	18.0	82.0	13.0	87.0	15.5	84.5	16.9	83.1
결혼상태								
유배우	5.8	94.2	9.0	91.0	13.7	86.3	16.2	83.8
무배우	6.0	94.0	8.5	91.5	13.5	86.5	16.4	83.6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4.3	95.7	10.2	89.8	13.7	86.3	16.7	83.3
노인부부가구	5.5	94.5	9.4	90.6	12.8	87.2	16.1	83.9
자녀동거가구	6.5	93.5	7.8	92.2	13.6	86.4	17.1	82.9
기타가구	6.3	93.7	9.1	90.9	18.0	82.0	12.6	87.4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7.2	92.8	10.8	89.2	16.9	83.1	15.2	84.8
보통	4.8	95.2	7.3	92.7	13.5	86.5	15.4	84.6
나쁨	6.6	93.4	9.7	90.3	13.4	86.6	17.4	82.6
기능상태								
제한없음	6.9	93.1	7.5	92.6	13.8	86.3	15.2	84.9
ADL제한	4.5	95.5	8.3	91.8	11.4	88.6	20.2	79.8
IADL제한	5.1	94.9	11.0	89.0	16.0	84.1	20.0	80.0

〈표 4-5〉 노인의 뇌졸중 유병률 변화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체	5.2	94.8	5.3	94.7	7.1	92.9	6.7	93.3
지역								
동부	5.7	94.3	5.8	94.2	7.1	92.9	6.9	93.1
읍·면부	4.6	95.4	4.5	95.5	6.9	93.1	6.4	93.7
성								
남자	6.3	93.7	6.1	93.9	8.4	91.6	8.3	91.7
여자	4.6	95.4	4.9	95.2	6.2	93.8	5.6	94.4
연령								
65~69세	4.7	95.3	4.3	95.7	6.4	93.6	5.8	94.2
70~74세	5.2	94.9	6.5	93.6	7.4	92.6	7.2	92.8
75~79세	5.4	94.6	6.0	94.0	6.9	93.2	6.8	93.2
80세 이상	7.0	93.0	4.8	95.2	8.2	91.8	7.6	92.4
출생년도								
1909년 이하	6.4	93.6	0.0	100.0	0.0	100.0	0.0	100.0
1910~1919년	6.1	93.9	6.2	93.8	8.1	91.9	6.9	93.2
1920~1929년	4.9	95.1	5.9	94.1	7.5	92.5	7.3	92.7
1930~1934년	3.3	96.7	4.1	96.0	7.3	92.7	6.9	93.1
1935~1939년	-	-	-	-	6.4	93.7	7.2	92.8
교육수준								
무학	5.1	94.9	5.7	94.3	7.2	92.8	6.7	93.3
초등학교	5.1	94.9	4.1	95.9	7.1	92.9	6.4	93.6
중고등학교	8.0	92.0	8.0	92.0	6.9	93.2	7.0	93.0
전문대이상	0.0	100.0	0.7	99.3	6.2	93.8	7.1	92.9
결혼상태								
유배우	5.6	94.5	5.4	94.6	7.8	92.2	7.1	92.9
무배우	4.9	95.1	5.2	94.8	6.2	93.8	5.9	94.1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3	97.7	2.8	97.2	4.7	95.4	5.3	94.7
노인부부가구	4.3	95.7	5.1	94.9	8.1	91.9	6.9	93.1
자녀동거가구	6.7	93.3	6.8	93.2	7.4	92.6	7.5	92.5
기타가구	1.9	98.1	1.4	98.6	7.2	92.8	5.5	94.5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3.8	96.2	3.0	97.1	5.0	95.0	6.8	93.3
보통	3.4	96.6	4.3	95.7	5.6	94.4	6.1	93.9
나쁨	4.0	96.0	4.6	95.4	5.8	94.2	7.2	92.8
기능상태								
제한없음	0.6	99.5	1.4	98.6	4.0	96.0	4.2	95.9
ADL제한	4.5	95.5	3.1	96.9	9.3	90.7	7.9	92.1
IADL제한	12.7	87.3	12.8	87.2	39.6	60.4	25.1	74.9

암의 유병률 변화는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읍면부 거주자가 동부 거주자에 비해 높았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1930~1934년 출생 코호트가 다른 코호트에 비해, 유배우자, 노인부부가구,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1994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중고등학교 교육수준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으며 전문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유병률이 떨어졌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서구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이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확률이 높아 건강행태가 양호하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체기능상태에 따른 암 유병률의 차이를 보면 IADL 기능 제한이 있는 사람이 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암 역시 신체기능장애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6〉 노인의 암 유병률 변화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체	1.0	99.0	1.0	99.0	2.8	97.2	2.9	97.1
지역								
동부	1.3	98.7	1.0	99.0	3.0	97.0	2.6	97.4
읍·면부	0.7	99.3	1.0	99.0	2.5	97.5	3.3	96.7
성								
남자	1.8	98.2	1.7	98.3	3.6	96.4	4.0	96.0
여자	0.6	99.5	0.6	99.4	2.4	97.7	2.1	97.9
연령								
65~69세	1.0	99.0	1.4	98.7	3.4	96.6	3.1	96.9
70~74세	1.1	98.9	0.8	99.2	3.3	96.7	3.5	96.5
75~79세	1.7	98.3	0.3	99.7	1.9	98.2	2.5	97.5
80세 이상	0.0	100.0	1.5	98.5	1.8	98.2	1.6	98.4
출생년도								
1909년 이하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1910~1919년	1.1	98.9	1.3	98.7	0.8	99.2	1.5	98.5
1920~1929년	1.1	98.9	0.9	99.2	2.4	97.7	1.7	98.3
1930~1934년	0.8	99.2	1.3	98.8	3.0	97.1	3.0	97.0
1935~1939년	-	-	-	-	3.5	96.5	3.6	96.4
교육수준								
무학	0.8	99.2	1.0	99.0	1.9	98.1	2.0	98.0
초등학교	1.0	99.0	1.1	98.9	3.3	96.7	3.3	96.7
중고등학교	2.1	97.9	0.8	99.2	3.4	96.6	3.4	96.6
전문대이상	4.3	95.7	1.4	98.6	3.7	96.3	2.6	97.4
결혼상태								
유배우	1.5	98.5	1.3	98.7	3.4	96.6	3.3	96.8
무배우	0.7	99.4	0.8	99.2	2.2	97.9	2.2	97.8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0.0	100.0	0.1	99.9	2.5	97.6	2.3	97.7
노인부부가구	0.5	99.5	1.1	98.9	3.2	96.8	3.6	96.4
자녀동거가구	1.7	98.4	1.3	98.7	2.3	97.7	2.2	97.8
기타가구	0.0	100.0	1.5	98.5	5.4	94.6	2.3	97.7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2.4	97.6	0.9	99.1	2.2	97.8	1.8	98.2
보통	0.0	100.0	1.0	99.1	2.6	97.5	2.7	97.3
나쁨	1.6	98.4	0.9	99.1	2.8	97.2	3.1	96.9
기능상태								
제한없음	1.5	98.5	0.7	99.3	2.8	97.2	2.7	97.3
ADL제한	0.3	99.7	0.8	99.2	2.5	97.5	2.3	97.7
IADL제한	0.8	99.2	1.6	98.4	3.9	96.1	4.7	95.3

### 제3절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변화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화된 척도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s)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s)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걷기·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집안일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식사준비하기, 약먹기, 전화사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단순 동작을 넘어 좀 더 복잡한 사고체계와 행위들을 포함한다. 한 개인이 신체기능 상실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 대부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나타나며 그 다음 일상생활수행능력 기능들을 상실하게 된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완전자립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목욕하기이므로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보통 식사하기 항목이 가장 나중까지 수행 가능한 행위이다.

노인의 삶에 있어서의 기능상태는 사회활동 및 가족 등의 관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신체적 건강상태 뿐 아니라 노인이 생활하는 주택형태 및 거주지역에 따라 수행능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목욕하기의 경우는 노인의 집의 목욕시설의 편리성에 따라 수행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수행능력의 측정방식과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4차의 조사에서 이루어진 기능상태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 결과의 큰 차이가 나타낸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측정은 4개 조사년도에서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누웠다가 일어나기(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sup>4)</sup>, 대소변 보기가 공통된 항목이다. 하지만

4) 1994년과 1998년 ADL조사에서는 누웠다가 일어나기(의자에서 일어나기, 앉기)항목과 밖에 나가기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나, 2004년과 2008년에는 체위변경하기(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와 방밖으로 나오기 항목으로 구성됨. 그리고 밖에 나가기의 항목은 IADL에서 근거

2004년과 2008년에는 ADL을 측정하는 조사항목이 더욱 세분화되어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가 측정되었다. ADL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년도별로 측정된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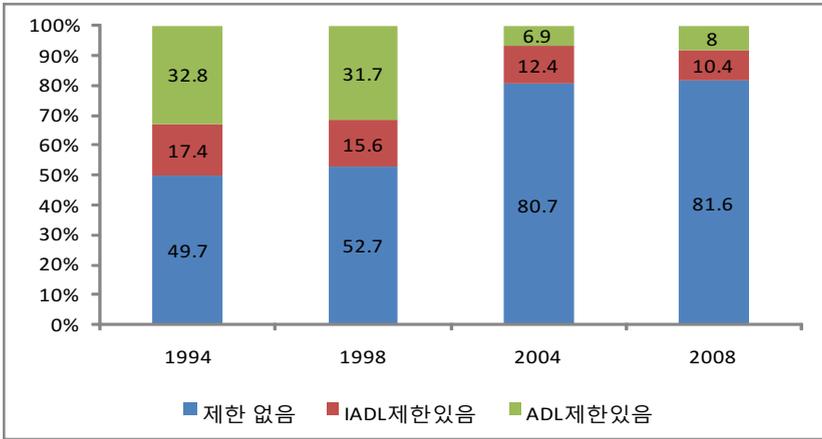
이는 IADL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4개 년도에 공통된 항목은 4개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된 2004년과 2008년 조사에서는 각 년도에서 IADL 항목에서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으로 판단하였다. 2004년과 2008년의 IADL 항목은 몸 단장하기, 식사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없이), 금전관리하기, 약 챙겨먹기가 추가적으로 측정되었다.

ADL과 IADL 수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노인의 비율은 지난 14년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49.7%만이 기능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 52.7%, 2004년 80.7%, 2008년 81.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IADL만 제한이 있는 노인 또한 1994년 17.4%에서 2008년 10.4%로 감소하였으며, ADL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1994년 32.8%에서 2004년 6.9%, 2008년 8%로 감소하였다. 2004년과 2008년 모두 ADL과 IADL의 조사항목이 세분화되고 항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 수단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14년간 노인의 기능상태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주택의 목욕시설, 화장실, 부엌시설이 크게 개선되어졌으며, 또한 교통환경 개선 및 도시화 등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노인의 기능상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여 진다.

---

리 외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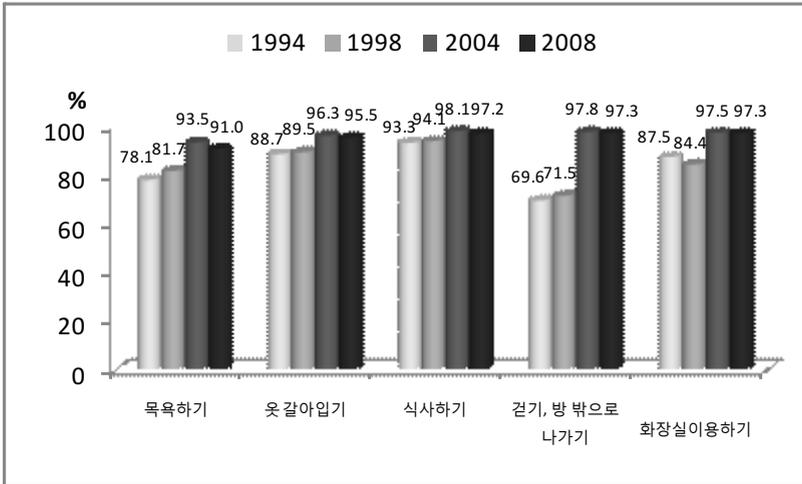
[그림 4-6] 노인의 기능상태 변화



1994년, 1998년, 2004년, 그리고 2008년까지 네 번의 조사에서 질문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들 중 비교가 가능한 항목들의 완전자립도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상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목욕하기의 완전자립 비율은 1994년 78.1%에서 2008년 91.0%까지 높아졌으며, 옷 갈아입기는 88.7%에서 95.5%로, 식사하기는 93.3%에서 97.2%로 높아졌다. 걷거나 방밖으로 나오기는 1994년 완전자립 비율이 69.6%였으나 2008년 97.3%까지 높아져 최근에는 대부분이 걷거나 방밖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른 항목 보다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1994년의 경우 “밖으로 나오기”가 외출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2004년과 2008년의 경우 단순히 “방 밖으로 나오기”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추측된다. 화장실 이용하기 완전자립 비율도 1994년 87.5%에서 2008년 97.3%까지 올라갔다.

[그림 4-7]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완전자립의 변화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목욕하기의 완전자립 비율을 노인 일반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년도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노인부부가구,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목욕하기의 완전자립 비율이 높아졌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14년 동안 목욕하기의 완전자립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80세 이상의 완전자립 비율 증가는 괄목할 만한데 1994년 39.8%만이 완전자립이었는데 반해 2008년에는 79.0%가 완전자립으로 나타나 무려 약 4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교육수준 중 무학의 완전자립 비율은 1994년에 74.0%였으나 2008년에는 87.2%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무학과 전문대이상의 차이가 1994년에 비해 2008년에 줄어들었다. 유배우, 노인부부가구, 주관적 경제상태 등 모든 일반 특성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목욕하기의 완전자립도는 높아졌다(부표 1참조).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변화 두 번째 항목은 옷 갈아입기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노인독거가구,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옷 갈아입기의 완전자립 비율이 높았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교육수준은 모든 범주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완전자립 비율이 상승했으며 2008년에는 무학 94.6%, 초등학교 96.0%, 중고등학교 95.6%, 전문대이상 96.9%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완전자립 비율이 높았지만 범주간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부표 2 참조).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식사하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 중 가장 마지막까지 완전자립이 가능한 항목이다. 따라서 1994년과 2008년의 완전자립 비율은 각각 93.3%와 97.2%로 지난 14년간 상승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노인 일반특성에 따른 식사하기의 완전자립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완전자립이 80% 이상으로 높았으며 특히 65세~69세의 응답자들의 완전자립은 1994년 96.7%, 1998년 97.0%, 2004년 99.3%, 그리고 2008년 98.7%로 매우 높았다. 1994년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사하기의 완전자립 비율이 높아졌으며 유배우, 노인독거가구,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식사하기의 자립 비율이 높았다. 지난 1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0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1994년 78.7%, 1998년 65.6%, 2008년 45.4%로 나이가 들에 따라 완전자립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교육수준의 모든 범주가 최근으로 올수록 완전자립 비율이 높아졌다(부표 3 참조).

한국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네 번째 항목인 걷기·방 밖으로 나오기의 변화는 성별의 차이는 14년 전 남자가 13%포인트 가량 높았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모든 연령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완전자립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기할만한 것은 모든 코호트에서 14년 전에 비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완전자립의 비율이 높아진 것인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질문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수준에 따른 완전자립 비율은 무학이 1994년 64.2%에서 2008년 96.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8년 한 년도만을 놓고 봤을 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완전자립 비율도 올라갔으나 각 범주 간 차이가 미미하

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2004년까지 모든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완전자립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08년에는 ‘ 좋음’에 응답한 사람들의 완전자립 비율은 97.5%, ‘ 보통’은 98.2%, ‘ 나쁨’은 96.6% 로 ‘ 보통’에 응답한 사람들의 완전자립비율이 가장 높았다(부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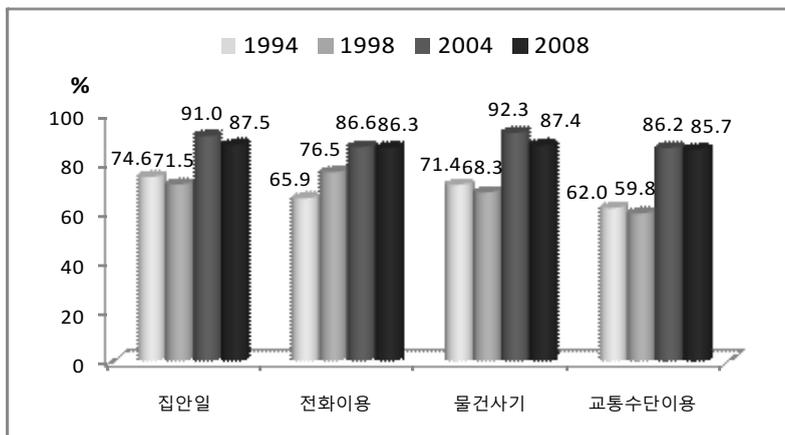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마지막 항목은 화장실 이용이다. 1994년 동부와 읍면부의 완전자립 비율은 각각 89.0%, 85.4%로 동부가 높았으나 두 거주 지역 응답자의 완전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각각 97.0%와 97.8%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동부와 읍면부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화장실이 주생활공간인 방과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에 따른 완전자립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8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완전자립도 증가 추이를 보면 80세 이상이 1994년 62.6%에서 2008년 92.7%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1994년 완전자립도는 무학이 84.1%, 전문대 이상이 92.6%로 8.5%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나 그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무학은 96.2%, 전문대이상은 98.8%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결혼상태 각 범주에서 지난 14년간 자립도가 높아졌으며 모든 형태의 가구유형에서 완전자립도도 역시 높아졌다. 주관적 경제상태의 모든 범주에서 지난 14년간 자립도가 높아졌으나 특히 ‘ 나쁨’에 응답한 사람들의 완전자립 비율은 1994년 87.8%에서 1998년 84.3%, 2004년 99.4%, 그리고 2008년 96.6%로 첫 번째 조사와 마지막 조사 시점만을 놓고 보았을 때 약 9%포인트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주관적 경제상태의 범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준다(부표 5 참조).

전반적으로 한국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남성이 기능상태가 좋았으며 연령이 젊을수록 좋았고 노인부부가구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사회경제적 지표인 교육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완전자립 비율 격차는 지난 14년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거환경의 개선 및 노인 개개인의 건강 향상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본 절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모든 년도에서 동일하게 질문한 항목들인 집안일하기, 전화이용하기, 물건사기, 교통수단이용하기 만을 선택해 완전자립 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4-8]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4년간 한국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하기의 경우 1994년 74.6%가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2008년에는 87.5%가 완전자립에 응답했다. 전화이용하기의 경우 완전자립 비율이 1994년 65.9%, 1998년 76.5%, 2004년 86.6%, 2008년 86.3%로 증가했다. 물건사기의 경우 1994년 완전자립 비율은 71.4%였으나 2008년에는 87.4%까지 향상되었으며 교통수단이용하기의 경우 1994년 62.0%에서 2008년 85.7%까지 향상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4-8]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 완전자립의 변화



가벼운 집안일 하기는 1994년과 1998년에는 동부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자립도가 더 높았으나 2004년과 2008년에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완전자립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완전자립 비율은 1994년에 남자가 82.4%, 여자 69.7%로 약 13%포인트 가량 남자가 높았으나 이후 남녀

모두 완전자립 비율이 향상되어 2008년에는 남자 87.9%, 여자 87.3%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모든 연령에서 완전자립 비율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완전자립의 비율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80세 이상에서는 완전자립 비율이 1994년 31.7%에서 2008년 70.8%로 약 29%포인트나 향상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여주었다. 모든 교육수준에서 지난 14년간 집안일에 대한 자립도는 향상되었으나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그 향상된 폭이 컸다. 무학과 전문대이상의 경우 1994년 각각 70.0%, 94.2%에서 2008년 각각 82.7%, 93.4%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결혼상태 유배우자와 무배우자의 격차도 1994년 13.6%포인트에서 2008년 5.5%포인트로 줄어들었으며 노인독거가구의 자립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2008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의 모든 범주에서 지난 14년간 완전자립 비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상승폭이 커서 2008년에는 범주간 차이가 미미했다(부표 6 참조).

전화이용에 대한 완전자립의 변화는 동부와 읍면부 거주자 모두 지난 14년간 완전자립의 비율이 향상되었으며 1994년 각각 74.2%, 55.1%에서 2008년 87.7%, 83.8%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성별에 따른 변화는 1994년 남자와 여자의 완전자립 비율이 각각 80.5%, 56.6%로 약 14%포인트 남자가 더 높았으나 2008년에는 남자 91.9%, 여자 82.6%로 그 격차가 9.3%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모든 년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완전자립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 범주별 지난 14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항상 폭이 더 컸다. 교육수준별 차이는 무학의 경우 1994년 51.8%만이 전화이용을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전문대이상의 교육수준에서는 92.6%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해서 무려 40.8%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졌다. 2008년에는 무학이 72.8%, 전문대이상이 96.9% 완전자립에 응답함으로써 그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있다. 유배우자와 무배우자의 완전자립 비율 차이도 14년 동안 줄어들었지만 2008년 여전히 12.8%포인트 차이로 유배우자의

완전자립도가 높았다.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완전자립도가 높는데 지난 14년간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완전자립 비율이 더 많이 상승했다(부표 7 참조).

물건사기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부표 8 참조). 1994년 남자의 자립 비율은 80.4%, 여자의 자립 비율은 65.8%였는데 반해 2008년 각각 90.2%, 85.6%로 5%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줄어들었다. 각 연도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완전자립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의 모든 범주에서 지난 14년간 완전자립비율은 상승했다. 가장 젊은 연령인 65~69세가 1994년 85.3%, 80세 이상이 24.4%에서 2008년 각각 94.0% 67.9%로 상승했으며 그 격차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14년간 연령의 격차가 줄어든 것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연령에 따른 완전자립 비율의 격차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완전자립 비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무학은 1994년 64.5%에서 2008년 79.9%로 상승폭이 가장 커 학력 간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했다. 사회경제적 지표의 하나인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범주에서 지난 14년간 완전자립 비율이 상승했으며 각 범주 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교통수단이용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들 중 완전자립 비율이 과거와 현재 모두 가장 낮지만 향상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부표 9 참조).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80세 이상에서 1994년 13.8%가 완전자립이었던데 반해 2008년 63.7%로 약 5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65~69세와 비교해서 약 30%가량 완전자립 비율이 낮다.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모든 범주에서 완전자립 비율이 상승했는데 2008년 무학의 경우 전문대이상과 비교해서 여전히 17.6%포인트나 격차가 있어 다른 범주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모두 지난 14년간 완전자립 비율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유배우자의 자립도가 더 높았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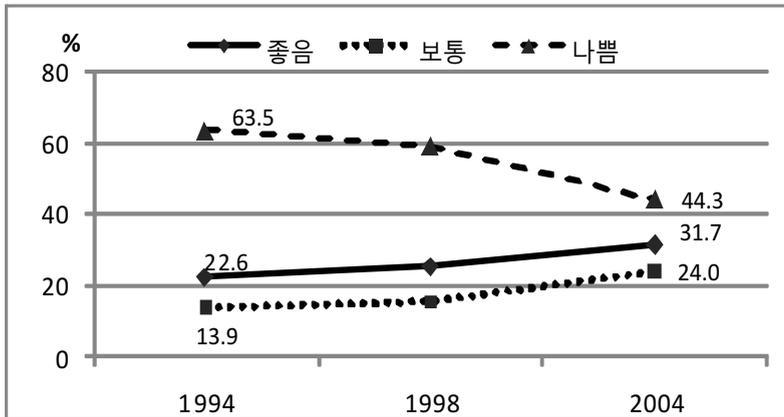
이용하기 완전자립 비율의 변화는 보통과 나쁨의 상승폭이 커서 범주 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 제4절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와 보조기 착용여부

지금까지 연구들은 한국노인들의 신체기능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일상생활 수행능력 혹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주로 다루어 왔다. 본 절에서는 노인들의 시력·청력·씹기 보조기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보조기를 사용하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보조기 사용 여부에 대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보조기 사용 전의 상태에 대해서 2008년 조사에서는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1994년, 1998년, 2004년의 보조기 착용전의 상태에 대한 질문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본 절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노인의 시력보조기 미착용시 상태변화를 [그림 4-9]에서 살펴보면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이 1994년 22.6%, 1998년 25.5%, 2004년 31.7%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 스스로 평가하는 시력이 양호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9] 노인의 시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노인의 일반특성에 따른 시력 보조기 미착용시의 상태를 살펴보면 모든 년도에서 동부 거주자, 남자, 유배우자, 노인부부가구, 신체 기능 상태에 제한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시력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부표 10 참조).

노인의 시력보조기 착용 여부 변화를 살펴보면 ‘착용’에 응답한 비율이 1994년 56.6%, 1998년 55.7%, 2004년 65.7%, 2008년 62.8%로 일관성이 있는 증가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2004년에 시력 보조기 착용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는 조사표 설계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조기 미착용시 시력 상태가 “나쁘다”에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보조기 착용 여부를 질문했기 때문에 착용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에 거주하는 사람,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노인부부가구,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모든 년도에서 시력보조기를 더 많이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젊은 연령 일수록 시력 보조기를 더 착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문, 잡지 등의 서적을 읽을 기회가 연령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으며 관공서, 은행 등의 일을 본다든지 외부활동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시간 변화에 따른 시력 보조기 착용 여부를 살펴보면 65~69세의 경우 시력 보조기 착용 여부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으나 다른 연령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시력 보조기 착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시력 보조기 보급이 일반화되어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생활의 편리를 위해 시력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 코호트 별로 시간에 따른 시력 보조기 착용여부 변화를 살펴보면 1930~1934년 코호트만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이 착용하고 있고 다른 코호트에서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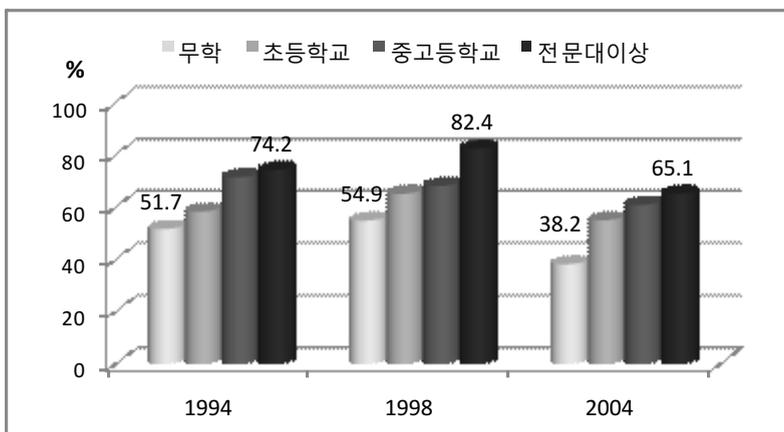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상태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각 년도 별로 살펴봤을 때 동부거주자, 남자,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노인독거부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 보조기 미착용

시 청력이 더 좋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표인 교육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은 사람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 좋음’에 응답한 비율 역시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상태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시력 보조기 미착용시의 상태와는 달리 청력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적으로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0~1929년 출생자들과 1930~1934년 출생자들의 경우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이 1994, 1998, 2004년에 각각 64.0%, 62.4%, 39.3%로 그리고 73.3%, 69.1%, 53.6% 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패널조사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에 따라 청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무학과 전문대이상 두 범주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1994년 22.5%포인트, 1998년 27.5%포인트, 2004년 26.9%포인트로 전문대 이상이 더 많았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차이가 심화되었다(그림 4-10 참조). 또한 모든 교육수준에서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졌다. 지난 14년간 주관적 경제상태 각 범주에서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 좋음’에 대한 응답 비율은 일관성 있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부표 12 참조).

[그림 4-10] 교육수준에 따른 청력 보조기 미착용시 ‘ 좋음’에 응답한 비율 변화



우리나라 노인의 청력 보조기 착용 여부의 변화는 2004년 조사에서는 시력 보조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설문지 구성상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가 “나쁘다”에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보조기 사용여부를 질문했기 때문에 청력 보조기 사용비율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을 제외하고 지난 14년간 청력 보조기 착용 변화를 살펴보면 1994년 2.8%에서 2008년 3.8%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청력보조기의 사용은 시력보조기와 달리 구입비용이 비싸며 청력보조기 사용여부가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되어 착용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부표 13 참조).

각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청력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유형, 기능상태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 좋음’이나 ‘나쁨’에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청력보조기를 약 1%내외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14년간 교육수준별 청력보조기 사용 여부는 일관된 추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관적 경제상태의 각 범주별 사용 여부는 2004년을 제외하고 적지만 약간씩 (1~2%포인트 내외)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노인의 청력 보조기 착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력보조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았으며 향후 그 증가 추세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씹기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에 대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씹기 상태가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은 시간에 따른 추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쁨’에 응답한 비율은 1994년 80.7%, 1998년 76.8%, 2008년 7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각 년도별 노인 일반특성에 따른 씹기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를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사람,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 노인부부가구,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 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을 경우 더 좋았다.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 중 ‘ 좋음’에 응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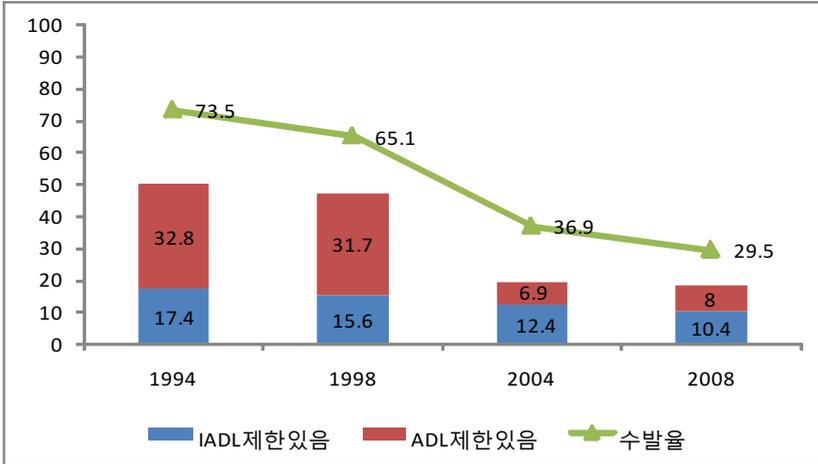
무학의 경우 1994년 10.1%, 1998년 9.9%, 2004년 5.9%로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으나 다른 범주에서는 일관된 추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좋음’에 응답한 무학과 전문대이상의 비율을 1994년과 2004년만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22.6%포인트에서 24.1%포인트로 약간 커짐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씹기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4년 19.6%, 1998년 23.4%, 2004년 23.1%로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 각 범주에 따른 씹기 능력의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부표 14 참조).

노인의 씹기 보조기 착용여부의 변화는 앞선 두 예와 마찬가지로 2004년을 논외로 하고 보면 1994년 49.2%, 1998년 51.3%, 2008년 53.3%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각 년도 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1994년과 1998년에는 70~74세가 가장 많이 착용했으나 2008년에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착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생년도로 보았을 때 1920~1929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용했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착용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씹기 보조기 착용여부 변화를 살펴보면 무학과 초등학교는 최근으로 올수록 착용 비율이 높아졌으나 중고등학교와 전문대이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보조기 착용 비율이 떨어졌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보조기 착용여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보조기를 착용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졌으나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보조기를 착용하는 비율은 과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더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판단하건데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치아관리를 비교적 잘해왔다고 볼 수 있고 씹기 기능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부표 15 참조).

## 제5절 노인의 수발실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또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기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수발을 필요로 한다.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ADL 또는 IADL에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으로 정의)은 조사년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 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994년에는 50.2%가 수발을 필요로 했으며, 1998년 47.3%, 2004년은 19.3%, 2008년은 18.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수발을 받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기능제한 노인 중 수발을 받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1994년 73.5%였으나 1998년 65.1%, 2004년 36.9%, 2008년 29.5%로 감소하였다.

[그림 4-11] 수발필요 노인(ADL, IADL 제한 노인)과 수발율 변화



노인의 특성별 수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는 1994년에는 동부와 읍면부 모두 약 70%대의 수발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에는 동부는 32.4%, 읍면부는 2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수발율의 지역별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읍면부의 수발율이 줄어들

어 2008년 읍면부지역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24.4%만이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1994년도에는 여성노인이 수발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이 수발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발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1994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갖고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에 따라서는 수발비율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2008년 조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수발받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결혼상태에서는 무배우가 유배우에 비해 수발을 받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도 자녀동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수발을 받을 비율이 높은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별로는 1994년 경제상태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경제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는 노인의 수발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능상태별 수발율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수발비율이 높으며, 특히 2008년에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의 수발율은 16.7%이지만,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61.1%가 수발을 받고 있어 실제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되어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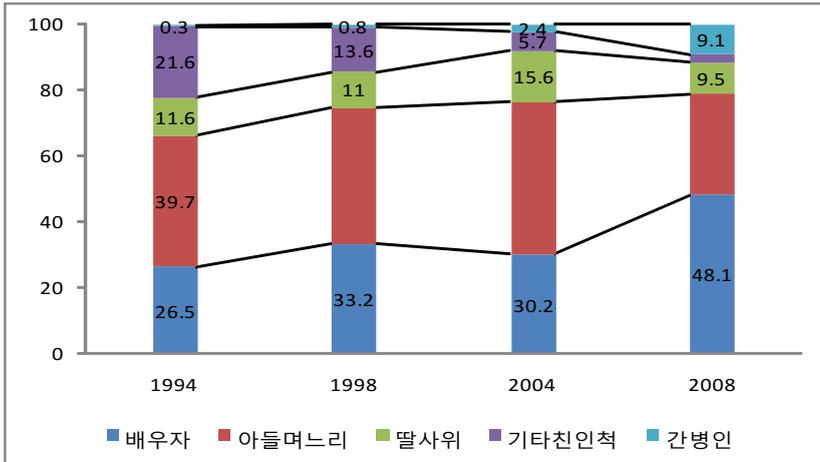
〈표 4-7〉 노인의 특성별 수발율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73.5	65.1	36.9	29.5
지역				
동부	73.9	67.2	37.9	32.4
읍·면부	73.0	62.2	34.8	24.4
성				
남자	64.2	70.6	39.3	42.0
여자	76.7	63.4	35.9	24.8
연령				
65~69세	61.4	46.3	20.6	26.2
70~74세	70.2	60.2	27.2	26.2
75~79세	79.5	72.6	35.3	27.4
80세 이상	86.6	89.2	59.0	35.5
출생년도				
1909년이하	84.2	96.4	85.7	50.0
1910년~1919년	82.9	85.5	72.5	48.7
1920년~1929년	65.8	61.1	39.0	31.8
1930년~1934년	64.6	44.7	25.6	27.5
1935년~1939년			22.0	27.2
교육수준				
무학	77.1	67.1	39.6	25.3
초등학교	57.6	55.2	72.7	31.8
중고등학교	53.1	74.6	30.9	35.2
전문대 이상	100.0	66.7	37.8	59.7
결혼상태				
유배우	69.1	63.8	33.8	25.2
무배우	75.7	65.9	38.8	33.8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49.1	35.3	13.7	15.4
노인부부가구	65.6	60.7	32.2	32.4
자녀동거가구	82.1	79.0	46.4	32.8
기타가구	75.0	66.7	58.9	43.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81.6	61.0	26.8	30.9
보통	68.1	61.8	27.0	27.9
나쁨	65.1	61.6	22.5	29.6
기능상태				
제한없음	0.0	-	3.0	4.3
IADL제한	76.6	33.3	50.9	16.7
ADL제한	72.4	67.0	96.9	61.1

노인의 수발은 대체적으로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

이 증가하며 아들·며느리에 의한 수발은 2008년으로 오면서 감소하였으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외부에 의한 수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2] 노인과 수발자간의 관계



특성별 수발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 1994년 조사에서는 동부의 경우 아들며느리, 딸 사위,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부는 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에 의한 수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998년은 동부의 경우 199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요양보호사 등의 외부 인력에 의한 수발이 1.4% 나타났다. 읍면부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이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동부의 경우 기타친인척에 의한 수발은 감소하고 배우자에 의한 수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부와 읍면부에서 모두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에 의한 수발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08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시기로 외부의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서 수발을 받은 비율이 동부는 9.2%, 읍면부는 8.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에 의한 수발은 높으며, 특히 배우자에 의한 수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동부와 읍면부 모두 나타났다. 또한 딸과 사위에 의한 수발비율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보다는 아들며느리에 의한 수발, 최근조사에는 여성노인의 경우 12.2%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이 높으며, 특히 1994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보다는 배우자에 의한 수발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1994년에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이 높고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에 와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무배우 노인의 경우 과거 아들며느리 또는 딸·사위,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수발을 받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8〉 노인과 수발자간의 관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사위	기타 친인척	요양보호사 간병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사위	기타 친인척	요양보호사 간병인
전체	26.5	39.7	11.6	21.6	0.3	33.2	41.4	11.0	13.6	0.8
지역										
동부	22.8	39.3	14.5	22.8	0.0	26.1	42.2	14.7	15.6	1.4
읍·면부	31.5	40.5	8.1	19.8	0.0	45.7	40.5	4.3	9.5	0.0
성										
남자	70.6	17.6	1.5	10.3	0.0	76.6	12.1	4.7	6.5	0.0
여자	10.2	48.1	15.5	25.7	0.5	12.8	55.3	13.7	16.8	1.3
연령										
65-69세	40.8	22.4	8.2	28.6	0.0	55.6	22.2	14.3	7.9	0.0
70-74세	36.8	40.4	5.3	15.8	1.8	44.4	25.6	13.3	15.6	1.1
75-79세	29.1	36.4	16.4	18.2	0.0	27.0	48.6	9.5	13.5	1.4
80세 이상	12.6	48.4	14.7	24.2	0.0	15.2	61.9	7.6	15.2	0.0
출생년도										
1909년이하	13.2	50.0	21.1	15.8	0.0	9.1	68.2	9.1	13.6	0.0
1910년~1919년	20.4	42.5	13.3	23.9	0.0	17.9	59.4	9.4	13.2	0.0
1920년~1929년	37.7	33.0	6.6	21.7	0.9	40.9	31.1	10.4	15.9	1.8
1930년~1934년	50.0	19.4	8.3	13.9	8.3	54.8	19.0	19.0	7.1	0.0
1935년~1939년	-	-	-	-	-	-	-	-	-	-
교육수준										
무학	22.8	44.1	11.4	21.3	0.5	20.0	51.4	12.7	15.5	0.5
초등학교	34.2	23.7	21.1	21.1	0.0	53.0	19.7	13.6	12.1	1.5
중고등학교	50.0	21.4	0.0	28.6	0.0	65.9	26.8	0.0	7.3	0.0
전문대 이상	100.0	0.0	0.0	0.0	0.0	80.0	20.0	0.0	0.0	0.0
결혼상태										
유배우	68.5	19.1	3.4	9.0	0.0	84.1	8.3	3.0	3.8	0.8
무배우	4.2	50.3	16.2	28.7	0.6	0.0	63.7	15.9	19.9	0.5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0.0	11.8	23.5	64.7	0.0	0.0	21.7	26.1	47.8	4.3
노인부부가구	83.7	4.1	2.0	10.2	0.0	93.8	1.3	1.3	2.5	1.3
자녀동거가구	14.3	53.7	14.9	16.6	0.6	15.7	59.7	13.0	11.6	0.0
기타가구	13.3	13.3	0.0	73.3	0.0	14.3	28.6	7.1	50.0	0.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20.8	50.0	4.2	25.0	-	21.4	60.7	10.7	7.1	0.0
보통	23.3	36.7	12.2	27.8	-	28.3	46.5	8.1	17.2	0.0
나쁨	35.3	25.8	16.1	22.6	-	40.4	30.5	12.8	15.6	0.7
기능상태										
IADL제한	0.0	50.0	0.0	50.0	0.0	25.0	75.0	0.0	0.0	0.0
ADL제한	26.7	39.6	11.8	21.6	0.4	33.2	41.2	11.2	13.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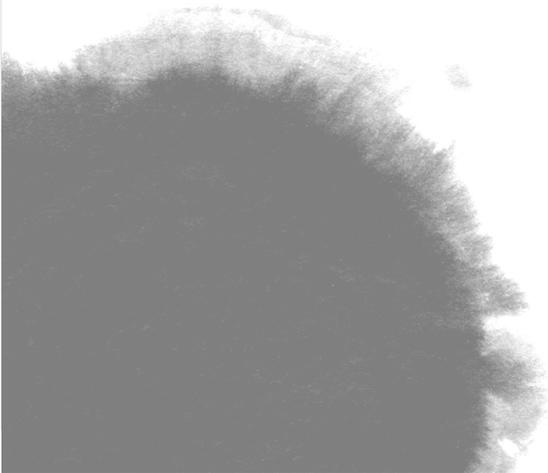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표 4-8〉 계속

(단위: %)

구분	2004년					2008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사위	기타 친인척	요양보호사 간병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사위	기타 친인척	요양보호사 간병인
전체	30.2	46.2	15.6	5.7	2.4	48.1	30.9	9.5	2.4	9.1
지역										
동부	30.5	43.1	17.3	6.4	2.7	45.2	31.8	11.2	2.6	9.2
읍·면부	28.7	54.3	11.6	3.9	1.6	54.8	28.9	5.7	1.9	8.7
성										
남자	71.3	22.5	3.1	0.0	3.1	83.0	8.9	3.4	0.3	4.3
여자	12.2	56.6	21.0	8.1	2.0	25.3	45.2	13.5	3.8	12.2
연령										
65-69세	48.2	28.6	12.5	7.1	3.6	74.8	14.1	4.9	1.2	4.9
70-74세	47.9	31.5	13.7	6.8	0.0	71.5	13.0	6.7	1.0	7.8
75-79세	30.6	50.6	16.5	0.0	2.4	43.5	32.2	9.0	1.7	13.6
80세 이상	18.6	53.8	16.7	7.6	3.3	24.8	48.1	13.8	4.0	9.2
출생년도										
1909년이하	0.0	66.7	0.0	16.7	16.7	0.0	100.0	0.0	0.0	0.0
1910년~1919년	9.2	63.0	15.1	10.1	2.5	7.9	73.7	6.6	5.3	6.6
1920년~1929년	33.9	44.3	17.8	1.7	2.3	29.7	42.3	15.0	3.3	9.7
1930년~1934년	44.3	32.9	14.3	7.1	1.4	54.6	23.2	8.1	1.6	12.4
1935년~1939년	46.4	32.1	12.5	7.1	1.8	68.9	15.3	7.7	1.0	7.1
교육수준										
무학	16.3	58.3	17.8	6.4	1.1	26.9	45.0	12.8	4.5	10.8
초등학교	37.5	62.5	0.0	0.0	0.0	60.3	25.3	6.8	0.3	7.2
중고등학교	48.2	28.1	13.2	5.3	5.3	70.1	12.9	6.1	1.4	9.5
전문대 이상	75.0	13.9	5.6	2.8	2.8	86.0	0.0	9.3	0.0	4.7
결혼상태										
유배우	81.0	8.2	6.3	0.6	3.8	0.5	62.1	17.3	5.5	14.6
무배우	0.0	69.1	20.0	9.1	1.9	81.6	8.9	4.1	0.2	5.2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0.0	53.6	14.3	21.4	10.7	1.1	27.5	12.1	8.8	50.5
노인부부가구	91.7	3.1	0.0	0.0	5.2	89.1	1.4	2.9	0.0	6.6
자녀동거가구	13.5	61.8	22.0	2.3	0.4	30.6	50.1	14.2	3.3	1.8
기타가구	9.5	45.2	9.5	31.0	4.8	8.7	69.2	14.4	2.9	4.8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18.2	54.5	18.2	4.5	4.5	37.2	46.5	9.3	0.0	7.0
보통	30.0	43.8	20.0	3.8	2.5	44.0	39.3	9.1	0.9	6.7
나쁨	45.8	28.8	16.9	5.9	2.5	52.2	22.5	10.6	3.6	11.0
기능상태										
IADL제한	26.3	52.5	13.6	7.1	0.58	44.3	36.1	9.1	2.6	7.8
ADL제한	33.0	40.7	17.7	4.8	3.8	49.8	29.4	9.9	2.1	8.8

# 05

## 노인의 경제상태 및 사회참여 변화





## 제5장 노인의 경제상태 및 사회참여 변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혜비율이 적은 현 노인층은 본인 또는 자녀 세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가족 구조의 변화와 경제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경제상태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근로활동을 포함하여 노후의 사회참여 행태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지난 14년간의 노인의 경제상태 특성과 사회참여의 변화 추이를 여러 특성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노후 수입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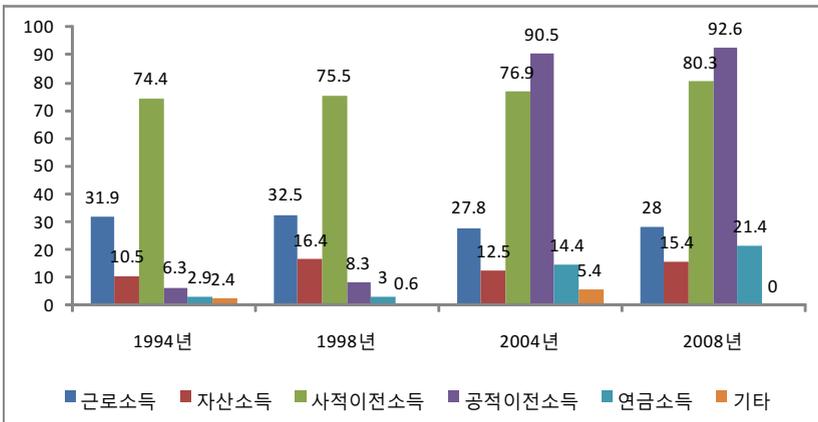
#### 1. 노후 수입원의 변화

노후의 생활은 여러 수입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로활동, 자산소득, 연금소득과 같이 본인과 배우자의 활동과 과거 축적된 자산을 활용하는 형태는 경제적 자립형 노후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1994년 31.9%에서 1998년 32.5%, 2004년 27.8%, 2008년 28.0%로 14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중은 줄었다. 자산을 통해 이윤을 보는 자산소득은 1994년 10.5%이며, 1998년 16.4%, 2004년 12.5%, 2008년 15.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금소득은 1994년 2.9%에서 2008년 21.4%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의 수입원 중 경제적 자립형 노후라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소득에 있어

지난 14년간 근로소득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을 수입원으로 갖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노후를 위해 중장년기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특성을 갖는 소득원으로서 점차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을 반영한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녀에 의한 이전으로 사적이전소득을 수입원으로 갖고 있는 비율은 1994년 74.4%에서 2008년 80.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자산소득이나 연금소득의 수입원을 갖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급여 등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의 7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이 노인에게 지급되었는데 특히 교통수당의 경우 65세 노인에게 모두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이를 통해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었다. 공적이전소득의 수입을 갖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1994년 6.3%에서 1998년 8.3%, 2004년 90.5%, 2008년 92.6%로 대부분의 노인은 1개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노인의 수입원 소지 비율의 변화



노인의 특성별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의 비율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소지 비율은 노인의 근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지역, 성,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비해 농어업의 비중이 높은 읍면부 지역에서의 근로소득 소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년도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최근 노인의 경우 동부의 근로소득 소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읍면부에서는 유사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1994년 이후 근로소득 소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남자노인의 경우 1994년 51.8%에서 2008년 41.6%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비율이 줄고 퇴직제도가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경향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75세 이후의 근로소득 소지율은 지난 14년간 큰 변화가 없게 나타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75세 미만의 전기 노인의 근로소득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출생년도에 따른 코호트에 따라 비교해 보면, 1930년 이후 출생한 집단의 경우 급격히 근로소득 소지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1930년 이전 출생한 집단의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율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20~1929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1994년도에 근로소득 소지율이 40.2%이며 1998년 32.1%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1930~1934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62.7%에서 47.3%로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1994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경우 고학력자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시장의 환경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서는 1994년 시기에는 무배우에 비해 유배우가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4년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2008년에는 유배우는 21.5%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무배우는 31.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 노인이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은 지난 14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994년 58.0%에서 2008년 32.5%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관적 경제상태에서는 1994년 경제상태가 안 좋을수록 근로소득 비율은 적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소지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인다(표 5-1 참조).

노인의 근로소득 소지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전기노인의 근로소득 소지율은 적고, 또한 동부지역에서의 근로소득 소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비근로라기 보다는 연령제한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고령자가 늘어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직까지 고령인력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

노인의 자산소득 소지율은 최근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노인은 읍면부에 비해 자산소득 소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동부와 읍면부의 자산소득 소지율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자산소득 소지율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과거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노인의 경우 자산의 명의를 남자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 보다는 남자노인의 자산소득 소지율은 높다고 보여진다(표 5-2 참조).

연령별로는 후기노인보다는 전기노인의 자산소득소지율이 높으며, 특히 80세를 전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소득 소지율은 높으며, 전문대 이상 교육수준에서는 1994년은 21.1%이었으나 2008년 30.6%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안정적 직장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자녀세대로의 상속이 예전에 비해 노년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이를 통한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자산소득은 감소한 반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자산소득

소지율은 지난 14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자녀동거기구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별로는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산소득 소지율은 낮아지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자산소득 소지율이 높으며, 그에 반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 자산소득 소지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자산소득을 소지한 노인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소득에 따라서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산소득 소지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자산소득 소지율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층에서의 자산소득에서의 빈부격차가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1〉 노인의 특성별 근로소득 수입원 변화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31.9	32.5	27.8	28.0
지역				
동부	22.4	22.2	22.6	18.7
읍·면부	44.1	49.9	38.7	45.7
성				
남자	51.8	47.5	43.8	41.6
여자	19.4	23.7	17.7	18.8
연령				
65~69세	46.7	46.1	39.0	37.8
70~74세	31.1	32.0	28.0	29.0
75~79세	16.4	22.2	15.7	21.9
80세 이상	5.3	10.4	8.2	9.5
출생년도				
1909년이하	6.9	3.8	33.3	0.0
1910년~1919년	12.5	13.0	1.9	2.6
1920년~1929년	40.2	32.1	15.1	11.9
1930년~1934년	62.7	47.3	28.9	23.2
1935년~1939년	-	-	39.0	31.4
교육수준				
무학	26.1	29.1	21.5	24.1
초등학교	40.8	36.9	47.1	32.0
중고등학교	44.0	35.8	32.7	29.5
전문대 이상	56.8	33.7	28.0	18.7
결혼상태				
유배우	51.5	48.2	33.8	21.5
무배우	13.9	17.1	20.1	31.5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27.6	35.5	25.6	29.4
노인부부가구	58.0	55.4	34.6	32.5
자녀동거가구	19.8	19.2	22.5	20.7
기타가구	37.3	23.7	27.0	21.3
주관적 경제상태				
좋은편	46.3	31.1	29.2	24.4
보통	42.0	32.5	30.1	31.1
나쁜편	44.2	34.9	25.8	25.3
기능상태				
제한없음	43.4	40.2	30.6	32.6
IADL제한	27.2	25.4	11.7	16.0
ADL제한	17.0	23.5	3.3	7.6

〈표 5-2〉 노인의 특성별 자산소득 소지율 변화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10.5	16.4	12.5	15.4
지역				
동부	11.7	18.6	13.6	15.8
읍·면부	8.9	12.5	10.0	14.7
성				
남자	14.6	20.3	21.6	22.8
여자	8.0	14.2	6.7	10.5
연령				
65~69세	12.5	18.8	14.2	15.9
70~74세	10.1	17.5	11.6	17.4
75~79세	10.2	15.9	12.0	15.7
80세 이상	4.7	8.3	9.5	10.5
출생년도				
1909년이하	3.4	3.8	0.0	0.0
1910년~1919년	8.6	9.2	12.8	4.1
1920년~1929년	11.5	17.6	11.0	11.2
1930년~1934년	13.4	19.4	11.6	16.8
1935년~1939년			14.4	16.7
교육수준				
무학	7.5	9.3	5.6	8.8
초등학교	14.4	21.1	23.5	15.1
중고등학교	19.3	29.6	13.0	21.4
전문대 이상	21.1	31.6	26.5	30.6
결혼상태				
유배우	15.5	22.5	15.0	11.5
무배우	5.9	10.5	9.3	17.6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15.2	17.2	13.3	16.0
노인부부가구	17.8	22.0	16.2	18.8
자녀동거가구	6.3	12.6	8.7	10.6
기타가구	4.5	19.1	10.1	9.1
주관적 경제상태				
좋은편	13.8	30.4	22.4	40.4
보통	13.6	19.7	16.6	20.9
나쁜편	9.5	11.7	7.1	6.7
기능상태				
제한없음	11.9	20.6	13.5	17.3
IADL제한	6.3	11.5	4.7	9.2
ADL제한	10.7	12.0	10.9	9.2

노인 중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비율은 1994년 74.4%였으나, 2008년에는 80.3%로 증가하였다. 노인의 특성별로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의 변화를 살펴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노인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많은 증가를 보였다. 1994년 72.9%가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86.7%로 나타나, 농어촌 노인의 경우 자녀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이 있는 비율은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의 비율이 높으며, 남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의 증가폭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94년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은 71.1%였으나, 2008년은 83.6%로 나타났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의 자녀 등으로부터 사적이전을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생년도에서도 보면 점차 후기 노인이 될수록 사적이전소득을 소지하는 비율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을 받는 비율은 증가하고,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은 감소하며, 1994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1994년에는 무배우가 유배우에 비해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8년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사적이전소득의 소지율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에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음으로 인해 동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은 경제적 독립성과는 무관하게 자녀와의 별거를 자녀와 노인세대에서 희망하면서 자녀와 별거하면서 즉, 노인독거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형태로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1994년과 1998년에는 경제상태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에는 큰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2004년부터는 소득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많은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년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소지율은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이 수립되면서 1994년에 비해 많은 노인이 공적이전소득을 갖게 되었다. 1994년과 1998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시기로 노인 중 공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매우 적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노인, 고연령, 저학력, 무배우, 독거노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보편적 급여인 교통수당이 도입되고, 경로연금 등이 도입되면서 2004년부터는 노인의 개별특성별 공적이전소득 소지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표 5-4 참조).

〈표 5-3〉 노인의 특성별 사적이전소득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74.4	75.5	76.9	80.3
지역				
동부	75.5	75.1	75.2	77.0
읍·면부	72.9	76.3	80.3	86.7
성				
남자	66.0	70.9	70.1	77.2
여자	79.6	78.2	81.1	82.4
연령				
65~69세	68.8	72.3	73.4	76.5
70~74세	77.0	77.1	77.2	81.0
75~79세	86.2	78.9	81.1	84.1
80세 이상	71.2	76.4	81.5	83.6
출생년도				
1909년이하	61.4	70.9	100.0	50.0
1910년~1919년	82.8	76.9	83.5	86.7
1920년~1929년	72.3	80.4	80.5	84.0
1930년~1934년	50.9	61.5	77.1	82.6
1935년~1939년	-	-	73.3	81.0
교육수준				
무학	77.3	77.3	78.4	84.6
초등학교	72.4	76.0	76.5	81.6
중고등학교	61.5	70.8	78.6	75.3
전문대 이상	62.2	64.3	69.7	68.2
결혼상태				
유배우	71.4	72.3	75.9	86.2
무배우	77.1	78.6	78.3	77.0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60.0	64.7	70.5	84.3
노인부부가구	62.5	70.1	75.3	76.2
자녀동거가구	84.5	83.2	82.9	84.1
기타가구	65.7	71.0	73.6	81.2
주관적 경제상태				
좋은편	66.2	81.2	70.8	80.0
보통	70.9	79.2	78.8	82.2
나쁜편	61.4	72.5	76.6	78.4
기능상태				
제한없음	72.8	73.4	76.2	80.0
IAD제한	79.9	83.1	82.9	83.4
ADL제한	73.7	75.5	85.3	78.0

〈표 5-4〉 노인의 특성별 공적이전소득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6.3	8.3	90.5	92.6
지역				
동부	5.2	8.4	90.6	91.3
읍·면부	7.9	7.9	90.1	95.2
성				
남자	3.4	6.7	90.8	92.2
여자	8.1	9.2	90.3	92.9
연령				
65~69세	2.6	6.5	77.9	85.8
70~74세	7.9	9.7	99.0	96.3
75~79세	7.1	9.4	98.7	97.7
80세 이상	13.0	8.6	98.9	96.9
출생년도				
1909년이하	14.0	11.5	100.0	100.0
1910년~1919년	8.9	8.1	99.1	92.3
1920년~1929년	4.8	9.4	98.8	97.3
1930년~1934년	1.6	5.9	98.9	97.9
1935년~1939년	-	-	76.3	95.9
교육수준				
무학	8.0	10.8	93.7	95.5
초등학교	4.3	6.7	94.4	92.8
중고등학교	0.0	3.8	88.8	88.8
전문대 이상	0.0	3.0	88.0	90.9
결혼상태				
유배우	2.9	5.7	87.9	93.7
무배우	9.4	10.7	93.8	92.1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22.7	20.5	93.6	94.5
노인부부가구	4.7	6.9	87.9	93.1
자녀동거가구	2.3	4.4	91.1	91.1
기타가구	13.2	9.2	91.1	90.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은편	0.6	2.0	91.5	91.3
보통	0.6	3.2	89.6	92.4
나쁜편	10.8	14.0	91.0	93.0
기능상태				
제한없음	3.5	5.5	89.6	91.6
IADL제한	10.5	11.4	95.9	96.8
ADL제한	8.3	11.5	95.7	95.2

노후소득보장 중 연금은 노년기 이전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형태이며, 타 소득보장에 비해 안정성이 보장된 형태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에 현 노인층은 국민연금에 의한 혜택을 받는 비율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현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도입시 연령으로 인하여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5년간의 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받는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국민연금 이외의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등의 노후 연금 수입원을 갖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금소득 소지율은 1994년과 1998년에는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지만, 2004년과 2008년도로 오면서 읍면부 지역 거주노인의 연금소득 소지율의 비율이 동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읍면부 거주노인 중 25.5%가 연금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실시된 농어촌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연금소득 소지율이 높으며, 최근 들어 더욱 남자노인의 연금소득 소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노인의 경우도 1994년에 비해 2008년에는 11.4%가 연금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기노인의 경우 연금소득 소지율이 높으며, 후기 노인의 경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 코호트에서 보면, 1930년 이후 출생한 노인의 경우 연금제도가 형성되는 시기에 중장년층을 보내면서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어 이들의 연금소득 소지율의 비율은 이전 출생년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금소득 소지율의 변화는 제도 도입시기와 그 당시의 노인의 연령에 따라 연금가입 자격이 주어졌는가에 따라 소지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경제 상태가 좋은 경우 연금소득 소지율의 비율이 높으며, 이는 연금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의 소득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공

적이전소득과 자산소득, 연금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원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5〉 노인의 특성별 연금소득 비율의 변화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2.9	3.0	14.4	21.4
지역				
동부	3.4	4.2	12.6	19.3
읍·면부	2.3	0.9	18.1	25.5
성				
남자	4.9	5.3	26.9	36.3
여자	1.7	1.7	6.5	11.4
연령				
65~69세	4.6	4.0	20.8	34.8
70~74세	3.0	4.8	13.6	19.0
75~79세	0.4	0.2	9.0	11.3
80세 이상	1.2	0.3	2.6	5.1
출생년도				
1909년이하	3.4	1.9	0.0	0.0
1910년~1919년	0.3	0.3	4.6	4.6
1920년~1929년	3.9	3.2	6.8	5.2
1930년~1934년	6.4	4.2	14.1	13.3
1935년~1939년			21.3	20.5
교육수준				
무학	1.3	0.6	7.8	10.1
초등학교	2.8	2.9	17.6	21.6
중고등학교	13.8	7.2	13.2	30.2
전문대 이상	10.5	21.4	31.8	47.3
결혼상태				
유배우	4.9	5.2	18.7	13.6
무배우	1.1	0.8	8.7	25.7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2.2	0.9	11.8	16.2
노인부부가구	6.3	4.4	19.7	26.3
자녀동거가구	1.1	3.0	11.6	17.9
기타가구	7.4	3.1	8.4	16.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은편	6.3	5.2	21.6	35.0
보통	5.4	4.7	17.4	26.5
나쁜편	2.0	1.3	10.3	14.5
기능상태				
제한없음	4.4	4.1	15.4	24.7
IADL제한	1.3	1.1	7.0	9.8
ADL제한	1.6	2.2	10.9	11.2

## 2. 노인의 주요 수입원의 변화

노인의 소득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노인의 소득원 중 주요 수입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요 수입원이란 여러 수입원 중 가장 금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1994년 노인 중 53.2%는 사적이전소득이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노인은 27.7%였다. 그에 비해 자산소득은 6.6%, 공적이전소득은 4.7%, 연금소득은 2.7%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노인의 36.8%가 사적이전소득이 주요 수입원이었으나, 공적이전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비율이 29.1%로 급증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비율은 21.0%로 나타났다. 특히 괄목한 만한 것은 연금소득이 주요수입원인 비율이 6.2%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주요 수입원이 사적이전소득인 노인은 55.5%로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은 22.5%, 공적이전소득은 10.9%로 나타났다. 즉, 2008년의 조사결과는 1994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아직까지 노인 중에서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 소득은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소득원임을 볼 수 있다.

〈표 5-6〉 노인의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명)

수입원별 유무	1994년	2004년	2008년
근로소득	27.7	21.0	22.5
자산소득	6.6	6.6	7.9
사적이전소득	53.2	36.8	55.5
공적이전소득	4.7	29.1	10.9
연금소득	2.7	6.2	3.3
기타	5.1	0.2	-

노인의 거주 지역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동부지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읍면부는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부지역 거주 노인은 읍면부 거주노인에 비해 자산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적이전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노인의 경우 동부지역 거주 노인 비율인 1994년 60.7%에 달하고 있으나, 2004년 38.8%로 감소, 그러나 2008년 58.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읍면부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주 수입원인 비율은 1994년 43.5%이었으나, 2008년 50.8%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비율은 동부지역이 읍면부 지역에 비해 높으며, 특히 연도별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금소득이 주 수입원인 비율은 읍면부 지역에 비해 동부 지역 거주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표 5-7〉 노인의 지역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동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근로소득	19.3	38.6	17.4	28.6	15.1	36.6
자산소득	7.6	5.2	8.3	3.1	9.8	4.2
사적이전소득	60.7	43.5	38.8	32.5	58.0	50.8
공적이전소득	3.8	5.9	28.2	31.2	12.9	6.9
연금소득	3.1	2.2	7.0	4.5	4.2	1.5
기타	5.6	4.7	0.3	0.1	-	-

노인의 성별에 따른 주 수입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1994년에 비해 2008년에 근로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감소를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도 감소를 하였으나 그 폭은 남성에 비해 크지는 않다. 자산소득의 경우 남성은 다소 증가, 여성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의 성별 주 수입원의 변화는 1994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은 2008년 8.3%이며, 여성의 경우 12.6%로 증가하여, 1994년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급여수준의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경우 1994년에는 남성의 4.3%, 여성의 1.7%이었으나, 2008년은 5.6%와 1.6%로 나타나, 여성은 큰 변화가 없으나, 남성의 경우 다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5-8〉 노인의 성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근로소득	44.8	17.0	35.9	11.5	36.4	13.0
자산소득	8.5	5.3	11.0	3.9	11.4	5.6
사적이전소득	36.5	63.7	21.9	46.2	38.3	67.1
공적이전소득	1.9	6.4	18.9	35.7	8.3	12.6
연금소득	4.3	1.7	11.9	2.6	5.6	1.6
기타	4.0	5.9	0.4	0.2	-	-

노인의 연령별 주요 수입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4년의 65~69세 연령에서는 39.0%가 근로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였으나, 2004년 33.2%, 2008년 32.6%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70~74세에서는 27.8%, 19.7%, 22.3%로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75~79세에서는 15.5%, 7.6%, 16.2%로 년도에 따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70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퇴직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인의 주요 근로활동이 농어업의 1차산업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고용되어 퇴직하는 형태의 근로형태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그에 비해 자산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모든 조사년도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994년

과 2008년을 비교해보면 동일 연령대의 자산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년도에 따른 연령별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것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1994년에 비해 2008년에는 75세 미만의 전기 노인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1994년에 비해 2008년에는 동일 연령층에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노인의 연령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65-69	70-74	75-79	80이상	65-69	70-74	75-79	80이상	65-69	70-74	75-79	80이상
근로소득	39.0	27.8	15.5	5.9	33.2	19.7	7.6	3.5	32.6	22.3	16.2	6.1
자산소득	8.1	6.4	4.9	4.1	7.8	6.8	4.3	6.3	7.9	9.4	7.3	5.8
사적이전소득	43.4	54.2	68.1	63.5	34.6	34.1	40.7	44.4	46.0	54.1	62.2	72.6
공적이전소득	1.9	5.9	4.9	10.6	17.0	32.5	40.9	43.3	9.2	11.3	11.0	14.0
연금소득	3.9	3.0	0.4	1.8	7.4	6.6	5.5	2.2	4.3	2.8	3.3	1.5
기타	3.7	2.7	6.2	14.1	0.0	0.1	0.8	0.3	-	-	-	-

노인의 교육수준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4년도의 무학노인과 초등학력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58.6%와 45.2%로 가장 높았으며, 중고등과 대학학력에서는 근로소득을 주요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34.9%와 42.1%로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학력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4년 노인조사에서는 변화를 가져온다. 무학과 초등 학력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며, 중고등과 대학 학력에서는 근로소득보다는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는 무학과 초등학력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높으며, 중고등과 대학 학력 집단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아져, 1994년의 고학력자들의 경우 근로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경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994년에 비교하여 2004년과 2008년으로 올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연금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 또한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1994년에는 고학력 집단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고학력 집단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표 5-10〉 노인의 교육수준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무학	초등	중고	대학	무학	초등	중고	대학	무학	초등	중고	대학
근로소득	23.2	36.3	34.9	42.1	13.5	20.0	26.3	23.0	17.6	26.3	25.6	14.4
자산소득	4.7	9.8	8.3	15.8	2.4	13.3	7.1	15.0	3.3	7.3	12.3	19.6
사적이전소득	58.6	45.2	38.5	36.8	39.2	13.3	37.3	31.2	66.3	54.2	46.1	40.5
공적이전소득	6.1	2.8	0.0	0.0	42.0	46.7	24.7	12.2	11.6	10.5	11.1	8.3
연금소득	1.2	3.1	12.8	5.3	2.6	6.7	4.4	18.3	1.2	1.7	4.8	17.2
기타	6.1	2.8	5.5	0.0	0.3	0.0	0.2	0.2	-	-	-	-

노인의 결혼상태별 주요 수입원은 1994년 유배우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42.8%이며, 사적이전소득이 39.5%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에 반해 무배우자의 경우는 사적이전 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6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4

년에는 유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27.3%로 199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24.0%로 증가하였다. 또한 연금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 또한 8.2%로 증가하였다 무배우자의 경우도 근로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199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배우자의 감소율과 비교한다면 매우 적은 규모로 감소하였다. 또한 유배우자와 같이 공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노인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유배우자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08년 조사에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69.0%로 높으며, 이는 과거 1994년과 2004년 조사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율이다. 그에 비해 무배우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은 줄고 근로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26.6%로 높아졌다. 또한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1994년과 비교하면 유배우의 경우 감소하고, 무배우의 경우 증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11〉 노인의 결혼상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유배우	무배우
근로소득	42.8	13.9	27.3	12.8	15.1	26.6
자산소득	9.1	4.2	8.2	4.6	5.2	9.4
사적이전소득	39.5	65.8	32.3	42.8	69.0	48.0
공적이전소득	1.4	7.7	24.0	35.8	9.2	11.8
연금소득	4.4	1.1	8.2	3.6	1.5	4.2
기타	2.7	7.3	0.1	0.5	-	-

노인의 가구형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4년 조사에서는 노인독거가구는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41.9%이며, 근로소득 24.2%, 자산소득이 11.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비율이 51.0%로 높고, 독거노인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27.0%로 낮았다. 또한 노인독거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은것에 비해 노인부부가구는 그렇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69.4%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 연금소득과 같이 노인의 자립적인 소득원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낮았다. 즉, 1994년에는 자녀동거가구,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의 순서로 사적이전소득 중심의 의존적 소득원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에는 1994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에 비해 자녀동거가구는 오히려 사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금소득의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4년에 비해 2004년에는 노인독거와 노인부부의 경우 자립적 소득원으로부터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과 같이 비자립적 소득원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지율이 높아졌다.

2008년에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높으며, 근로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자산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12〉 노인의 가구형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가구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가구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가구
근로소득	24.2	51.0	17.4	26.5	15.5	26.8	18.4	21.1	20.5	27.7	16.5	15.8
자산소득	11.3	10.6	3.6	4.4	6.8	8.8	4.9	4.1	6.7	9.7	6.2	5.2
사적이전소득	41.9	27.0	69.4	47.1	41.3	32.3	39.3	32.0	61.1	45.4	66.8	63.6
공적이전소득	18.3	2.5	1.7	11.8	31.6	23.1	32.1	38.4	9.9	12.6	8.5	12.2
연금소득	2.2	6.3	0.9	4.4	4.8	8.8	4.8	4.1	1.7	4.6	2.0	3.2
기타	2.2	2.7	7.0	5.9	0.2	0.1	0.5	0.0	-	-	-	-

노인의 주관적 경제만족도별로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면, 1994년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사적이전 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51.1%였고, 근로소득은 34.8%, 자산소득 8.4%, 연금소득 4.4%로 나타났다.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다소 낮으며, 근로소득 또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은 10.3%로 높게 나타났다.

2004년에도 주관적 경제만족도별 주요 수입원의 경향은 1994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 연금소득과 자산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갖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또한 근로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것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과 비교할 때 경제적 상태가 ‘좋다’라는 집단에서는 자산소득이나 연금소득과 같이 자립적인 소득원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경제적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1994년과 2004년에는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8년에는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는 명확히 나타났다.

〈표 5-13〉 노인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좋은편	보통	나쁜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좋은편	보통	나쁜편
근로소득	34.8	28.4	27.8	25.2	23.0	18.4	18.0	25.6	20.0
자산소득	8.4	7.4	5.5	13.9	8.9	3.3	25.9	10.3	3.2
사적이전소득	51.1	57.1	48.6	33.5	40.3	34.9	40.3	51.8	61.1
공적이전소득	0.9	0.8	10.3	13.1	20.5	39.4	8.4	8.5	13.6
연금소득	4.4	3.7	1.1	13.6	7.2	3.7	7.4	3.9	2.1
기타	0.4	2.5	6.7	0.6	0.1	0.3	-	-	-

노인의 기능상태는 노인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기능상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는 연령별 변화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1994년에는 기능에 제한이 없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높으며,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비교적 건강한 초기 노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08년에는 기능에 제한이 없을지라도 1994년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급격히 근로소득은 감소, 공적이전소득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5-14〉 노인의 기능상태별 주요 수입원의 변화

(단위: %)

주요수입원	1994년			2004년			2008년		
	제한 없음	수단적능 력제한	일상능력 제한	제한 없음	수단적능 력제한	일상능력 제한	제한 없음	수단적능 력제한	일상능력 제한
근로소득	38.3	21.8	15.1	23.6	4.6	2.2	26.6	11.3	5.3
자산소득	7.6	2.9	6.9	7.1	2.3	7.8	8.9	4.3	4.9
사적이전소득	45.2	63.2	59.9	36.8	36.6	36.7	51.4	69.6	68.5
공적이전소득	2.6	7.1	6.4	25.8	52.5	45.6	9.4	13.8	18.6
연금소득	3.8	2.1	1.6	6.4	3.6	7.8	3.7	1.0	2.7
기타	2.5	2.9	10.2	0.2	0.3	0.0	-	-	-

### 3.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의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경제상태는 큰 변화는 없으나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는 1994년 2.7점(5점만점)으로 나타나지만 1998년과 2004년에는 2.4점으로 다소 낮아지며 읍면부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4년에는 읍면부에 비해 동부가, 1998년에는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0.1점 높게 나타났지만 2004년에는 동부와 읍면부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차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자노인에 비해 남자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또한 1994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소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 주관적 경제상태에서는 동일한 출생코호트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경향이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15〉 노인의 특성별 동년배 비교 경제상태의 변화(5점 만점)<sup>1)</sup>

구분	(단위: 명, %)		
	1994년	1998년	2004년
전체	2.7	2.4	2.4
지역			
동부	2.7	2.4	2.4
읍·면부	2.6	2.5	2.4
성			
남자	2.7	2.6	2.5
여자	2.6	2.3	2.3
연령			
65~69세	2.6	2.4	2.5
70~74세	2.7	2.4	2.4
75~79세	2.7	2.5	2.4
80세 이상	2.5	2.4	2.3
출생년도			
1909년이하	2.5	2.3	2.4
1910년~1919년	2.7	2.5	2.6
1920년~1929년	2.6	2.4	2.3
1930년~1934년	2.7	2.4	2.4
1935년~1939년			2.5
교육수준			
무학	2.5	2.3	2.2
초등학교	2.8	2.4	2.2
중고등학교	3.0	2.7	2.5
전문대 이상	3.4	3.1	2.8
결혼상태			
유배우	2.7	2.5	2.5
무배우	2.6	2.3	2.3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2.2	2.1	2.1
노인부부가구	2.7	2.5	2.5
자녀동거가구	2.8	2.5	2.5
기타가구	2.4	2.1	2.2
기능상태			
제한없음	2.8	2.5	2.5
IADL 제한	2.5	2.3	2.1
ADL 제한	2.4	2.3	2.2

주: 1) 매우 나쁘다 1점, 나쁘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임.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는 높으며 년도별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유배우가 무배우에 비해 주관적 경제상태의 점수가 높았으며 최근에도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

에서는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서는 기능에 제한이 없을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노인의 사회참여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는 근로, 사교, 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동,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노년기에도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 노후의 주요 요소로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에 계속적인 사회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건강과 성공적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제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을 사회에서 의미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 1. 근로활동

노년기의 근로활동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노인세대에게는 근로활동은 노후의 여전히 주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 14년간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는 노인 인력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실제적으로 근로활동 참여노인의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1994년 17.7%의 참여율을 보이고 1998년 17.1%, 2004년 20.0%, 2008년은 17.3%로 나타나 동부지역의 근로활동 참여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농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부의 경우는 1994년 42.4%의 참여율을 보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는 54.3%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근로가 가능한 읍면부의 경우 근로 활동을 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의 경우 대부분 취업을 바탕으로 근로를 하는 형태로서 본인의 근로 희망보다는 외부의 산업구조와 사업장의 영향으로 근로참여율이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1994년 46.0%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38.5%의 근로활동 참여율을 보인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1994년 17.4%였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24.3%로 향상되었다. 이는 과거 남성 중심의 근로활동에서 최근 들어 여성노인의 경우도 근로활동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65~69세의 근로활동 참여율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0세 이후 연령군에서는 근로활동 참가율의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중 10.1%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 근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1910~1919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1994년 근로활동 참여율이 10.7%였으나 2008년 4.1%로 감소하였고, 1920~1929년 출생코호트에서는 근로활동율이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초기노인 집단에서의 근로활동 참여율은 후기 노인집단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1994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활동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은 교육수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고학력 집단의 근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활동 참여율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집단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근로활동 참여율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들 고학력 집단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 직업을 갖고 퇴직제도에 의해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 소득원이 있음으로 인해 노후의 근로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16〉 노인의 특성별 근로활동 참여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28.5	29.0	30.8	30.0
지역				
동부	17.7	17.1	20.0	17.3
읍·면부	42.4	49.1	47.2	54.3
성				
남자	46.0	39.8	39.5	38.5
여자	17.4	22.6	22.1	24.3
연령				
65~69세	41.0	40.2	40.4	39.9
70~74세	29.2	28.6	30.9	32.0
75~79세	13.3	22.7	18.8	23.6
80세 이상	4.1	8.3	8.5	10.1
출생년도				
1909년 이전	3.4	1.9	0.0	0.0
1910년~1919년	10.7	11.7	1.9	4.1
1920년~1929년	36.2	29.3	17.4	12.6
1930년~1934년	53.1	41.0	31.9	24.9
1935년~1940년	-	-	40.4	34.8
교육수준				
무학	24.1	27.8	25.3	27.3
초등학교	35.3	31.1	36.0	35.6
중고등학교	36.0	28.3	32.8	28.1
전문대 이상	51.4	30.6	25.9	17.8
결혼상태				
유배우	42.4	39.1	37.4	19.4
무배우	15.7	19.1	18.4	35.8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29.0	34.7	24.4	25.0
노인부부가구	46.9	44.3	39.7	38.1
자녀동거가구	18.8	19.0	22.3	21.0
기타가구	32.4	20.6	23.0	23.9
주관적경제상태				
좋은편	34.6	28.5	32.1	24.4
보통	28.4	35.7	35.0	35.7
나쁜편	31.3	24.4	27.2	28.5
기능상태				
제한없음	40.0	37.3	33.6	35.0
IADL 제한	28.6	24.5	12.3	18.1
ADL 제한	10.9	17.9	1.8	6.4

결혼형태에서는 1994년에는 무배우에 비해 유배우가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이와 같은 경향은 2004년까지 유지되어졌다. 그러나 2008년에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가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이 무배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나 남성노인의 낮아지는 근로활동 참여율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배우의 전기 노인 중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인의 경우 근로활동 참여율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의 근로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은 1994년에서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노인부부가구의 근로활동 참여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동거가구의 참여율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더라도 경제적인 자립을 필요로 하여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주관적 경제상태별 근로활동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 상태에서는 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근로활동 참여율이 높지만,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근로활동 참여하는 노인의 근로직종에는 변화를 가져왔다.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 중 고위임직원·관리자·전문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994년에 비해 2008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단순노무직은 20.5%에서 26.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은 농어업과 같이 계속 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있을 경우 연령이 무관하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연령 등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직업을 구할 때 저기술로 인하여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서비스 근로자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청장년층의 실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시장에서 노인인력 활용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7〉 노인의 근로직종의 변화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고위임직원 관리자	-	2.0	1.8	2.7
전문가	2.9	1.9	1.2	1.7
기술공 및 준전문가	0.4	1.1	1.1	0.9
사무직원	3.3	1.2	0.6	4.8
서비스 근로자	12.3	8.8	8.7	6.6
농어업	56.6	60.4	54.1	51.2
기능원	2.7	2.7	1.9	2.8
조립원	0.7	0.4	2.7	3.1
단순노무직	20.5	21.5	27.8	26.2
기타	0.7	-	-	-

조사년도별 노인의 종사직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고위임원·관리자·전문가를 전문직으로,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근로자, 기능원 및 조립원을 기술사무직으로, 그리고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의 4가지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특성별 전문직, 기술사무직, 농어업, 단순노무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전문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술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읍면부의 경우는 종사직종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농업은 다소 감소하고 동부와 같이 단순노무직의 종사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의 경우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은 다소 증가하고, 농업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자노인의 종사직종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전문직 종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초기노인의 경우 전문직 종사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단순노무직의 증가를 보였다. 그에 반해 농업이나 기술사무직의 경우 종사비율이 감소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1994년에 비해 2008년도로 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 종사직종의 변화는 농업과 같이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은 참여율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퇴직제도나 연령제한 등으

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직종에 경우는 연령이 후기로 갈수록 참여율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표 5-18〉 노인의 특성별 종사직종의 변화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전문직	기술사무	농업	단순 노무	전문직	기술사 무	농업	단순 노무
전체	2.9	20.7	56.9	19.5	3.8	14.2	60.5	21.5
지역								
동부	7.4	45.6	8.8	38.2	9.4	30.7	21.7	38.2
읍·면부	0.4	5.1	82.2	12.3	0.5	4.4	83.5	11.6
성								
남자	4.5	23.9	55.1	16.5	6.3	16.1	62.5	15.0
여자	0.0	12.3	58.9	28.8	1.2	12.1	58.3	28.4
연령								
65~69세	2.1	20.2	54.5	23.2	5.0	16.5	55.4	23.1
70~74세	3.4	21.8	58.0	16.8	1.5	15.2	65.5	17.8
75~79세	6.7	3.3	73.3	16.7	4.1	6.2	67.0	22.7
80세 이상	0.0	14.3	42.9	42.9	6.7	6.7	66.7	20.0
출생년도								
1909년이하	0.0	0.0	100.0	0.0	0.0	0.0	100.0	0.0
1910년~1919년	5.6	5.6	63.9	25.0	4.3	6.5	69.6	19.6
1920년~1929년	2.8	20.7	55.5	21.0	2.9	13.9	62.6	20.6
1930년~1934년	2.7	22.2	57.3	17.8	5.3	15.9	55.7	23.1
1935년~1939년	-	-	-	-	-	-	-	-
교육수준								
무학	0.9	6.5	69.4	23.1	0.6	8.0	68.7	22.7
초등학교	0.0	24.3	53.0	22.6	1.8	15.2	61.3	21.7
중고등학교	0.0	57.5	27.5	15.0	5.5	33.0	40.7	20.9
전문대 이상	47.4	52.6	0.0	0.0	51.7	20.7	17.2	10.3
결혼상태								
유배우	3.9	20.1	61.6	14.3	3.9	13.8	66.7	15.6
무배우	0.0	17.9	43.8	38.4	3.5	15.2	48.3	33.0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1.8	23.6	41.8	32.7	6.1	20.4	39.5	34.0
노인부부가구	4.0	18.5	67.1	10.4	2.7	11.0	74.0	12.3
자녀동거가구	2.8	21.8	50.7	24.6	2.8	13.8	58.7	24.8
기타가구	0.0	0.0	40.9	59.1	7.7	15.4	46.2	30.8

〈표 5-18〉 계속

구분	2004년				2008년			
	전문직	기술사무	농업	단순노무	전문직	기술사무	농업	단순노무
전체	3.0	15.1	54.1	27.8	4.7	18.2	51.0	26.1
지역								
동부	4.9	23.4	30.1	41.6	9.1	31.8	18.4	40.6
읍·면부	1.2	7.6	75.7	15.5	0.9	6.6	78.7	13.8
성								
남자	5.4	16.7	55.0	22.8	6.4	21.2	48.7	23.6
여자	0.2	13.2	52.9	33.6	2.5	14.4	53.8	29.2
연령								
65~69세	3.0	19.6	49.0	28.4	4.8	15.1	52.9	27.2
70~74세	3.4	11.0	55.9	29.7	2.4	8.9	66.8	21.8
75~79세	0.9	8.3	66.7	24.1	2.0	9.2	69.2	19.6
80세 이상	4.4	6.7	68.9	20.0	1.1	5.7	71.3	21.8
출생년도								
1909년이하	-	-	-	-	-	-	-	-
1910년~1919년	0.0	0.0	100.0	0.0	0.0	0.0	88.9	11.1
1920년~1929년	1.8	8.5	65.2	24.4	2.2	6.1	67.5	24.2
1930년~1934년	3.9	11.1	56.4	28.7	1.7	9.2	70.4	18.7
1935년~1939년	2.8	20.0	48.3	29.0	2.7	10.1	64.1	23.1
교육수준								
무학	0.0	8.9	61.0	30.1	0.6	6.8	65.2	27.4
초등학교	0.0	11.1	66.7	22.2	1.7	13.2	59.0	26.0
중고등학교	1.5	15.9	54.2	28.5	4.7	33.1	34.1	28.0
전문대 이상	15.0	28.3	36.2	20.5	47.0	26.9	14.6	11.6
결혼상태								
유배우	3.6	13.3	59.7	23.4	3.0	17.3	44.7	35.0
무배우	1.8	19.2	40.2	38.7	5.1	18.4	52.6	23.9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0.6	15.7	38.6	45.2	2.5	17.7	50.8	29.0
노인부부가구	3.1	12.3	64.3	20.3	4.5	16.9	57.3	21.3
자녀동거가구	4.2	19.1	49.8	26.9	6.3	23.5	35.2	35.1
기타가구	4.3	14.9	36.	44.7	4.9	10.8	53.1	31.1

교육수준에서는 1994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이나 기술사 무직 종사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8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새로운 경향은 200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문대 이상 학력자 중 11.6%

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력자의 28.0%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학력 퇴직자가 재취업을 할 경우 직종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전 직장에서 퇴직이후 단순노무직으로 이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상태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유배우자에 비해 무배우자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2008년에는 유배우자에서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부부가구에서의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매우 제한이 있으므로 인하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노인이 근로를 하는 이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에 의해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인 이유가 89.6%로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의 근로활동은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건강유지, 사회와의 접촉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 노인층의 경우 대부분 근로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표 5-19〉 노인의 근로이유의 변화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일하는 것이 좋아서	8.8	8.3	6.5	-
돈이 필요해서	70.7	66.6	69.9	89.6
건강유지를 위해서	7.1	7.3	9.6	5.9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0.8	0.7	4.9	0.5
시간을 보내기 위해	6.5	5.9	2.6	3.7
스스로 능력 인정	3.7	4.2	0.2	-
사회적 지위나 명예	-	0.2	5.6	-
일손이 모자라서	2.4	6.9	0.6	-
기타	-	-	-	0.3

근로활동의 이유를 경제적 필요에 의한 생계형과 기타 이유로 구분하여 노인의 특성별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별로는 1994년

동부지역의 45.4%와 읍면부 지역의 64.0%는 경제적 이유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동부지역의 86.9%, 읍면부 지역의 91.1%가 경제적 이유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지역 근로활동 참여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근로참여의 비율이 매우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그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94년도의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이 경제적 이유로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인 47.9%와 9.4%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87.5%와 78.9%로 증가한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80세 이후에 근로를 하는 노인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조사년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1994년의 저학력자와 고학력자간의 경제적 이유로 근로하는 비율의 차이는 2008년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는 고학력자라도 경제적 이유로 근로를 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고학력자의 근로직종에서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증가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결혼상태에서는 과거에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일을 하는 비율이 무배우에 비해서 높았으나 최근 조사결과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형태에서도 1994년 조사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그 숫자가 낮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가구형태별 근로활동의 이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즉, 노년기의 근로활동은 근로를 통한 사회활동이나 사회참여 활성화의 측면보다는 노인 개개인에게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노년기의 근로를 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점차 가구형태가 노인독거, 노인부부가구로 변화되고, 가족내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이 약화되고 사회적으로도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인은 스스로 노후의 경제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표 5-20〉 노인의 특성별 근로이유의 변화: 생계형의 비율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56.9	66.5	69.9	89.5
지역				
동부	45.4	66.3	71.1	86.9
읍·면부	64.0	66.7	68.9	91.1
성				
남자	58.1	63.0	66.7	88.9
여자	55.1	70.2	73.5	90.2
연령				
65~69세	68.0	71.0	73.7	91.4
70~74세	57.9	61.1	67.7	89.1
75~79세	47.9	62.8	65.4	87.5
80세 이상	9.4	60.0	51.2	78.9
출생년도				
1909년이하	7.7	0.0	-	-
1910년~1919년	35.5	59.5	33.3	37.5
1920년~1929년	64.7	64.9	61.3	82.8
1930년~1934년	70.5	70.1	69.0	88.3
1935년~1939년	-	-	73.8	89.3
교육수준 <sup>1)</sup>				
무학	58.1	73.7	75.9	90.5
초등학교	64.1	67.3	50.0	92.4
중고등학교	39.5	53.9	72.7	86.0
전문대 이상	26.3	19.4	46.4	68.0
결혼상태				
유배우	61.0	65.3	69.2	86.8
무배우	49.1	69.4	71.7	90.3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78.2	76.4	75.6	91.0
노인부부가구	62.2	72.3	69.4	90.5
자녀동거가구	44.3	51.9	65.9	85.5
기타가구	75.0	70.8	78.7	89.0
기능상태				
제한없음	65.5	66.4	70.0	89.9
IADL 제한	61.4	74.7	69.6	85.5
ADL 제한	33.3	61.8	66.7	91.0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계속 근로 희망비율을 살펴보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1994년과 1998년에는 동부지역 거주노인이 읍면부에 비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지역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으나, 성별 차이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 근로 희망비율은 감소하였으며 75세 미만 전기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로 근로희망비율을 살펴보면 동일 출생코호트에서 조사시기별로 근로희망비율은 감소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지고 있더라도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남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1994년에 비해 2008년에는 전문대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계속 근로 희망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결혼상태와 가구형태에서는 무배우자의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자녀동거가구에서도 크게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근로활동자의 계속 근로 희망율은 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는데 그 비율은 최근에 와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근로활동의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가 높고 그 비율은 계속적으로 더욱 증가를 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연령이 높을지라도, 그리고 기능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근로를 통해 노후 소득을 유지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노후 근로활동은 생산적 노후를 보내는 이상적 모델로서 우리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후에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근로를 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노인에게 허용되는 근로 직종은 단순직종 등의 3D 직종에 국한되고 있어 노후의 근로는 성공적 노후나 생산적 노후와 같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기능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생계를 위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5-21〉 노인의 특성별 계속 근로 희망비율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72.8	79.3	72.4	90.1
지역				
동부	83.9	86.2	73.3	90.6
읍·면부	66.9	75.1	71.8	89.8
성				
남자	78.6	85.1	82.0	92.0
여자	63.0	73.4	62.0	88.1
연령				
65~69세	76.7	82.2	76.0	92.3
70~74세	68.9	76.9	69.6	90.1
75~79세	56.7	75.0	68.6	85.7
80세 이상	71.4	70.4	60.5	81.1
출생년도				
1909년이하	100.0	100.0	-	-
1910년~1919년	58.3	72.7	33.3	88.9
1920년~1929년	74.1	76.0	66.5	81.9
1930년~1934년	81.3	85.1	70.0	86.4
1935년~1939년			76.3	90.1
교육수준				
무학	66.0	74.3	62.3	85.5
초등학교	78.3	80.5	25.0	91.6
중고등학교	94.9	91.0	76.0	93.4
전문대 이상	68.4	96.7	87.2	91.4
결혼상태				
유배우	77.6	81.6	74.2	87.1
무배우	60.7	74.8	68.5	91.0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64.8	76.0	64.6	86.1
노인부부가구	75.0	79.6	71.4	90.5
자녀동거가구	74.5	81.8	76.2	93.0
기타가구	68.2	74.1	85.2	86.9
기능상태				
제한없음	79.4	85.2	72.6	90.9
IADL 제한	53.7	72.9	67.4	84.0
ADL 제한	62.5	63.6	100.0	79.1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994년에는 동부와 읍면부 모두 9.2%와 5.4%의 낮은 희망율을 나타냈지만, 가장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부는 35.3%, 읍면부는 21.6%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여성에 비해 높은 근로희망율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특히 2008년 조사에 의하면 비근로 남성노인의 43.6%는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전기 노인일수록 근로 희망율이 높으며, 80세 이상일지라도 희망율은 11.6%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에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율은 높으며, 특히 2008년도 조사에서는 중고등, 전문대 이상자에서의 절반가량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1994년 조사에서는 유배우자 중 비취업자의 근로희망율이 높았으나, 2008년에는 무배우자의 근로희망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무배우자의 경우 스스로 노후 소득을 위해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과거 자녀 동거가구에서의 취업희망율은 7.6%로 낮지만 2008년에는 31.1%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22〉 노인의 특성별 비근로자의 근로 희망비율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7.9	72.1	17.5	32.2
지역				
동부	9.2	70.7	20.3	35.3
읍·면부	5.4	76.4	8.6	21.6
성				
남자	13.4	73.3	30.8	43.6
여자	5.7	71.5	11.1	26.0
연령				
65~69세	12.9	78.7	29.6	45.5
70~74세	7.7	72.7	17.5	37.5
75~79세	3.9	70.5	8.6	24.2
80세 이상	1.7	57.1	3.6	11.6
출생년도				
1909년이하	3.1	41.4	0.0	0.0
1910년~1919년	3.1	59.3	0.0	3.7
1920년~1929년	10.3	73.9	8.5	14.3
1930년~1934년	16.6	78.9	17.8	25.3
1935년~1939년	-	-	29.7	39.8
교육수준				
무학	4.8	71.9	8.3	20.1
초등학교	15.8	72.4	11.1	33.2
중고등학교	13.2	74.9	19.8	42.7
전문대 이상	10.5	61.3	32.5	50.2
결혼상태				
유배우	11.2	74.1	23.9	23.6
무배우	6.0	70.5	11.1	38.1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4.6	76.7	9.7	26.3
노인부부가구	10.4	73.9	21.9	36.8
자녀동거가구	7.6	69.5	18.5	31.1
기타가구	11.6	76.2	19.8	26.7
기능상태				
제한없음	12.6	70.6	20.5	38.8
IADL 제한	5.3	66.8	3.4	17.9
ADL 제한	3.3	77.5	2.2	12.5

## 2. 여가문화활동

노인의 건강과 기능수준이 향상되면서 노후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여가는 노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조사 4개 년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체활동 참여로서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의 변화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단체활동별 참여의 변화를 살펴보면, 친목단체의 참여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 21.6%에서 1998년 27.2%, 2004년 33.2%이며, 2008년에는 54.9%로 노인 중 절반 이상은 1개 이상의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단체 참여율도 2배가량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그에 반해 문화, 스포츠, 정치단체 활동은 친목단체나 종교단체에 비해 참여율의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문화, 스포츠나 정치단체의 경우 노인에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들 단체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봉사단체 참여율은 1998년 0.6%에 그쳤으나 2008년에는 2.6%로 증가하였다. 비록 절대적인 참여율은 적은 수치이지만 봉사단체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사회적으로 노인인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의미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23〉 노인의 단체활동 참여 비율 변화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친목	21.6	27.2	33.2	54.9
종교	21.2	50.6	45.5	44.3
문화	-	0.7	0.9	0.7
스포츠	-	2.7	3.6	2.9
시민단체	-	-	-	1.6
정치단체	0.8	-	1.9	0.4
봉사단체	-	0.6	-	2.6
학습단체	3.1	-	-	6.0

노인의 단체활동 참여는 단체의 특성도 의미가 있지만, 외부와 접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단체활동에 1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1994년에는 읍면부보다는 동부의 단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읍면부 농어촌에서도 교통의 발전과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읍면부 노인의 단체활동 참여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1994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단체활동 참여가 높아졌으나 최근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여성노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체활동 참여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94년 단체활동 참여율이 15.5%에 그쳤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61.2%로 증가한 고무적 모습을 나타냈다. 출생코호트별 단체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단체활동 참여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단체활동 참여율이 높고 이는 1994년 이후 계속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교육수준별 단체활동의 참여율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1994년 무배우에 비해 유배우 노인의 단체활동 참여가 높았으나, 2008년에 이르러서는 무배우와 유배우간 단체활동 참여율의 차이가 적어지고, 오히려 무배우의 참여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단체활동 참여율은 경제수준이 좋은 편일 경우 단체활동 참여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도 기능제한이 없을 경우 단체활동 참여율은 크게 증가하며, 최근 들어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어려운 노인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어려운 노인 간에 단체활동 참여율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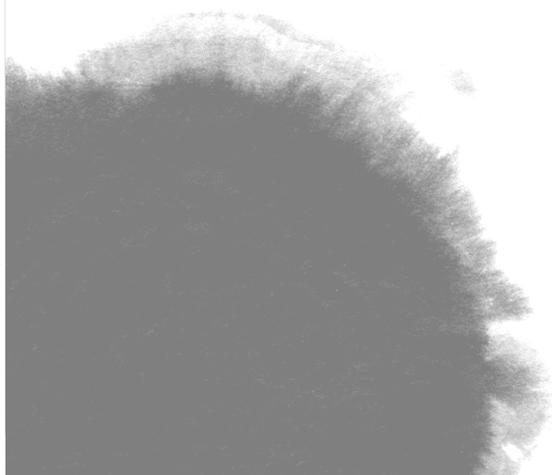
〈표 5-24〉 노인의 특성별 단체활동 참여 비율

구분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전체	38.1	63.8	63.5	74.5
지역				
동부	43.1	67.7	65.1	73.9
읍·면부	31.6	57.3	60.1	75.6
성				
남자	44.4	61.6	64.8	74.7
여자	34.1	65.1	62.7	74.3
연령				
65~69세	47.6	71.8	74.6	78.6
70~74세	38.4	65.6	65.2	77.4
75~79세	30.4	61.3	58.3	72.9
80세 이상	15.5	42.1	40.1	61.2
출생년도				
1909년 이전	12.5	21.2	37.5	80.0
1910년~1919년	26.1	48.6	30.1	39.8
1920년~1929년	43.8	66.5	55.2	65.8
1930년~1934년	56.1	71.0	64.7	74.1
1935년~1940년	-	-	75.4	76.6
교육수준				
무학	30.6	54.7	51.2	66.3
초등학교	50.9	71.8	44.0	76.0
중고등학교	53.6	75.8	68.3	79.5
전문대 이상	59.5	84.7	81.4	89.4
결혼상태				
유배우	44.9	65.5	67.9	70.7
무배우	31.8	62.2	58.3	76.5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32.4	64.8	59.5	72.4
노인부부가구	46.6	63.58	68.0	76.5
자녀동거가구	35.9	63.2	60.6	74.2
기타가구	30.9	67.7	69.4	65.7
주관적 경제상태				
좋은편	56.4	79.6	78.1	83.4
보통	49.9	70.4	71.5	79.8
나쁜편	38.1	60.3	61.1	68.1
기능상태				
제한없음	53.0	74.1	70.5	79.9
IADL 제한	23.7	54.2	39.3	65.5
ADL 제한	23.2	52.4	23.9	43.3



# 06

## 노인의 노후가치관 변화





## 제6장 노인의 노후가치관 변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환경도 선진화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위생·영양상태의 개선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여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8년 80.1세로 17.8세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 고령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노년기의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제도적으로는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7월부터 사회보험 형태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도입은 노인 부양 부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교적인 가족중심의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한 진전과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회제도의 도입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겪은 산물이라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노후 부양관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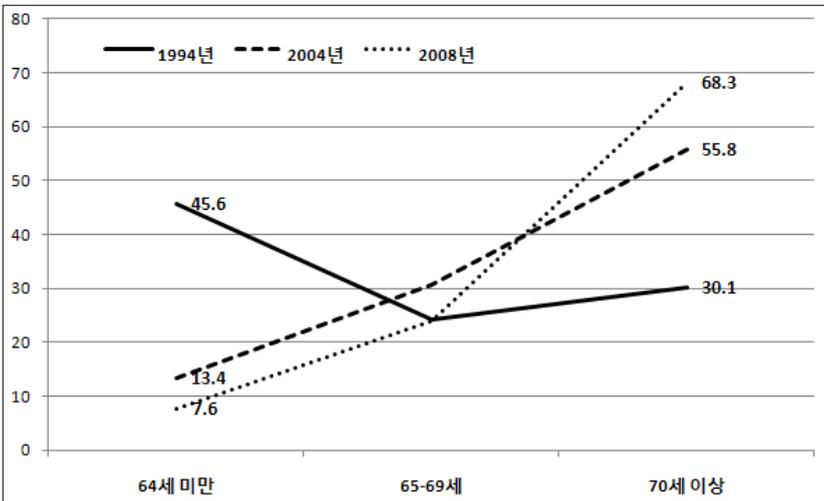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이처럼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노후 부양관이나 가치관 등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혼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에 대한 인식, 노부모에 대한 수발 의무 및 수발자,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선호하는 수발자,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 대책 등을 통해 변화를 살펴보았다.

## 제1절 노년에 대한 인식 및 부양관

노인의 연령으로는 통상적으로 ‘만 65세’가 기준 나이로 제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인이 됨으로써 수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도 65세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인구집단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1994년에는 ‘64세 미만’이 노인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에는 ‘64세 미만’이라는 응답률은 7.6%에 불과하며 ‘70세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68.3%로 1994년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6-1]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한편, 노인복지법이나 통상적으로 노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65세가 포함되는 ‘65~69세’의 응답률은 1994년 24.3%, 2004년 30.8%, 2008년 24.1%로 199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세 이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퇴직연령 연장이나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개정하지는 제

안 등에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1994년의 경우 읍면부에서 ‘64세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동부에 비해 9.3%포인트 많은 51.0%였고, 동부에서는 ‘70세 이상’의 응답률이 읍면부에 비해 5.6%포인트 높은 32.4%였다. 하지만 2004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특징을 나타냈다. 2004년의 경우 ‘65~69세’라는 응답이 읍면부에서 동부에 비해 4.3%포인트 높은 수준이었고,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동부에서 읍면부에 비해 7.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2008년에는 지역차가 더욱 줄어들어 1.0%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즉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고령화는 도시나 지방이냐의 지역특성을 넘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1994년과 2004년, 2008년 조사 결과 모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인의 연령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4년 조사에서 여성은 ‘64세 미만’이라는 응답률이 남성에 비해 14.8%포인트 많았고, 2004년 조사에서는 7.4%포인트, 2008년 조사에서는 3.1%포인트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집단별 ‘70세 이상’의 응답률을 보면 1994년 65~69세 응답자와 75세 이상 응답자의 차이가 31.9%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65~69세 응답자와 75세 이상 응답자의 차이가 5.4%포인트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나이에 의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편차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별로는 3개 년도 조사에서 모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의 연령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가구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6-1〉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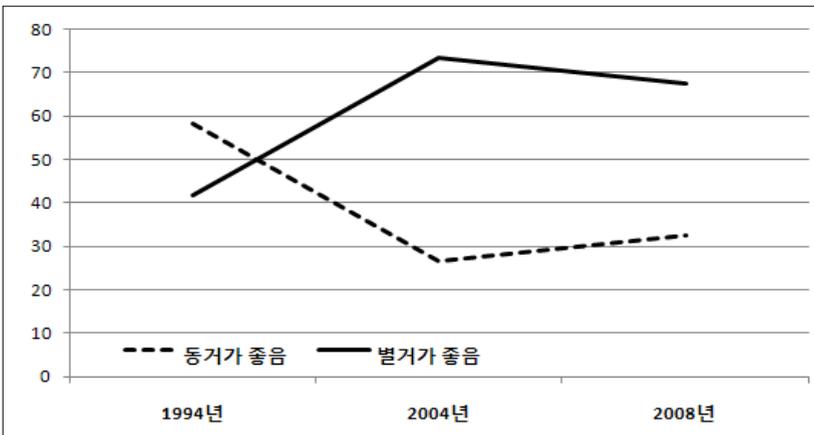
구분	1994년			2004년			2008년		
	64세 미만	65-69세	70세 이상	64세 미만	65-69세	70세 이상	64세 미만	65-69세	70세 이상
전체	45.6	24.3	30.1	13.4	30.8	55.8	7.6	24.1	68.3
지역									
동부	41.7	25.9	32.4	12.4	29.4	58.2	7.5	24.4	68.2
읍·면부	51.0	22.2	26.8	15.5	33.7	50.8	7.9	23.5	68.6
성									
남자	36.7	32.0	31.3	8.9	33.6	57.6	5.8	23.4	70.8
여자	51.5	19.3	29.2	16.3	29.0	54.7	8.9	24.5	66.6
연령									
65~69세	53.6	28.3	18.1	12.9	37.6	49.4	7.6	26.5	65.9
70~74세	43.6	25.3	31.1	12.7	30.2	57.1	7.0	24.9	68.0
75세 이상	34.1	15.9	50.0	14.7	22.3	63.0	8.2	20.5	71.3
교육수준									
무학	51.3	19.4	29.3	16.2	27.6	56.2	9.2	24.2	66.5
초등학교	42.4	30.7	26.9	14.4	32.2	53.4	7.9	25.4	66.6
중·고등학교	27.6	34.3	38.1	9.0	34.3	56.7	5.9	23.8	70.3
대학 이상	10.8	43.2	45.9	4.6	30.5	64.9	3.6	16.6	79.8
결혼상태									
유배우	41.8	28.6	29.5	11.0	33.4	55.6	7.0	24.3	68.8
무배우	49.3	20.1	30.5	16.6	27.4	56.0	8.8	23.7	67.4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53.9	19.2	26.9	14.7	31.6	53.7	9.0	23.4	67.6
노인부부가구	40.0	30.2	29.8	10.1	35.3	54.5	7.0	24.6	68.5
자녀동거가구	45.1	24.3	30.6	14.9	26.3	58.7	8.1	23.7	68.2
기타가구	57.6	6.8	35.6	19.0	27.9	53.1	6.3	24.0	69.8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49.9	22.2	27.9	11.1	25.9	63.0	6.7	20.8	72.5
보통	44.6	26.2	29.2	12.6	28.7	58.7	7.2	22.5	70.2
나쁨	49.9	22.2	27.9	14.5	33.5	52.0	8.2	26.1	65.7
기능상태									
완전자립	42.1	30.4	27.6	12.7	31.2	56.0	6.9	23.5	69.6
iadl 제한	53.2	19.5	27.4	18.5	26.8	54.6	10.6	25.0	64.4
adl 제한	48.2	15.4	36.4	16.5	31.9	51.6	9.3	27.4	63.3

다음으로, 결혼한 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1994년 조사결과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58.2%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는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26.6%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8년에는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32.5%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이것은 1994년이나 1998년에 조사에서는 “결혼한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데 반해, 2008년에는 “노후에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 내용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응답자 특성별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에도 이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실제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에서도 나타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 14년간 자녀동거가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결혼한 자녀와 노부모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



지역별로는 1994년이나 2004년에는 읍면부보다는 동부에서 ‘별거가 좋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2008년에는 읍면부에서 ‘별거가 좋다’는 응답이 동부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1994년, 2004년, 2008년 조사 모두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별거가 좋다’는 인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각 조사년도별로

보면 1994년은 8.3%포인트, 2004년은 2.0%포인트, 2008년은 7.0%포인트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별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많이 나타나 성별에 의한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3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유지되는 가운데, 1994년 조사에서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거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별거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3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유지되었다.

응답자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1994년에는 13.1%포인트, 2004년에는 8.9%포인트, 2008년에는 13.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혼자 살기보다는 자녀라도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조차도 일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유형별로는 자녀동거가구에서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이 3개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녀동거가구의 ‘동거가 좋다’는 응답률과 ‘별거가 좋다’는 응답률의 차이를 보면, 1994년 44.2%포인트, 2004년 25.6%포인트, 2008년 8.8%포인트로 두 집단간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물며 2004년에는 자녀동거가구에서 조차 ‘별거가 좋다’는 응답이 매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자녀동거가구인 노인의 경우 일부는 자발적 동거이기 보다는 경제적 이유 또는 도구적 필요에 의해 동거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2004년 조사 결과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별거가 좋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나쁠수록 ‘별거가 좋다’는 응답이 많아 차이를 나타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3개년도 조사에서 모두 완전 자립이 가능한 경우 ‘별거가 좋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1994년 조사에서는 도구적 생활 수행 능력이 제한된 경우 ‘동거가 좋다’는 인식이 다

소 많았고, 2004년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제한된 경우 ‘동거가 좋다’는 인식이 다소 많이 나타났다.

〈표 6-2〉 기혼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1994년		2004년		2008년	
	동거가 좋음	별거가 좋음	동거가 좋음	별거가 좋음	동거가 좋음	별거가 좋음
전체	58.2	41.8	26.6	73.4	32.5	67.5
지역						
동부	57.1	42.9	25.7	74.3	33.6	66.4
읍·면부	59.6	40.4	28.6	71.4	30.5	69.5
성						
남자	53.2	46.8	25.4	74.6	28.3	71.7
여자	61.5	38.5	27.4	72.6	35.3	64.7
연령						
65~69세	52.4	47.6	18.7	81.3	24.4	75.6
70~74세	59.2	40.8	28.3	71.7	30.8	69.2
75세 이상	66.7	33.3	35.6	64.4	43.1	56.9
교육수준						
무학	64.2	35.8	34.5	65.5	39.5	60.5
초등학교	51.7	48.3	23.4	76.6	30.9	69.1
중·고등학교	40.0	60.0	20.1	79.9	26.6	73.4
대학 이상	37.8	62.2	17.9	82.1	26.8	73.2
결혼상태						
유배우	51.5	48.5	22.8	77.2	27.7	72.3
무배우	64.6	35.4	31.7	68.3	41.3	58.7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41.1	58.9	22.9	77.1	22.3	77.7
노인부부가구	39.7	60.3	18.8	81.2	22.1	77.9
자녀동거가구	72.1	27.9	37.2	62.8	54.4	45.6
기타가구	58.7	41.3	23.0	77.0	48.0	52.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57.8	42.2	22.7	77.3	35.8	64.2
보통	58.4	41.6	28.5	71.5	35.2	64.8
나쁨	57.7	42.3	26.0	74.0	29.2	70.8
기능상태						
완전자립	49.3	50.7	24.6	75.4	28.6	71.4
iadl 제한	69.9	30.1	38.7	61.3	45.9	54.1
adl 제한	67.6	32.4	42.4	57.6	46.0	54.0

다음으로,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 항목은 1998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노인 전원에게 질문하였고, 2004년과 2008년에는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위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에게 ‘노부모는 누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고, 선택지 중 ‘노부모끼리 따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항목이 있어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즉, 1998년과 2004년, 2008년의 각 조사에서 자녀가 함께 살 경우 어느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1998년, 2004년, 2008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장남과 살아야 한다는 응답이 1998년 54.9%에서 2004년 57.5%, 2008년에는 59.2%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의 해체 및 변화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이는 선택지의 표현이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각 조사년도별 선택지를 보면, 1998년에는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한다’, 2004년과 2008년에는 ‘가능한 한 장남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부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장남’은 노부모 부양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응답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기는 하지만 ‘딸’의 응답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조사년도별로 ‘딸’이 모시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1998년 0.9%, 2004년 1.1%, 2008년 2.7%로 서서히 증가하였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딸에게 노부모의 부양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큰 인식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지역별로는 각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장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동부는 읍면부에 비해 ‘형편이 되는 자녀’의 응답률이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2008년에는 ‘딸’이라는 응답률이 다

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장남을 포함한 ‘이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조사년도별 장남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여성의 응답률을 보면 1994년 67.1%, 2004년 67.9%, 2008년 73.5% 남성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장남이나 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형편되는 자녀’를 선호하였으나, 2004년에는 65~69세에서 ‘장남’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많았다. 대신 ‘이들’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장남을 포함한 이들의 비율로 비교하였을 때는 다른 조사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률이 대체로 높기는 하였으나, 교육수준별로 2008년 대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장남’의 응답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장남’의 응답률이 1998년 60.2%, 2004년 62.4%, 2008년 62.3%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자녀동거가구에서는 ‘형편되는 자녀’가 1998년 36.8%, 2004년 34.9%, 2008년 24.6%로 ‘장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았다. 또한 자녀동거가구에서 2008년에는 ‘딸’에 대한 응답률(3.0%)이 1998년(0.6%)과 2004년(0.5%)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장남’의 응답률이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을 뿐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1998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 기능상태가 제한된 경우 ‘딸’의 응답률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도구적 생활 제한이 있는 경우 ‘딸’의 응답률이 2.0%,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경우 1.0%였던 것에서 2008년에는 도구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경우 3.8%,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경우 4.6%로 증가하였다. 즉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서 며느리보다는 딸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3〉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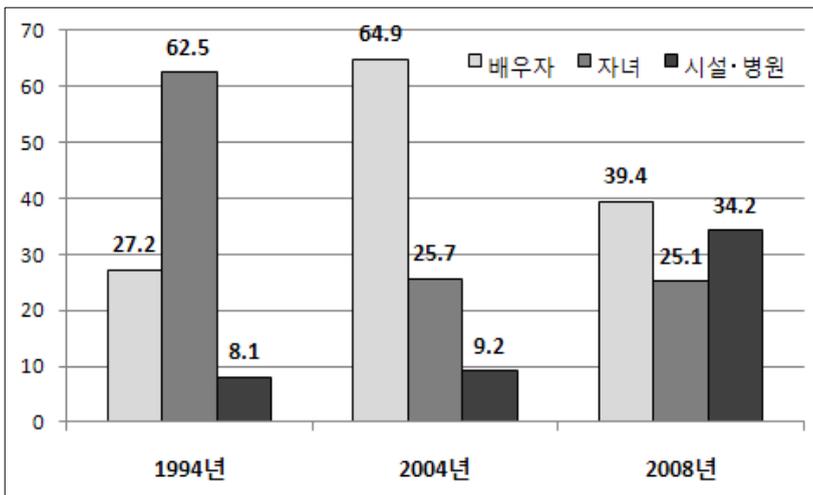
구 분	1998년				2004년				2008년			
	장남	아들	딸	형편 되는 자녀	장남	아들	딸	형편 되는 자녀	장남	아들	딸	형편 되는 자녀
전체	54.9	11.4	0.9	32.8	57.5	9.9	1.1	31.4	59.2	14.0	2.7	24.1
지역												
동부	49.4	11.3	1.1	38.1	53.1	9.1	1.2	36.6	56.9	13.6	3.3	26.2
읍·면부	63.8	11.5	0.4	24.3	65.9	11.5	1.1	21.5	63.9	14.9	1.3	19.8
성												
남자	55.3	9.6	0.8	34.3	55.2	11.5	1.4	31.9	58.9	13.6	1.9	25.5
여자	54.7	12.4	0.9	32.0	58.8	9.1	1.2	31.0	59.3	14.2	3.1	23.4
연령												
65~69세	53.0	10.5	0.6	35.9	60.0	6.4	0.9	32.7	57.6	13.6	2.9	25.9
70~74세	52.2	12.0	1.1	34.7	55.5	13.0	0.8	30.8	58.4	13.9	2.1	25.5
75세 이상	59.9	12.1	0.9	27.2	57.1	10.0	1.9	31.0	60.6	14.3	2.9	22.2
교육수준												
무학	59.7	12.7	0.8	26.8	61.8	9.7	0.8	27.7	62.5	14.6	3.3	19.7
초등학교	52.7	10.0	1.3	36.0	56.3	10.6	2.0	31.1	58.2	15.5	2.4	23.9
중·고등학교	41.6	11.3	0.5	46.6	45.3	10.3	0.9	43.6	60.4	9.0	2.2	28.5
대학 이상	43.8	4.7	0.0	51.6	63.3	3.3	0.0	33.3	38.2	16.8	1.0	44.0
결혼상태												
유배우	54.1	10.9	0.6	34.4	58.1	10.7	1.0	30.2	59.9	13.9	2.2	24.0
무배우	55.7	11.9	1.2	31.3	57.1	9.2	1.2	32.4	58.3	14.1	3.3	24.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59.6	12.4	2.2	25.8	59.1	8.1	2.7	30.2	55.5	14.3	2.1	28.2
노인부부가구	60.2	10.5	0.4	28.9	62.4	12.4	2.0	23.3	62.3	14.0	1.7	22.0
자녀동거가구	50.7	11.8	0.6	36.8	55.1	9.5	0.5	34.9	57.7	14.7	3.0	24.6
기타가구	54.1	8.2	1.2	36.5	48.6	11.4	0.0	40.0	61.1	9.8	5.6	23.5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57.7	7.9	0.0	34.4	53.3	13.3	1.3	32.0	69.9	7.1	2.2	20.8
보통	53.3	11.6	0.5	34.6	59.4	10.6	1.2	28.8	60.3	14.0	2.7	23.0
나쁨	55.6	12.2	1.3	30.9	56.5	8.8	1.1	33.7	56.1	14.9	2.8	26.2
기능상태												
완전자립	53.3	10.9	0.4	35.3	57.0	10.4	1.3	31.3	58.7	14.4	2.0	25.0
iadl 제한	57.2	10.8	2.0	30.1	61.3	10.1	0.8	27.7	61.9	14.5	3.8	19.8
adl 제한	56.5	12.6	1.0	29.9	51.3	2.6	0.0	46.2	58.0	11.4	4.6	26.0

주: 1998년 자료는 ‘노부부끼리 따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제외한 결과이며, 2004년과 2008년은 ‘(기혼)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의 하위질문으로 질의된 결과임.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간병 및 수발이 필요한 경우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994년 조사에서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가 62.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수발을 받거나 혼자 살겠다’가 27.2%로 나타났다. 반면 2004년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수발을 받거나 혼자 살겠다’는 응답률이 6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가 25.7%로 나타나 1994년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2008년에는 ‘배우자의 수발을 받거나 혼자 살겠다’는 응답률이 39.4%로 2004년에 비해 매우 줄어들고 대신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응답률이 34.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설이나 병원’의 응답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건강 악화시 선호하는 수발방법의 변화는 요컨대, 자녀에 의존적인 형태에서, 부부끼리 해결하는 형태로, 나아가 시설이나 병원과 같은 요양전문시설을 선호하는 양상이 드러나 1994년부터 2008년의 14년 동안 상당히 역동적인 변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6-3] 건강 기능 악화시 선호하는 수발 방법 변화



지역별로는 각 조사년도별로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서 ‘시설이나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응답률이 많았는데, 각 년도별로 동부와외의 응답률 차이는 1994년 6.8%포인트, 2004년 2.7%포인트, 2008년 7.7%포인트였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는 도시지역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 정서적 접근성이 미약하여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각 조사년도마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1994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47.9%포인트 높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04년과 2008년 조사에서는 각각 15.1%포인트, 15.3%포인트 많은 정도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1994년에는 여성의 응답률에 비해 53.7%포인트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간병이나 수발이 대개 여성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남성은 배우자에게, 여성은 자녀에게 수발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수발 책임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국한되는 점에서, 2008년 결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2008년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응답자들이 자녀(31.3%)나 배우자(29.5%)보다 시설이나 병원(37.7%)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수발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 가족 밖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개 조사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배우자/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고 싶다’는 응답률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1994년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6.3%)이 가장 저조했던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도 2004년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이 7.4%로, 2008년에는 33.1%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살겠다’는 응답률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자녀와 함께 살겠다’

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2004년과 2008년 조사에서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많았으나, 1994년에는 대학이상의 집단에서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아 대조적이었다.

응답자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1994년 84.8%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나 2004년에는 35.9%로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대신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1.1%에서 51.8%로 증가하여 자녀에 대한 수발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배우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응답률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배우: 7.0%→30.2%, 무배우: 12.2%→41.3%)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1994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77.9%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2004년 20.3%, 2008년 27.4%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1994년 20.0%에서 2004년 65.2%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22.4%)보다 ‘시설이나 병원에 가고 싶다’는 응답률(48.2%)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3개 조사 결과에서 각각 56.0%, 81.4%, 53.8%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높았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1994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71.8%로 가장 많았으나 2004년에는 44.6%로 상당히 줄고 대신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47.7%로 하였다. 2008년에는 수발방법에 대한 욕구가 더욱 분화되어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39.2%, ‘시설이나 병원에 가고 싶다’ 30.5%,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 29.2%로 나타났다.

〈표 6-4〉 건강 기능 약화시 선호하는 수발 방법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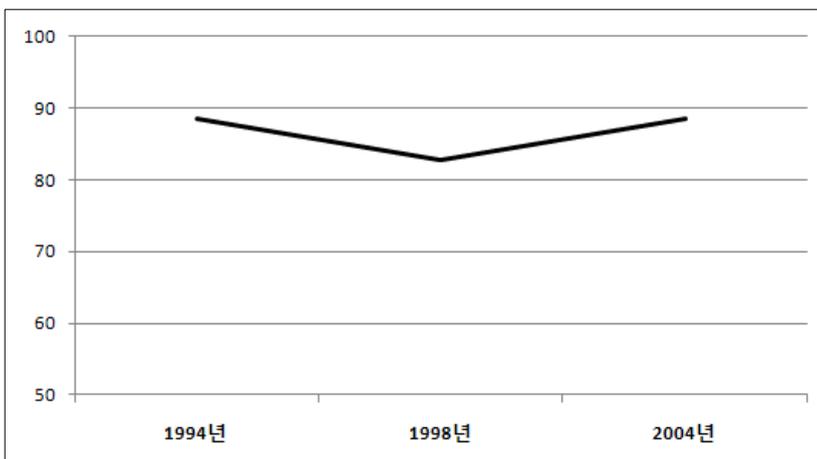
	1994년				2004년				2008년			
	배유자	자녀	시설·병원	기타	배유자	자녀	시설·병원	기타	배유자	자녀	시설·병원	기타
전체	27.2	62.5	8.1	2.2	64.9	25.7	9.2	0.1	39.4	25.1	34.2	1.3
지역												
동부	26.2	59.2	11.1	3.5	64.2	25.6	10.1	0.1	38.1	23.6	36.8	1.5
읍·면부	28.5	66.6	4.3	0.6	66.4	26.0	7.4	0.2	41.8	28.1	29.1	1.0
성												
남자	58.8	34.3	5.6	1.3	76.2	16.2	7.3	0.3	54.0	16.0	28.9	1.1
여자	5.1	82.2	9.8	2.9	58.4	31.3	10.3	0.0	29.5	31.3	37.7	1.5
연령												
65~69세	31.2	57.6	8.0	3.2	69.4	18.1	12.3	0.3	46.9	16.5	35.4	1.2
70~74세	28.9	60.5	9.6	0.9	68.8	24.2	7.0	0.0	42.1	22.5	33.8	1.6
75세 이상	18.2	73.3	6.3	2.1	55.3	37.3	7.4	0.0	28.4	37.3	33.1	1.3
교육수준												
무학	18.1	74.1	6.5	1.3	56.9	35.1	8.0	0.0	28.1	36.3	34.2	1.4
초등학교	35.4	50.0	11.3	3.3	68.5	24.1	7.4	0.0	42.4	25.0	31.3	1.3
중·고등학교	52.8	31.1	11.3	4.7	71.1	15.2	13.8	0.0	48.5	13.8	36.3	1.4
대학 이상	69.4	19.4	5.6	5.6	71.4	14.3	12.4	1.9	46.7	9.2	43.1	1.0
결혼상태												
유배우	53.3	40.2	4.4	2.1	74.9	18.0	7.0	0.1	51.8	17.0	30.2	1.0
무배우	1.1	84.8	11.8	2.3	51.8	35.9	12.2	0.1	16.7	40.0	41.3	1.9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0	77.9	19.5	0.7	65.2	20.3	14.3	0.3	22.4	27.4	48.2	2.0
노인부부가구	56.0	37.1	4.7	2.2	81.4	11.5	7.1	0.0	53.8	14.1	31.0	1.1
자녀동거가구	18.9	71.8	6.9	2.5	47.7	44.6	7.6	0.2	29.2	39.2	30.5	1.2
기타가구	22.0	64.0	10.0	4.0	67.6	17.6	14.7	0.0	27.8	41.1	29.1	2.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28.6	62.2	6.5	2.8	63.6	29.2	7.2	0.0	41.7	24.2	33.6	0.5
보통	27.4	63.4	6.6	2.6	63.1	29.9	6.8	0.1	42.8	26.1	30.2	1.0
나쁨	26.7	61.1	10.3	1.8	66.4	22.0	11.4	0.1	35.5	24.3	38.4	1.8
기능상태												
완전자립	36.4	52.9	8.5	2.3	66.8	23.8	9.3	0.1	41.3	21.7	35.7	1.3
iadl 제한	11.8	80.7	6.4	1.1	52.2	39.4	8.4	0.0	30.4	38.7	29.2	1.7
adl 제한	19.0	70.0	8.3	2.8	56.4	32.7	10.9	0.0	35.4	35.1	28.4	1.0
자녀동거여부												
동거	19.2	71.3	6.9	2.5	47.6	44.7	7.6	0.2	28.0	41.5	29.3	1.2
비동거	36.0	54.2	7.7	2.1	74.9	14.8	10.2	0.1	43.9	18.5	36.1	1.4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태가 제한된 경우 자립의 경우에 비해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1994년 도구적 생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80.7%에 이른다. 하지만 2004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률은 35%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신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5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시설이나 병원에 가고 싶다’로 일부 옮겨가는 특징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 질문은 1994년, 1998년, 2004년에만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1994년과 1998년에는 ‘모르겠다’는 선택 항목을 포함하여 3개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하지만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모르겠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만을 비교하였으며, 각 조사년도별로 ‘모르겠다’의 응답률은 1994년 6.1%, 1998년 5.0%였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재산이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 1994년 88.5%, 1998년 82.7%, 2004년 88.5%로 3개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6-4] ‘자녀에게 대접받기 위해 재산이 필요하다’에 대한 인식 변화



지역별로는 대접받기 위해 ‘재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대체로 높은 가운데, 1994년에는 읍면부에서 동부에 비해 ‘재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았고(3.3%포인트), 1998년에는 동부에서 읍면부에 비해 ‘재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3.5%포인트) 나타나는 등 시계열적인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데, 1994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재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았으나(3.7%포인트), 1998년에는 남성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수준(0.7%포인트)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3개 조사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재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낮은 편이었다. 1994년에는 초등학교 학력자에서 ‘재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1.2%로 가장 많았고, 1998년에는 무학자에서(83.8%), 2004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력 집단(89.0%)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재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1994년 93.0%에서 1998년 85.4%로 7.6%포인트 감소하여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응답률의 감소 편차가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한편 노인부부가구에서는 ‘재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1994년 88.0%에서 1998년 83.8%로 4.2%포인트 줄어들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감소률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재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부정적인 경우 ‘재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1994년 93.7%, 2004년 90.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건강기능상태에 따라서 자립의 경우에 비해 기능상태가 제한된 경우 ‘재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계열적으로도 유지되었다.

〈표 6-5〉 노후 대접받기 위해 재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재산 필요	재산 불필요	재산 필요	재산 불필요	재산 필요	재산 불필요
전체	88.5	11.5	82.7	17.3	88.5	11.5
지역						
동부	87.1	12.9	84.0	16.0	88.8	11.2
읍·면부	90.4	9.6	80.5	19.5	87.8	12.2
성						
남자	86.3	13.7	83.1	16.9	87.2	12.8
여자	90.0	10.0	82.4	17.6	89.3	10.7
연령						
65~69세	90.6	9.4	85.5	14.5	89.4	10.6
70~74세	85.3	14.7	84.8	15.2	89.3	10.7
75세 이상	88.8	11.2	76.8	23.2	86.5	13.5
교육수준						
무학	89.4	10.6	83.8	16.2	88.6	11.4
초등학교	91.2	8.8	81.3	18.7	89.0	11.0
중·고등학교	81.3	18.7	82.0	18.0	89.0	11.0
대학 이상	70.3	29.7	81.9	18.1	82.8	17.2
결혼상태						
유배우	88.8	11.2	83.7	16.3	89.4	10.6
무배우	88.2	11.8	81.7	18.3	87.2	12.8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93.0	7.0	85.4	14.6	87.3	12.7
노인부부가구	88.0	12.0	83.8	16.2	89.0	11.0
자녀동거가구	87.0	13.0	81.1	18.9	88.7	11.3
기타가구	92.1	7.9	81.1	18.9	88.2	11.8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82.4	17.6	74.6	25.4	85.7	14.3
보통	86.2	13.8	82.8	17.2	86.5	13.5
나쁨	93.7	6.3	84.6	15.4	90.6	9.4
기능상태						
완전자립	87.7	12.3	81.9	18.1	88.1	11.9
iadl 제한	90.0	10.0	82.4	17.6	90.4	9.6
adl 제한	89.1	10.9	84.4	15.6	92.4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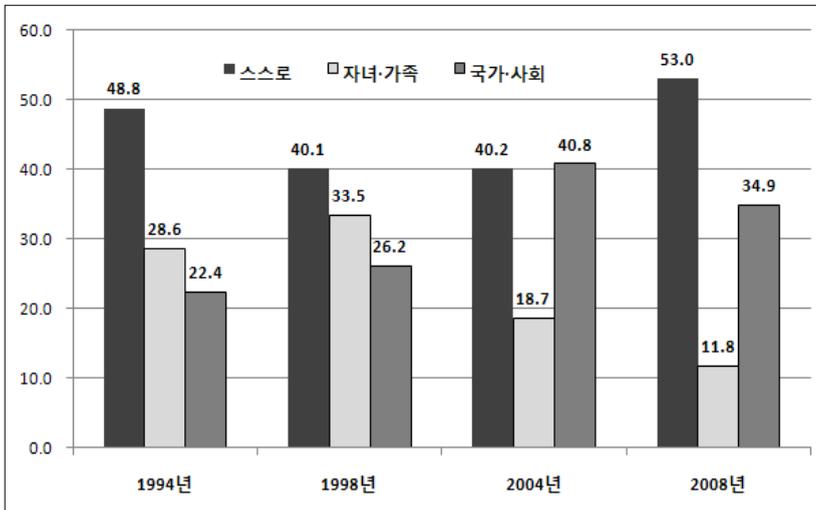
주: 1994년과 1998년 '모르겠음' 제외한 비율임.

## 제2절 노후대책

노후대책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과 실제로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자녀 및 가족’은 1998년 33.5%에서 2004년 18.7%, 2008년 11.8%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가 및 사회’는 1994년 22.4%, 1998년 26.2%, 2004년 40.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에는 ‘국가 및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5.9%포인트),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12.8%포인트)으로 나타났다.

[그림 6-5]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시도되거나 정비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라는 점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기초노령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보장의 역사가 짧고, 사회보장시스템 자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의 부양 부담을 사회나 국가에 전가하는 문화 자체가 생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 동안(1994년~2008년)의 개인의 노후 생활비를 ‘국가 및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인식 변화의 추세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1994년과 1998년의 경우 읍면부에서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강하였다. 하지만 2004년과 2008년 읍면부의 ‘자녀 및 가족’의 응답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동부와의 편차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본인 스스로’나 ‘국가 및 사회’로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시계열적으로도 유지되었다. 여성이 자녀가 가족을 더욱 선호하는 결과는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선호하는 수발방법에 대한 성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지는 2004년 결과를 들여다보면, 여성의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응답률은 23.3%로 낮아지고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42.2%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보다 가사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남성에 비해 노후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연령이 적어질수록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시계열적으로도 유지되었다.

〈표 6-6〉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1994, 1998년)

(단위: %)

구분	1994년				1998년			
	스스로	자녀·가족	국가·사회	기타	스스로	자녀·가족	국가·사회	기타
전체	48.8	28.6	22.4	0.2	40.1	33.5	26.2	0.2
지역								
동부	47.5	26.1	26.1	0.3	40.7	29.7	29.4	0.2
읍·면부	50.5	31.9	17.6	0.0	38.9	40.2	20.7	0.1
성								
남자	56.2	18.5	25.3	0.0	50.7	25.3	23.6	0.4
여자	43.4	35.7	20.6	0.3	33.6	38.5	27.9	0.1
연령								
65~69세	53.3	25.0	21.3	0.4	46.8	26.8	26.3	0.1
70~74세	47.1	27.3	25.6	0.0	38.1	32.2	29.6	0.2
75세 이상	42.6	37.0	20.4	0.0	33.0	44.2	22.7	0.2
교육수준								
무학	44.1	37.7	18.2	0.0	31.7	43.6	24.6	0.1
초등학교	54.1	15.5	30.4	0.0	43.2	28.0	28.5	0.3
중·고등학교	58.3	10.2	29.6	1.9	53.7	16.7	29.7	0.0
대학 이상	65.8	13.2	21.1	0.0	71.6	9.5	18.9	0.0
결혼상태								
유배우	56.3	21.2	22.2	0.3	47.3	28.0	24.5	0.3
무배우	41.4	35.9	22.7	0.0	32.5	39.3	28.1	0.1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52.4	23.8	23.8	0.0	36.7	30.5	32.8	0.0
노인부부가구	60.9	16.2	22.3	0.6	46.9	27.0	26.0	0.0
자녀동거가구	41.6	36.7	21.7	0.0	37.8	38.4	23.4	0.3
기타가구	43.9	29.8	26.3	0.0	33.0	36.7	30.3	0.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52.3	28.4	19.3	0.0	53.3	32.8	13.9	0.0
보통	51.5	27.8	20.8	0.0	38.9	37.2	23.7	0.2
나쁨	44.9	29.0	25.7	0.4	37.9	30.8	31.3	0.1
기능상태								
완전자립	56.2	20.0	23.5	0.3	46.4	26.4	27.0	0.2
iadl 제한	45.3	32.6	22.1	0.0	34.9	41.4	23.4	0.3
adl 제한	36.6	42.9	20.5	0.0	30.5	43.2	26.3	0.0

〈표 6-7〉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2004, 2008년)

(단위: %)

구분	2004년				2008년			
	스스로	자녀·가족	국가·사회	기타	스스로	자녀·가족	국가·사회	기타
전체	40.2	18.7	40.8	0.2	53.0	11.8	34.9	0.4
지역								
동부	38.7	18.3	42.8	0.1	53.9	11.7	34.1	0.3
읍·면부	43.3	19.6	36.7	0.4	51.1	12.0	36.4	0.5
성								
남자	49.7	11.4	38.6	0.3	59.7	7.5	32.5	0.3
여자	34.3	23.3	42.2	0.2	48.4	14.6	36.5	0.5
연령								
65~69세	49.8	11.9	37.9	0.4	60.1	7.5	32.1	0.3
70~74세	38.4	18.6	42.8	0.2	54.4	9.6	35.6	0.3
75세 이상	29.2	27.8	42.9	0.1	43.5	18.4	37.4	0.6
교육수준								
무학	30.5	27.0	42.4	0.1	44.2	16.2	39.1	0.5
초등학교	42.4	18.3	39.0	0.3	54.2	11.9	33.5	0.4
중·고등학교	50.0	8.1	41.6	0.3	59.2	7.4	33.2	0.1
대학 이상	56.4	4.1	39.5	0.0	68.0	3.5	27.9	0.6
결혼상태								
유배우	48.1	12.8	38.8	0.3	59.0	8.6	32.1	0.3
무배우	30.0	26.3	43.5	0.2	42.0	17.5	39.9	0.6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33.6	21.5	44.7	0.2	42.7	13.5	43.3	0.5
노인부부가구	49.5	11.4	39.0	0.2	60.0	8.1	31.6	0.4
자녀동거가구	36.3	24.5	38.8	0.4	49.1	16.1	34.4	0.3
기타가구	32.6	16.9	50.0	0.6	49.2	14.9	35.4	0.5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57.3	15.8	26.9	0.0	71.4	12.2	16.2	0.2
보통	44.9	19.3	35.7	0.1	60.8	12.5	26.4	0.3
나쁨	32.7	18.8	48.0	0.5	42.5	10.9	46.1	0.5
기능상태								
완전자립	42.1	17.6	40.0	0.2	55.9	9.9	33.9	0.3
iadl 제한	28.0	28.3	43.3	0.3	43.3	18.1	38.0	0.6
adl 제한	28.6	15.4	56.0	0.0	41.8	18.8	38.4	1.0

연령대별로 심화해서 살펴보면, 65~69세에서는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매 조사마다 다른 방법에 비해 높았으며, 2008년에는 2004년에 비해 10.3%포인트나 증가하였다. 70~74세 연령군에서는 1994

년과 1998년에는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각각 47.1%, 38.1%)이 많았으나, 2004년에는 ‘국가 및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42.8%로 가장 많았고, 2008년에는 다시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54.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7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1994년에는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42.6%로 가장 많았고, 1998년에는 ‘자녀 및 가족’이 44.2%, 2004년에는 ‘국가 및 사회’가 42.9%, 2008년에는 ‘본인 스스로’가 43.5%로 가장 많아 시계열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매 조사마다 나타났다. 한편, 대학이상의 학력집단에서 1998년과 2004년 사이 ‘본인 스스로’가 크게 줄어들고(71.6%→56.4%) ‘국가 및 사회’가 크게 증가하는 것(18.9%→39.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 조사마다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994년에는 ‘본인 스스로’가 41.4%로 가장 많았고, 1998년에는 ‘자녀 및 가족’이 39.3%, 2004년에는 ‘국가 및 사회’가 43.5%, 2008년에는 ‘본인 스스로’가 4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노인의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1994년과 1998년 조사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52.4%, 36.7%로 가장 많았으나, 2004년과 2008년 조사에서는 ‘국가 및 사회’가 44.7%, 43.3%로 가장 많았다. 노인부부가구에서는 4개 조사에서 모두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많은 가운데,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10.5%포인트 크게 증가하였다. 자녀동거가구에서는 1994년 ‘본인 스스로’가 41.6%로 가장 많다가 1998년에는 ‘자녀 및 가족’(38.4%)이, 2004년에는 ‘국가 및 사회’(38.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으로서 노인독거가구는 국가나 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부부가구에서는 근로 등의 소득활동을 통해 스스로 마련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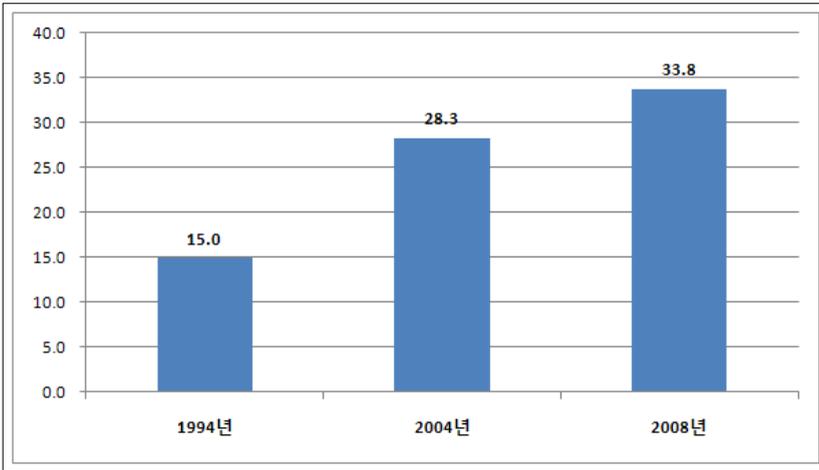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자립할 수 있는 경우 ‘본인 스스로’의 응답률이 1994년 56.2%, 1998년 46.4%, 2004년 42.1%, 2008년 55.9%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가 제한된 경우, 1998년 조사에서는 ‘자녀 및 가족’의 응답률이 다소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는 ‘국가 및 사회’의 응답률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대책 마련 여부를 비교해 보았다. 노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1994년의 경우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축, 주택소유, 보험이나 연금가입, 건강유지 증진노력별로 준비 여부를 조사하였다. 2004년에는 “65세 이전에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는 질문의 하위질문으로 경제적 준비를 한 경우, 공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을 위한 부동산 구입, 저축에 대한 준비 여부를 조사하였다. 2008년에는 “노후생활에 대해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또는 준비하고 계십니까?”의 질문과 “노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마련하셨습니까?)”의 선택지로 적금 및 예금, 주식 및 채권, 부동산 투자, 계돈, 일을 통한 소득, 개인연금, 사보험, 퇴직금, 자녀의 경제적 도움, 공적연금, 유산에 대한 마련 여부를 조사하였다.

노후대책 준비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2004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는 “65세 이전에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와 “노후생활에 대해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또는 준비하고 계십니까?”의 결과를 택하였고, 1994년에는 선택 유형 중 하나라도 준비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준비함’으로 인정하였다. 각 조사별로 노후 대책 준비 여부를 비교한 결과, 1994년에는 15.0%에 불과하던 준비율이 2008년 33.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6] 노후 대책 마련 여부 변화



지역별로는 1994년에는 동부의 노후 대책 준비율이 읍면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2004년에는 읍면부가, 2008년에는 동부가 다소 높은 정도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각 조사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준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1994년에서 2004년 사이 준비율이 23.1%에서 41.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향이 조사되었고, 특히 65~69세 연령에서 1994년과 2004년 사이 노후 대책 준비율이 17.3%에서 41.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 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고, 중·고등학교 집단과 대학이상 집단에서 1994년과 2004년 사이 노후 대책 준비율이 각각 16.9%포인트, 50.9%포인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후대책 준비율이 1994년 22.1%, 2004년 39.1%, 2008년 39.5%로 증가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4년 8.4%, 2004년 14.2%, 2008년 23.4%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8〉 응답자 특성별 노후 대책 마련 여부

(단위: %)

	1994년		2004년		2008년	
	준비함	준비 안 함	준비함	준비 안 함	준비함	준비 안 함
전체	15.0	85.0	28.3	71.7	33.8	66.2
지역						
동부	15.9	84.1	27.8	72.2	35.2	64.8
읍·면부	13.7	86.3	29.2	70.8	31.1	68.9
성						
남자	23.1	76.9	41.4	58.6	42.7	57.3
여자	9.8	90.2	20.0	80.0	27.8	72.2
연령						
65~69세	17.3	82.7	41.0	59.0	40.3	59.7
70~74세	13.3	86.7	26.8	73.2	34.0	66.0
75세 이상	13.1	86.9	12.8	87.2	26.3	73.7
교육수준						
무학	10.4	89.6	12.3	87.7	21.0	79.0
초등학교	20.8	79.2	27.5	72.5	31.8	68.2
중·고등학교	29.6	70.4	46.5	53.5	46.2	53.8
대학 이상	23.7	76.3	74.6	25.4	67.2	32.8
결혼상태						
유배우	22.1	77.9	39.1	60.9	39.5	60.5
무배우	8.4	91.6	14.2	85.8	23.4	76.6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9.7	90.3	16.0	84.0	27.9	72.1
노인부부가구	23.2	76.8	41.3	58.7	40.9	59.1
자녀동거가구	12.5	87.5	23.5	76.5	27.1	72.9
기타가구	12.1	87.9	24.7	75.3	27.9	72.1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20.2	79.8	54.8	45.2	78.3	21.7
보통	17.0	83.0	35.0	65.0	43.3	56.7
나쁨	10.9	89.1	17.0	83.0	18.5	81.5
기능상태						
완전자립	18.3	81.7	30.9	69.1	36.9	63.1
iadl 제한	10.7	89.3	10.5	89.5	22.3	77.7
adl 제한	11.4	88.6	15.2	84.8	24.3	75.7

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노후대책 준비율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시계열적으로는 1994년 23.2%, 2004년 41.3%, 2008년 40.9%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각 조사년도 별로 다른 가구 유형의 준비율

에 2배 조금 못미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이다.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경제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노후대책 준비율이 1994년 20.2%에서 2004년 54.8%, 2008년 78.3%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시스템의 정비, 사적 연금 시장의 확대 등 사회적인 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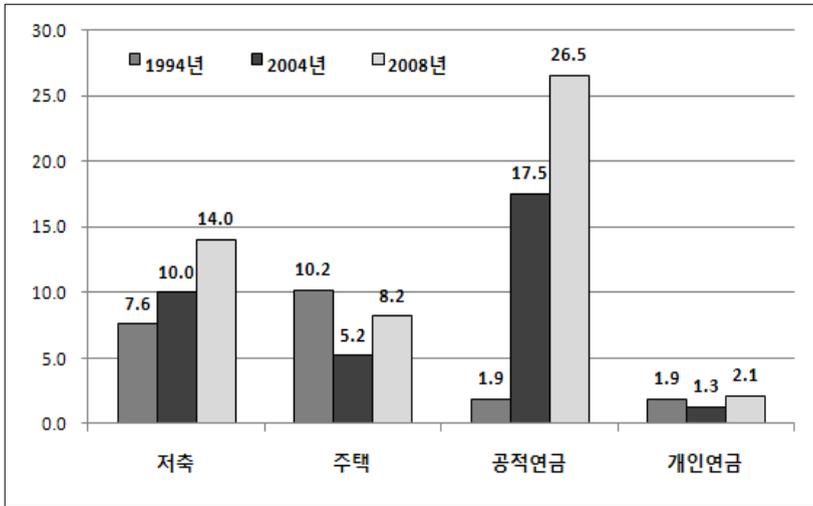
한편, 노후 대책 유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4년과 2004년 조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저축, 주택, 공적연금, 개인연금을 선택하였다. 다만, 1994년에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통합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연금’으로 조사된 항목을 취하였다.

한편, 2004년에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위 질문으로 노후 대책 방법을 질의하였으나 1994년과 2004년에는 조사대상 노인 전체에게 질문되었기 때문에 2004년의 결과값 역시 전체 조사대상 노인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2004년 조사는 ‘65세 이전’의 노후대책 경험을 질의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994년과 2008년 조사에서는 과거 혹은 현재 노후준비 대책 마련 여부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건을 가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로 활용할 것을 밝혀둔다.

노후대책으로 저축하고 있는 경우는 1994년 7.6%에서 2004년 10.0%, 2008년 14.0%로 증가하였다. 주택의 경우에는 1994년 10.2%였다가 2004년 절반 수준인 5.2%로 줄어들었으며 2008년 다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1994년 1.9%였던 것에서 2004년 17.5%, 2008년 26.5%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개인연금은 2004년 1.3%였던 것에서 2008년 2.1%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sup>

5) 개인연금의 경우 1994년의 결과값에 1.9%가 제시되어 있으나 1994년 조사가 ‘보험이나 연금가입’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연금’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1994년의 사회적 환경은 개인연금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더

[그림 6-7] 노후 대책 유형별 준비 여부



주: 1994년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은 두 개념이 혼합된 '연금'의 결과값임.

지역별로는 저축, 주택, 개인연금의 각 노후대책에 대해 읍면부에 비해 동부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공적연금에서 2004년과 2008년 읍면부의 준비율이 동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각 노후대책 유형별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준비율이 높았고, 시계열적으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증가율이 큰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집단별로도 나타났다는데, 각 조사년도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대책 유형별 준비율이 증가하였고, 시계열적으로도 젊은 연령층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연령 코호트별로는 1910~1919년생의 경우, 저축, 주택의 준비율이 각 조사년도별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후 준비보다는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소득보장 방법들을 사용할 연령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된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이상의 학력집단에서 각 노후대책 유형별 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수준별 집

육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에서는 1994년에 비해 2008년 준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대학이상의 집단에서만 10.8%에서 1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각 노후대책 유형별 준비율이 높았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에는 노후대비 저축 마련과 공적연금에 각각 1994년 3.8%, 0.5%에서 2008년 10.5%, 2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저축, 주택마련이 각각 1994년 13.7%, 11.5%에서 2004년 32.6%, 29.2%로 크게 증가하였고, 개인연금 마련 또한 2008년 5.1%로 평균(2.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6-9〉 응답자 특성에 따른 노후 대책 유형별 준비 여부

(단위: %)

	저축			주택			공적연금			개인연금		
	1994	2004	2008	1994	2004	2008	1994	2004	2008	1994	2004	2008
전체	7.6	10.0	14.0	10.2	5.2	8.2	1.9	17.5	26.5	1.9	1.3	2.1
지역												
동부	8.7	10.5	14.3	10.3	6.4	10.0	2.1	16.0	24.6	2.1	1.4	2.3
읍·면부	6.2	8.9	13.3	10.0	2.5	4.6	1.6	20.8	30.0	1.6	0.9	1.8
성												
남자	12.8	14.9	17.2	16.0	7.6	11.1	3.0	27.5	29.8	3.0	2.0	2.9
여자	4.4	7.0	11.9	6.4	3.7	6.2	1.2	11.4	24.2	1.2	0.7	1.6
연령												
65~69세	8.5	13.3	16.9	12.2	7.5	10.3	2.5	29.4	28.3	2.5	2.3	3.2
70~74세	6.9	10.1	14.7	9.5	4.5	8.5	2.1	18.0	25.7	2.1	1.1	2.2
75세 이상	6.7	6.3	10.2	7.6	3.1	5.4	0.6	3.8	25.1	0.6	0.1	0.8
출생년도												
1930-1934년	9.4	9.9	11.7	13.5	4.7	7.2	5.9	18.8	25.9	5.9	1.2	1.4
1920-1929년	8.0	7.2	9.6	11.1	2.6	4.7	2.2	5.2	23.7	2.2	0.1	0.5
1910-1919년	6.7	4.3	4.6	8.4	4.8	2.0	0.7	0.0	23.5	0.7	0.0	0.5
교육수준												
무학	4.4	3.0	8.2	7.5	1.8	3.0	0.9	7.2	24.3	0.9	0.2	0.7
초등학교	10.4	9.6	14.0	13.3	4.2	7.4	2.3	17.2	25.3	2.3	1.6	2.0
중·고등학교	19.6	18.1	20.1	21.5	11.0	14.6	5.6	29.4	27.3	5.6	2.0	3.8
대학 이상	18.9	34.2	22.1	10.8	14.7	16.9	10.5	52.7	40.5	10.5	4.3	4.7
결혼상태												
유배우	11.7	13.8	16.5	16.0	7.2	10.5	3.3	27.0	27.3	3.3	1.6	2.6
무배우	3.8	5.5	9.5	4.7	2.6	4.0	0.6	6.2	25.0	0.6	0.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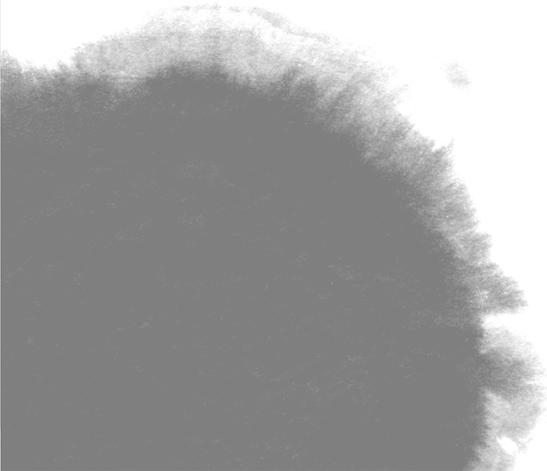
〈표 6-9〉 계속

	저축			주택			공적연금			개인연금		
	1994	2004	2008	1994	2004	2008	1994	2004	2008	1994	2004	2008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3.8	6.8	10.5	6.5	2.7	3.8	0.5	8.9	28.6	0.5	0.9	1.5
노인부부가구	13.3	15.1	17.4	17.9	7.3	10.6	4.3	29.1	28.2	4.3	1.3	2.8
자녀동거가구	6.2	7.2	11.4	7.6	4.7	7.5	1.0	12.8	21.7	1.0	1.3	1.6
기타가구	3.1	10.0	10.5	6.2	4.3	6.4	1.5	11.5	28.0	1.5	1.9	1.3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13.7	27.7	32.6	11.5	12.5	29.2	3.5	34.1	31.9	3.5	0.4	5.1
보통	8.3	13.1	17.3	11.7	8.0	10.9	1.6	23.2	25.7	1.6	1.5	2.4
나쁨	4.4	5.2	8.2	8.2	2.0	2.7	1.3	12.1	25.7	1.3	5.2	1.4
기능상태												
완전자립	10.9	11.7	15.4	11.8	6.0	9.1	3.0	20.7	27.2	3.0	1.5	2.2
iadl 제한	3.7	4.2	9.0	7.4	2.0	4.5	0.9	4.9	25.4	0.9	0.5	1.9
adl 제한	4.0	1.3	9.8	8.8	0.9	6.0	0.5	4.4	22.1	0.5	0.0	1.5



# 07

## 향후 노인세대의 변화 예측 및 노인복지정책 방향





# 제7장 향후 노인세대의 변화 예측 및 노인복지정책 방향

## 제1절 향후 노인세대의 변화 예측

노인의 특성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노인세대의 인구구성이 변화하면서 초래된 현상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노인세대에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인실태조사의 4개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14년간 노인의 삶은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인세대의 변화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현재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흡수되는 시점에서의 노인세대는 지금의 노인세대와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미래의 노인세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본 글에서는 앞서 분석한 지난 14년간의 변화의 경향과 현재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및 가치관<sup>6)</sup> 등을 토대로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 관계의 변화 및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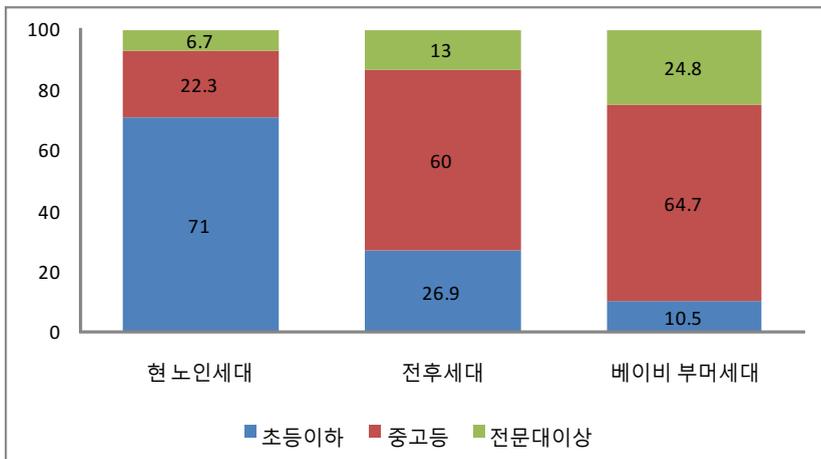
지난 14년간 노인 집단의 급격한 변화의 하나는 교육수준과 가구형태의 변화이다. 14년간 노인의 평균 교육수준은 1994년 2.63년에서 2008년 5.53년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고학력 노인층의 증가는 노인의 인적자

6) 본 장의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은 정경희 외(2010)를 바탕으로 작성됨.

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을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잠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노인세대는 초등이하 학력이 71.0%이며, 중고등이 22.3%, 전문대졸 이상이 6.7%였으나, 전후세대는 73%가 중고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경우 10.5%만이 초등이하의 학력자이고 24.8%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다. 이는 향후 베이비부머가 노인층에 편입될 경우 이들의 욕구는 현 세대 노인과는 달리 다양하고 요구되는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7-1] 현 노인세대와 향후 노인세대간의 교육수준



또한 지난 14년간 노인의 가구형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가족형태로 인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핵가족화가 확대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가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노후의 가구형태는 두 가지 패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노인 부부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노인부부가구형태를 보이지만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였을 때 또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때 자녀동거가구

의 형태를 갖는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 초기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형태에서 자녀동거가구형태로 전이되는 사건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기능약화가 발생한 이후에도 자녀동거로 변화되지 않고 노인독거의 가구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4년간 노인가구의 변화는 노인부부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자녀동거 가구는 점차 감소하는 한편, 노인독신 가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 다소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향후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 노인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전후세대는 노후 동거희망자로 자녀를 응답한 비율은 6.1%이며, 부부끼리 혹은 혼자서가 92.8%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 부부끼리 혼자서가 93.2%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0). 따라서 노인세대의 가구유형은 점차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삶에서 가족과 친인척 등의 비공식적 관계는 경제 및 정서, 도구적 지지를 하는 교환하는 자원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있어 공식적 관계가 감소함으로써 비공식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 14년간 노인의 비공식적 관계는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서 다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대하였다. 3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92.5%에서 87.7%로 감소한 대신 4세대의 비율이 6.0%에서 9.7%로 3.7%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러나 실제 거주형태는 이러한 가용성이 실제의 동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노인 한세대만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 1994년의 42.7%에서, 1998년의 48.0%, 2004년의 57.7%로 증가하는 반면 3세대가 동거하는 비율은 37.7%에서 32.9%, 24.6%로 급감하고 있다. 즉 가용한 세대의 수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세대수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가구형태가 노인 단독세대가 주류로 되면서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인의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줄었다고 그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난 14년간 자녀와의 연계끈과의 접촉 정도에서는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의 가족 등 경제적 교환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에 있어 1994년에는 무교환형이 28.0%, 일방적 수급형이 52.5%, 일방적 제공형이 10.4%, 상호교환형이 9.1%로, 노인의 약 절반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무교환형은 감소하였고 상호교환형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들어오면서 상호교환형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의 변화

노후의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노인들은 지난 14년 동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교육수준의 모든 범주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무학과 전문대이상의 격차는 더 커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또한 한국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자신의 건강을 동년배와 비교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주관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에서도 무학과 전문대 이상인 사람들 간의 격차가 커졌다.

만성질환 유병률 -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 은 지난 1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암의 경우 지난 14년 동안 약 3배 내외의 증가가 나타났다. 1994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높았으나 2008년에는 이러한 추이가 역전되어 무학 혹은 중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전문대학 이상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보통 서구에

서 보여지는 교육수준과 유병률 간의 부적 관계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지난 14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 14년 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완전자립도가 높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완전자립도의 차이는 미미해졌다. 이에 비해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경우 최근에 완전자립도가 증가하였으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비해 여전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완전자립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강하게 존재했다.

한국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향상되고 신체보조용구 등의 이용비율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를 최근으로 올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상태나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를 최근으로 올수록 더 나쁘다고 평가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14년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인 교육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객관적 건강상태 및 기능상태는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건강행태 변화 등으로 더욱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비 노인층인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금연이 증가하여, 금연의 비율이 76.6%이며, 특히 과거 흡연을 하였으나 금연에 성공한 비율이 18.0%에 달한다. 또한 운동을 하는 비율도 68.8%이며, 59.8%의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섭취, 81.6%가 건강검진 수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행태 변화로 인하여 예비노인세대가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 후기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 허약한 기능상태에서 오래 연명을 하는 노인층이 증가될 가능성도 담고 있다. 그리고 노후 건강의 중요성과 관심으로 인해 전체

노인의 건강상태는 향상되더라도,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경제수준 등과 같은 사회적 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강화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 3. 노인의 경제상태 및 사회활동 변화

지난 14년간 노인의 경제상태 변화의 핵심은 소득원의 다양화와 노인의 경제적 자립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과거에 비해 자산소득과 연금소득 소지율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 강화로 인한 공적이전소득 소지 비율의 증가이다. 즉, 기존 노후수입원은 사적이전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중심이었다면, 점차 공적이전소득과 자산소득, 연금소득 소지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원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있다.

노인의 주요 수입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주요수입원인 비율이 노인의 약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즉, 현 노인층의 경우 여전히 자녀 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연금소득이 주요수입원인 비율이 작은 비율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노후의 소득원은 다양화되고 점차 자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노인세대에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 예비노인층인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에서의 노후 소득보장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약 60%는 국민연금(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택연금 활용의사도 21.8%로 나타난다. 즉, 현 노인세대의 자산소득소지비율보다 높은 비율이 주택연금을 통해 자산소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노후소득보장)을 가입한 비율이 21.9%이며, 목돈마련을 하고 있는 경우도 43.3%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인의 경우 지금보다 노후의 수입원은 자립적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주 수입원인 비율이 절반이지만, 향

후 미래 노인세대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소지율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요 수입원의 역할을 할 정도로 이전되는 비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 노인세대의 경우 노후 생활비 마련 방식에 있어 자녀 및 가족에 의한 형태는 3.3%에 그치고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 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노인층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정도는 향상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40%의 경우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노후세대에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향후 노인세대의 경제적 노후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 노인세대의 사회참여는 크게 근로활동과 여가문화활동으로 구분되어진다. 근로활동의 경우 지난 14년간 근로활동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30%내외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 들어 더욱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인의 근로참여율 중 절반가량이 농어업으로 향후 미래 노인세대의 경우 근로참여율은 지금보다 크게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 노인층의 64%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겠다는 일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 노인층의 근로욕구 미충족 현상은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지난 14년간 노인세대의 여가문화활동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교모임은 크게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후의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기여활동이나 평생 교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금의 노인세대보다 생산적인 노후 사회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4. 노인의 노후 가치관 변화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등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다. 예비 노인인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가량은 노후에 건강 및 기능악화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는 비율은 31.9%로 나타났다. 즉, 노후의 건강과 경제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현 노인세대는 자녀세대로부터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자립적 해결방안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치관에서는 더욱더 자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 노인세대는 결혼한 자녀와 노부모의 동거에 대해서는 ‘동거’보다는 ‘별거’가 좋다는 방향으로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노인의 가구형태는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자녀동거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장남’이라는 응답률이 1998년 54.9%, 2004년 57.5%, 2008년 59.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 동거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장남’은 노부모 부양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건강 악화시 선호하는 수발방법은 1994년 자녀에 의존적인 형태에서, 2004년 부부끼리 해결하는 형태로, 2008년에는 시설이나 병원과 같은 요양전문시설을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이 악화되어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의 수발자를 살펴보면 자녀세대에 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바람직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자녀 및 가족’은 1998년 33.5%에서 2004년 18.7%, 2008년 11.8%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가 및 사회’는 1994년 22.4%, 1998년 26.2%, 2004년 40.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에는 ‘국가 및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5.9%포인트),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12.8%포인트)하였다. 그러나 현 노인세대의 주 수입원이 사적이전소득인 비율이 50%가량으로 여전히 자녀세대에 의존적인 노인의 비율이 높다. 즉, 현 노인세대의 노후는 실체는 자녀세대에 의존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은 자립적인 노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미래 노인세대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즉, 노후 생활비 마련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사회보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후 건강악화시 보호는 자녀보다는 배우자와 외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노인세대의 노후는 지금보다는 자립적인 노인이 증가할 것은 분명할 것이다. 특히 건강악화시 보호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해 제도적으로 대부분 해소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자녀세대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는 미래 노인세대인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녀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지는 못하고 스스로 해소할 것을 강요받아 노후에 빈곤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노인세대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 노인계층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노쇠하고 독단적이며,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정경희 외, 2004).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노인의 삶을 분석 해 본 결과 노인세대는 점차 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인이 증가하며, 건강상태도 양호해졌으며, 교육수준도 향상되었다. 또한 적극적 사회참여율이 증가하고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다. 즉, 노인세대는 점차 하나의 단일 특성을 보이기보다는 점차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향후 미래 노인인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가 될 경우 더욱 강화될 것

으로 예측되어진다. 따라서 미래 노인세대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세대의 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다양성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세대는 연령집단(초기노인과 중기, 후기노인), 교육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세대를 세분화하여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향후 노인세대는 지금 노인세대보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상태가 더욱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노인복지정책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중 하나는 노인부와 노인독거가구에 대한 정책이다. 노인세대의 변화 중 가장 급격한 변화는 가구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구형태의 변화는 과거 자녀동거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적 부양과 신체 수발, 정서적 보호 등의 노인 보호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지 않았던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독거노인에 초점이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노인만으로 가구가 구성되면서 일상적인 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후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요구이다. 노후의 경제적 부양은 점차 노인 개인과 사회보험 등을 통해 자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현 노인세대와 같은 자녀세대로부터의 부양은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노후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층에서의 노후 빈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래 노인세대인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중 경제적 노후준비의 여력이 없는 계층의 경우 노년기에 빈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향후 빈곤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불입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구제방안, 빈곤층에 대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빈곤층이 일정수준 저축할

경우 추가 이율 제공 등)을 하도록 정책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층의 연금가입과 불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후에 건강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불평등이 향후 한국사회에 공고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인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재가서비스의 확대, 고혈압·당뇨병·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무료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질병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청력 보조기 및 씹기 보조기의 구입 지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의 노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세대는 점차 고학력자가 증가하면서 인력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환경 개선,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노동참여 활성화는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노인세대는 현 노인층에 비해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할 것이며, 적극적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정책에서는 노후 건강보장 및 소득보장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민간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여가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건강보험관리공단(2009). 2008년 건강보험 주요지표.
- 김경혜(2008). 노인의 유산상속과 사회적 지원. *한국노년학*, 제28권 제2호, pp.309-323.
- 김남진(2000). 예비노인 집단과 노인집단의 건강관심도 및 건강행위, 주관적인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17 No.2, pp.99-110.
- 김두섭, 김정석, 송유진, 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영범(2009). 서울, 춘천지역 중 고령자의 부양책임감 변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 29, No. 4, pp.1413-1425.
- 김정석(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Vol. 25, No. 4, pp.1-11.
- 김정석(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 분석.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pp.1-27.
- 마강래, 윤영호(2009). 고령자의 교통수단 선택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4호, pp.159-171.
- 박장근, 임란희(2007). 현재노인과 예비노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여가의 식 차이. *한국여가학회지*, Vol.8 No.1, pp.1229-6325.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2009). 2007년 암유병률 통계. 2006~2007년 암발생률, 1993~2007년 암발생자의 암생존율.

- 보건복지부(2008).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계명대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 손양민(2010). 밥돈자유: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 북스
- 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 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Vol. 29, No. 2, pp.729-742.
- 윤현숙, 이미진(2006).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노인의 성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 4, 2006. 11, pp.197-217.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숙량(2006). 노인의 기능장애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 한림노녀연구 2003~2005. 한국심리학회 2006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전해숙, 강상경(2009). 노년기 우울계획의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한국노년학, Vol. 29, No. 4, pp.1611-1628.
- 정경희 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5권 제2호, pp.52-68.
- 정경희(1999). 노인과 재산상속.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조성남(1998). 고령화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 질병관리본부(2007). 우리나라 주요 건강 이슈.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2010). 2010년 가계금융조사, 2010년 가계금융조사 보도자료. 2010. 12. 29.
- 통계청(2010). 2009년 사회조사.
- 통계청(2010). 2010년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1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10). KOSIS, 인구·가구.

Bath, P. A.(2003). “Differences between older men and women in the self-rated health-mortality relationship”, *The Gerontologist*, 43, pp.387-395.

Binstock and George(eds.)(2001). *Han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Campbell, K. Marsden, P., and Herber, J.(1986), “Social Resources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s*, Vol.8.

Cantor, M. H.(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Vol.1, pp.435-463.

Ferraro, K. F., & Kelley-Moore, J. A.(2001).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among black and white adults: examining the dynamic evaluation thesi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6B, S195-S205.

Gronovetter(1982).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P. Marsden and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Kadushin, C.(1982). “Social Density and Mental Health”, in Marden and Lin, 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Liang, J.(1986). “Self-reported physical health among aged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2), pp.248-260.

Lin, N.(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in P. Marsden and N. Lin(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CA, Sage, pp.131-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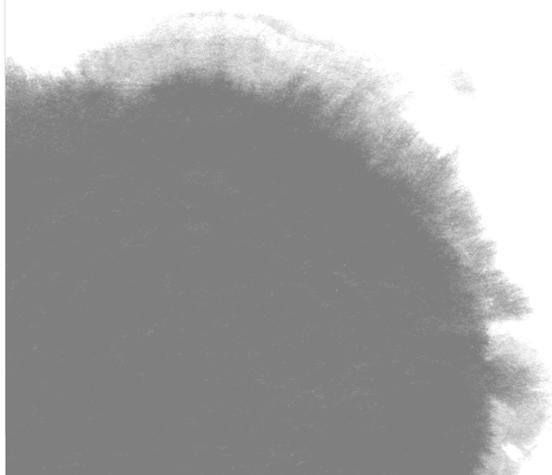
Moren-Cross and Lin(2006). “Social Networks and Health”, in Binstock, R.H. and George, L.(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6th Edition), NY., pp.111-126.

Nunley, B. L., Hall, L. A., & Rowles, G. D.(2000). “Effects of the quality of dyadic relationship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care recipien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6, pp.23-31.

Waller, Al(1985). “From welfare State to Caring Society?: The Promise of Informal Support Networks”, in Yonder J. A. (Ed.), *Support Networks in a Caring Community: Research and Policy, Fact and Fiction*, Pordrecht; Mordrecht;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 록





# 부록

## 부록 1. 각 연도별 전국 노인실태조사 노인조사 공통사항<sup>7)</sup>

### 1. 인적 사항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성별	○			○
연령	○			○
학력	○	○	○	○
혼인상태	○	○	○	○
자녀수		○	○	○
종교	○	○		○
소득	부부 월소득(비율)	가구 월소득(명목)	가구 월소득(비율)	가구 년소득(비율)
주거형태	○	○	○	○

### 2. 생활환경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독방 유무(어르신의 방이 따로 있습니까?)	○		○	
(2) 부엌의 유형	○		○	○
(3) 화장실 유형	○		○	○
(4) 목욕시설 유형	○		○	○
(5) 주거 만족도(생활하기 편리하다고 느끼십니까?)			○	○
(6)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
(7) 외출시 불편한 점			○	○

7) 각 조사연도별 조사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질문 및 선택지의 내용이 약간 다른 경우에는 “△”로 표시함.

### 3. 가족관계

#### 1) 관계 및 연락 정도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자녀와의 동거 여부	○	○	○	○
(2) 동거 자녀 수	○	○	○	
(3)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	△
(4) 비동거 자녀수	○	○	○	○
(5) 비동거 자녀의 결혼상태		○	○	○
(6)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자녀의 형제·자매 순위		○	△	1)
(7)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자녀의 성별		○	○	1)
(8)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자녀의 결혼상태		○	○	1)
(9)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자녀 거주지까지 이동시간		△	△	1)
(10)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자녀와 만남 빈도		△	△	△
(11)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빈도가 높은 자녀와 연락 빈도		△	△	△
(12) 비동거 자녀 전체와 만남 빈도	△	△	△	△
(13) 비동거 자녀 전체와 연락 빈도	△	△	△	△
(14) 부모님의 생존 여부			○	○
(15) 부모님의 건강상태			△	△
(16) 배우자 부모님의 생존 여부			○	○
(17) 배우자 부모님의 건강상태			△	△
(18) (양가)부모님과 만남 빈도	△			
(19) (양가)부모님과 연락 빈도	△			
(20) 생존 손자녀 수	○		○	○
(21) 생존 손자녀와 만남 빈도	△		△	△
(22) 생존 손자녀와 연락 빈도	△		△	△
(23) 생존 형제자매 수	○	○	○	
(24) 생존 형제자매와 만남 빈도	△	△	△	2)
(25) 생존 형제자매와 연락 빈도	△	△	△	2)
(26) 친척 유무			○	○
(27) 친척과 만남 빈도	△	△	△	2)
(28) 친척과 연락 빈도	△	△	△	2)
(29) 친구·이웃 유무(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웃)	○	○	○	3)
(30) 친구·이웃 만남 빈도	△	△	△	△
(31) 친구·이웃 연락 빈도	△	△	△	△

- 주: 1) 연락이 가장 많은 자녀와 왕래가 가장 많은 자녀를 나눠서 조사함.  
 2) 형제자매, 친인척을 포함하여 만남빈도, 연락빈도 측정함.  
 3) 가까운 친구나 이웃의 수를 질문함.

2) 상호 조호 및 부양 정도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b>경제적 부양</b>				
(1) 재산상속 여부	△	△	△	
(2) 향후 재산 상속 시기	△	△	△	
(3) 경제적(금전/물질)인 도움을 받은 경험 유무	△	△	○	△
(4) 주택관련 비용 지출부담 여부	△	△		
(5) 식생활 관련 비용 지출부담 여부	△	△		
(6) 의류 및 생필품 관련 비용 지출부담 여부	△	△		
(7) 보건의료비 관련 비용 지출부담 여부	△	△		
(8) 축의금, 부조 관련 비용 지출부담 여부	△	△		
(9) 여가생활 관련 비용 지출부담 여부	△	△		
(10) 지출에 대한 최고 부담자(본인 외)	△	△		
(11) 지출에 대한 도움의 정도(충분 부족; 5점)	△	△		
(12) 다른사람에게 경제적(금전/물질) 지원 제공여부	○	○	○	△
(13) 경제적(금전/물질) 지원 최고 대상	○	○	○	
<b>간병/수발</b>				
(14) 간병/수발에 대해 도움 받은 경험	△ <sup>1)</sup>		○	△ <sup>2)</sup>
(15) 간병/수발을 해 준 사람	△ <sup>1)</sup>		○	
(16) 간병/수발의 도움의 정도(충분 부족; 5점)	△ <sup>1)</sup>			
(17) 간병/수발을 한 경험	△ <sup>1)</sup>		○	△ <sup>2)</sup>
(18) 간병/수발을 한 사람	△ <sup>1)</sup>		○	
<b>집안일</b>				
(19)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에 대해 도움 받은 경험			○	△ <sup>2)</sup>
(20)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에 도움을 준 사람			○	
(21)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를 도와준 경험			○	△ <sup>2)</sup>
(22)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를 도와준 사람			○	
<b>정서적 부양</b>				
(23) 나의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을 받아준 사람 유무	○	○	○	△ <sup>2)</sup>
(24) 나의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을 받아준 사람 유형	△	△	△	
(25) 나의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의 정도(충분 부족; 5점)	○	○		
(26) 타인의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을 들어준 경험 여부	○	○	○	△ <sup>2)</sup>
(27)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담을 들어준 타인 유형	○	○	○	

주: 1) 간병/수발이라고 질문하지 않고,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잠자리에서 일어나기·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의자에 앉기, 외출, 화장실가서 용변보기(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항목)’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질문함.  
 2) 관계유형별로(함께사는 자녀, 따로사는 자녀, 손자녀,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 상호도움정도를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질문함.

#### 4. 경제환경

##### 1) 경제활동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현재 복직 상태(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	○	○
(2) 현재 복직중인 직업 종류	○	○	○	○
(3) 현재 복직중인 근무 형태			○	○
(4) 현재 복직중인 직업 종사 기간	○	○	○	○
(5) 현재 복직 이유(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6)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5점)			○	○
(7) (현직자 중) 향후 근로 희망 여부	○	○	○	○
(8) 이직 희망 여부			○	○
(9)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	○	△
(10) (무직자 중) 향후 근로 희망 여부	○		○	○
(11) (무직자 중) 향후 근로 희망 직종	○			
(12) (근로 비희망자중) 일하고 싶은 이유			△	△
(13) (근로 비희망자중)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4)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직업의 종류		○		○
(15) 최근 사직 시기			○	○
(16) 최근 사직 이유			△	△
(17) 구직시 우선 조건(중복응답)			△	△

##### 2) 소득(수입)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소득(수입원의 종류	일직업/장남·며느리/그외아들·며느리/딸·사위/미혼자녀/연금·퇴직금/부동산·집세·저축·증권의 이익배당/손자녀·배우자/생활보호·노령수당/기타	근로소득/저축·증권의 이익배당/부동산·집세·자녀로부터의 보조/연금/퇴직금/개인연금/생활보호·노령수당/기타	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개인연금/공적연금/사회보험급여/경로연금/교통수당/친인척보조금/친인척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참전명예수당/기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개인연금/보훈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교통수당/장애수당/장애이동부양수당/경로연금/
(2) 수입원 유형별 소득 유무	○	○	○	○
(3) 수입원 유형별 소득액		○(명목)	○(비율)	○(비율)

2) 생활비, 용돈 및 기타 경제상태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월 용돈		○	○	○
(2)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동년배에 비해 경제적 형편, 5점)	○	○	○	△ <sup>1)</sup>

주: 1) 동년배가 아닌 ‘어르신의 경제적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함.

5. 건강 및 의료 이용

1) 질병 상태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질병분류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중풍·뇌졸중/암/호흡기계질환/결핵/골절. 탈구/관절염·신경통·류마티즘/만성요통/소화기계질환/간질환/백내장	암/관절염/요통, 좌골통/디스크/소화성궤양/만성간염, 간경병증/당뇨병/갑상선질환/고혈압/중풍, 뇌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폐결핵, 결핵/만성기관지염/천식/백내장/만성중이염/만성신장질환/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암/관절염/요통, 좌골통/디스크/신경통/골다공증/소화성궤양/만성간염, 간경병증/당뇨병/갑상선질환/고혈압/저혈압/중풍, 뇌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폐결핵, 결핵/만성기관지염/천식/백내장/늑내장/만성중이염/만성신장질환/빈혈/피부병/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고혈압/뇌졸중(중풍)/고지혈증/협심증, 심근경색증/당뇨병/갑상선질환/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골다공증/요통, 좌골신경통/만성기관지염, 폐기증/천식/폐결핵, 결핵/백내장/늑내장/만성중이염/위암/간암/대장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기타암/위십이지장궤양, 위염/간염/간경변/만성신부전/전립선비대증/요실금/성병/빈혈/피부병/우울증/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2) 각 질병분류별 질병여부	○	○	○	○
(3) 만성질환 개수	○	○	○	○
(4) 의사진단 여부	△	△	○	○
(5) 최초진단시기	○	○		
(6) 현재 치료여부	○	○		○
(7) 일상생활 지장정도	△(3)	△(4)		△(3)
(8) 이용 의료기관			△(최근 3개월)	△(최근 1년 중복응답)

2) 건강기능상태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b>시력</b>				
(1) 시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매우 좋다-아주 나쁘다; 5점)	○	○	○	
(2) 시력 보조기 사용 여부	○	○	○	○
(3) 시력 보조기 착용시(매우 좋다-아주 나쁘다; 5점)	○	○	○	△(4)
<b>청력</b>				
(4) 청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매우 좋다-아주 나쁘다; 5점)	○	○	○	
(5) 청력 보조기 사용 여부	○	○	○	○
(6) 청력 보조기 착용시(매우 좋다-아주 나쁘다; 5점)	○	○	○	△(4)
<b>씹기</b>				
(7) 의치(보조기) 미착용시 상태(매우 좋다-아주 나쁘다; 5점)	○	○	○	
(8) 의치(보조기) 사용 여부	○	○	○	○
(9) 의치(보조기) 착용시(매우 좋다-아주 나쁘다; 5점)	○	○	○	△(4)
<b>신체기능</b>				
(10) 찌구리고 앓거나 무릎꿇기	○(4)			○(4)
(11) 쌀 1말 정도를 들어올리거나 옮기기	○(4)			○(4)
(12)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2~3, 10계단)	○(4)			○(4)
<b>일상생활 수행능력<sup>1)</sup></b>				
(13) 목욕하기	○(4)	○(4)	○(3)	○(3)
(14) 옷 갈아입기	○(4)	○(4)	○(3)	○(3)
(15) 식사하기	○(4)	○(4)	○(3)	○(3)
(16)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눕기	○(4)	○(4)		
(17) 걷기, (밤) 밖에 나가기	○(4)	○(4)	○(3)	○(3)
(18) 화장실 이용하기	○(4)	○(4)	○(3)	○(3)
(19) 소변보기	△ <sup>2)</sup>		○(3)	
(20) 대변보기			○(3)	
(21) 일상생활 수행 조호자 유무	○	○		
(22) 일상생활 수행 조호자 유형	○	○		
(23) 일상생활 수행 조호의 정도(매우 충분-매우 부족; 5점)	○	○		

## 2) 건강기능상태 계속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24) 몸 단장하기			○(3)	○(3)
(25) 가벼운 집안일	○(4)	○(4)	○(3)	○(3)
(26) 식사준비			○(3)	○(3)
(27) 빨래하기			○(3)	○(3)
(28) 전화이용하기	○(4)	○(4)	○(3)	○(3)
(29) 약 챙겨먹기			○(3)	○(3)
(30) 일상생활용품이나 약사러 기기(물건사기)	○(4)	○(4)	○(3)	○(3)
(31) 금전관리			○(3)	○(3)
(32) 근거리 외출하기			○(3)	○(3)
(33) 교통수단 이용하기	○(4)	○(4)	○(3)	○(3)
(34)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조호자 유무	○	○		
(35)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조호자 유형	○	○		
(36)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조호의 정도(매우 충분-매우 부족; 5점)	○	○		
(37) 수단적 및 일반 일상생활 수행 조호자 유무				○
(38) 수단적 및 일반 일상생활 수행 조호자 유형				○

주: 1) 각 년도별로 항목 내용이 같은 것만 정리함(가령, 2004년 조사에서 체위변경하기와 일어나 앉기가 따로 조사되었는데 이것 중 어떤 것을 94년과 98년에 조사된 항목 중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높기'에 분류할 지 판단할 수 없어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함)

## 3) 기타 건강관련 사항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건강식품 복용 여부			○	○
(2) 건강식품 종류별(처방약, 비처방약, 한약, 기타건강 보조식품) 복용 여부			○	○
(3) 주관적인 건강 상태 평가 (동년배에 비해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5점)	○	○	○	○

## 6.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가장 즐거움을 느낀 활동 (중복응답)			△	△
(2) 단체활동유형	정치활동/종교활동/학습활동/사교모임	종교단체/사교단체/문화활동단체/운동단체/봉사활동단체/기타	종교단체/문화활동단체/운동단체/사교단체/정치단체, 직능단체	친목단체/종교단체/문화활동단체/스포츠레저단체/시민단체, 사회단체/이익단체, 정치단체/봉사단체/학습단체
(3) 단체활동 참여(가입) 여부				
(4) 단체활동 참여빈도	△	△	△	△
(5) 단체활동 만족도		△ <sup>1)</sup>	△ <sup>1)</sup>	○(5)
(6) 평생교육 참여 의향		△ <sup>2)</sup>	△ <sup>3)</sup>	△ <sup>2)</sup>
(7)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sup>2)</sup>	△ <sup>3)</sup>	△ <sup>2)</sup>
(8) 자원봉사 경험 유무			○	○
(9) 향후 자원봉사 희망 여부			○	○
(10)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 영역			△	△
(11) 인터넷 이용 여부			○	○

주: 1) 각 단체활동별 만족도(5점)를 측정함(08년은 단체활동 전체에 대해 질문함).

2) 전체 조사대상자에 질문함

3) 평생교육 비 참여자에게 질문함.

## 7. 노인복지서비스 및 정책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노인복지 서비스 종류	버스승차권 지급/철도50%할인/공원·농원 무료입장/노령수당/노인공동작업장/노인능력은행/고령자 취업알선/무료건강진단제도/경로식당/가정봉사원제도·재가복지봉사센터/노인전문병원/노인정/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종합)복지관/무도·재가복지봉사센터/노인전문병원/노인정/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무료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주택상속 공제/상속세 인적공제/생활보호/의료보호  노인촌·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선 인지여부 질문 별도 있음)	노령수당제도/노인공동작업장/고령자 취업알선센터/고령자 인개은행/경로식당/노인전문병원/보건(지)소/노인정/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종합)복지관/무도·재가복지봉사센터/노인전문병원/노인정/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종합)복지관/무도·재가복지봉사센터/노인전문병원/노인정/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무료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요양시설/유료양로시설·요양시설/주택양로시설/상속세 면제/상속세 인적 공제 (따로 질문*) 가족봉사원과견제도/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경로연금제도/노인공동작업장/고령자 취업알선센터/노인력지원기관/고령자취업우선업종선정/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단기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치매상담센터/가사지원서비스/경로식당·무료급식/노인식사배달/가정(방문)간호서비스/보장구대여/노인대학·노인학교·노인교실/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노인교통요금할인/노인우대할인제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요양시설(장기간)/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경로당/노인종합복지관/노인교실/노인휴양소/치매상담센터/노인학대예방센터/무료급식서비스/도시락배달서비스/보장구대여/독거노인생활관리사/노인자원봉사 지원서비스 (따로 질문)기초노령연금/노인일자리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돌봄미비우체서비스/
(2) 서비스 종류별 인지여부	○	○	○	○
(3) 서비스 종류별 이용경험	○	○	○	○
(4) 서비스 종류별 향후 이용 의사		○	○	○
(5) 만족도		○(3)		

주: \* '따로 질문' 항목은 인지여부, 이용경험, 만족도(도움정도), 비용 이용 등 상세질문이 같이 된 경우임

## 8. 노후생활인식 및 태도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1) 향후 거주형태(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가?)	△	△ <sup>1)</sup>	△ <sup>1)</sup>	△ <sup>2)</sup>
(2) 현재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			○(5)	○(5)
(3)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견	○			
(4) 노후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의향있는가?		★		
(5) 부부만 살고 싶은 이유	△			
(6)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	△			
(7)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			△	△
(8) 노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람		△(★)		△
(9) 결혼한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	
(10) 수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	△
(11) 대접받기 위해 재산이 필요한가	○	★	△	
(12) 향후 희망 거주(주거) 유형(어느곳에서 생활하기 원하는가?)	△	△		
(13)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	△(★)	△(★)	△
(14) 노후 준비(대책)				
저축	○	★	△(★)	△
주택소유	○	★	△(★)	△
(공적)보험/연금		★	△(★)	△
(사적)보험/연금	○	★	△(★)	△
건강유지 증진노력	○			
주식 채권/ 계돈/일통한 소득/퇴직금/자녀도움/유산				△
(15)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		△	△
(16)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계기	△		△	
(17) 삶의 만족도				
주거상태	△(4)			
주위환경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	△(4)			
경제상태	△(4)		△(5)	
직업	△(4)			
배우자	△(4)		△(5)	
자녀	△(4)		△(5)	
친구	△(4)			
전반적인 생활	△(4)			△(5)
건강상태			△(5)	

주: ★ 가구주에게 질문함

1)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조사함.

2)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로 질문함.

## 부록 2. 부표

〈부표 1〉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목록하기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도움
	자립	필요	자립	필요	자립	필요	자립	필요
전체	78.1	21.9	81.7	18.3	93.5	6.5	91.0	9.0
지역								
동부	78.2	21.8	81.9	18.1	93.5	6.5	90.7	9.3
읍·면부	78.0	22.0	81.3	18.8	93.5	6.5	91.6	8.4
성								
남자	83.4	16.6	86.9	13.1	94.3	5.7	91.6	8.4
여자	74.7	25.3	78.6	21.4	93.0	7.0	90.5	9.5
연령								
65~69세	88.7	11.4	89.6	10.4	97.6	2.4	95.2	4.8
70~74세	81.9	18.1	82.4	17.6	96.7	3.4	93.3	6.7
75~79세	73.5	26.5	78.1	21.9	92.0	8.0	89.0	11.0
80세 이상	39.8	60.2	63.4	36.6	80.1	19.9	79.0	21.0
출생년도								
1909년 이하	27.7	72.3	41.4	58.7	77.9	22.1	0.0	100.0
1910~1919년	64.3	35.7	68.5	31.5	72.7	27.3	60.9	39.1
1920~1929년	85.8	14.2	82.4	17.6	89.9	10.1	92.5	17.5
1930~1934년	93.9	6.1	91.1	8.9	96.9	3.1	90.0	10.0
1935~1939년	-	-	-	-	97.5	2.5	93.8	6.2
교육수준								
무학	74.0	26.0	75.8	24.2	90.4	9.6	87.2	12.8
초등학교	85.3	14.7	87.6	12.4	95.7	4.3	92.8	7.2
중고등학교	82.0	18.1	87.6	12.4	95.7	4.3	92.4	7.6
전문대이상	94.2	5.8	95.5	4.5	95.6	4.5	94.8	5.2
결혼상태								
유배우	83.0	17.0	87.3	12.7	94.8	5.2	92.3	7.7
무배우	73.6	26.4	76.2	23.8	92.1	7.9	88.6	11.4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76.5	23.5	81.5	18.5	98.5	1.5	92.4	7.6
노인부부가구	83.9	16.1	87.9	12.1	94.6	5.4	92.6	7.5
자녀동거가구	75.9	24.1	77.9	22.1	90.0	10.0	88.9	11.1
기타가구	75.9	24.1	84.5	15.5	92.7	7.3	83.2	16.8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91.9	8.1	89.5	10.5	98.5	1.5	92.5	7.6
보통	81.9	18.1	85.8	14.2	97.1	2.9	93.4	6.6
나쁨	77.7	22.3	81.9	18.1	96.9	3.1	88.7	11.4

〈부표 2〉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옷 갈아입기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88.7	11.3	89.5	10.5	96.3	3.7	95.5	4.5
지역								
동부	89.7	10.3	90.1	9.9	96.2	3.8	95.0	5.1
읍·면부	87.4	12.6	88.5	11.6	96.5	3.5	96.5	3.5
성								
남자	90.3	9.7	90.5	9.5	96.0	4.0	94.5	5.5
여자	87.7	12.3	88.9	11.1	96.4	3.6	96.1	3.9
연령								
65~69세	95.5	4.5	94.2	5.8	98.5	1.5	97.8	2.2
70~74세	92.1	7.9	89.4	10.6	97.9	2.1	96.2	3.8
75~79세	83.2	16.8	87.9	12.1	96.2	3.8	95.0	5.1
80세 이상	65.2	34.8	78.9	21.1	88.3	11.7	89.3	10.7
출생년도								
1909년 이하	58.0	42.0	57.7	42.3	77.9	22.1	88.2	11.8
1910~1919년	78.4	21.6	83.6	16.4	85.7	14.3	77.1	22.9
1920~1929년	94.1	5.9	89.5	10.5	94.3	5.7	91.6	8.4
1930~1934년	96.8	3.2	95.3	4.7	98.3	1.7	95.1	4.9
1935~1939년	-	-	-	-	98.2	1.8	96.7	3.3
교육수준								
무학	86.7	13.3	86.1	13.9	94.5	5.5	94.6	5.4
초등학교	92.4	7.6	93.7	6.3	97.6	2.4	96.0	4.0
중고등학교	91.5	8.5	91.1	8.9	97.3	2.7	95.6	4.4
전문대이상	92.6	7.4	96.8	3.2	97.5	2.5	96.9	3.1
결혼상태								
유배우	89.7	10.3	91.4	8.6	96.8	3.2	95.5	4.5
무배우	87.7	12.3	87.6	12.4	95.7	4.4	95.4	4.6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92.3	7.7	91.0	9.1	99.5	0.5	97.9	2.1
노인부부가구	89.7	10.3	91.8	8.2	96.9	3.1	96.0	4.0
자녀동거가구	86.7	13.3	87.3	12.7	94.2	5.8	93.8	6.3
기타가구	95.2	4.8	92.4	7.6	95.3	4.7	91.0	9.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96.2	3.8	95.7	4.3	99.5	0.5	94.5	5.5
보통	91.6	8.4	93.5	6.5	99.0	1.0	97.0	3.0
나쁨	90.6	9.4	89.9	10.1	98.5	1.5	94.5	5.5

〈부표 3〉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식사하기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93.3	6.8	94.1	5.9	98.1	1.9	97.2	2.8
지역								
동부	93.0	7.0	94.2	5.8	98.3	1.7	96.9	3.1
읍·면부	93.6	6.4	93.9	6.1	97.6	2.4	97.6	2.4
성								
남자	93.7	6.3	94.8	5.2	98.3	1.7	97.0	3.0
여자	93.0	7.1	93.7	6.4	98.0	2.0	97.3	2.8
연령								
65~69세	96.7	3.3	97.0	3.0	99.3	0.7	98.7	1.3
70~74세	96.0	4.1	94.0	6.0	99.0	1.0	97.7	2.3
75~79세	87.8	12.2	93.6	6.4	98.9	1.1	97.0	3.0
80세 이상	82.6	17.4	87.0	13.0	92.7	7.3	92.7	7.3
출생년도								
1909년 이하	78.7	21.3	65.6	34.4	92.2	7.8	45.4	54.6
1910~1919년	86.8	13.3	91.7	8.4	90.0	10.0	85.9	14.1
1920~1929년	96.4	3.6	94.3	5.7	97.4	2.6	94.0	6.0
1930~1934년	98.2	1.8	97.2	2.8	99.1	0.9	97.6	2.5
1935~1939년	-	-	-	-	99.3	0.7	97.8	2.2
교육수준								
무학	91.8	8.2	92.0	8.0	96.6	3.4	96.0	4.0
초등학교	96.2	3.8	97.0	3.1	99.0	1.0	97.7	2.3
중고등학교	95.9	4.1	95.2	4.8	99.0	1.0	97.6	2.4
전문대이상	92.6	7.4	97.3	2.7	99.2	0.8	98.6	1.4
결혼상태								
유배우	93.8	6.2	95.5	4.5	98.5	1.5	97.4	2.6
무배우	92.7	7.3	92.7	7.3	97.6	2.4	96.7	3.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94.1	5.9	94.4	5.6	99.8	0.2	98.3	1.7
노인부부가구	93.8	6.2	95.6	4.4	98.3	1.7	97.4	2.6
자녀동거가구	92.3	7.7	93.0	7.0	97.1	2.9	96.4	3.6
기타가구	98.9	1.1	95.0	5.0	97.3	2.7	94.5	5.5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98.6	1.5	97.8	2.2	100.0	0.0	97.1	2.9
보통	95.6	4.5	97.1	2.9	99.3	0.8	98.3	1.7
나쁨	94.1	5.9	94.4	5.7	99.7	0.3	96.4	3.6

〈부표 4〉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걷기·방 밖으로 나가기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69.6	30.4	71.5	28.5	97.8	2.2	97.3	2.7
지역								
동부	70.6	29.5	72.9	27.1	97.8	2.2	96.9	3.1
읍·면부	68.4	31.6	69.2	30.8	97.8	2.2	98.1	1.9
성								
남자	77.6	22.4	80.1	19.9	98.3	1.7	97.5	2.5
여자	64.6	35.4	66.6	33.5	97.5	2.6	97.2	2.8
연령								
65~69세	82.7	17.3	78.3	21.7	99.3	0.7	98.9	1.1
70~74세	73.0	27.0	71.1	29.0	99.1	0.9	97.8	2.2
75~79세	60.5	39.5	68.8	31.2	97.6	2.4	97.2	2.8
80세 이상	29.6	70.4	57.8	42.2	92.0	8.0	92.9	7.1
출생년도								
1909년 이하	17.1	82.9	40.0	60.0	92.2	7.8	100.0	0.0
1910~1919년	52.4	47.6	62.7	37.3	88.9	11.1	82.0	18.0
1920~1929년	78.7	21.3	70.9	29.1	96.5	3.5	94.7	5.3
1930~1934년	88.9	11.1	80.4	19.6	99.1	0.9	97.1	2.9
1935~1939년	-	-	-	-	99.4	0.6	98.3	1.7
교육수준								
무학	64.2	35.8	64.0	36.0	96.4	3.6	96.3	3.8
초등학교	78.9	21.1	78.5	21.5	98.7	1.3	97.8	2.2
중고등학교	75.3	24.7	79.7	20.3	98.4	1.6	97.8	2.2
전문대이상	92.6	7.4	90.7	9.3	99.6	0.4	98.5	1.5
결혼상태								
유배우	76.4	23.6	77.5	22.5	98.7	1.4	97.6	2.4
무배우	63.4	36.7	65.7	34.3	96.7	3.3	96.8	3.2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69.8	30.2	66.0	34.0	99.2	0.8	98.3	1.7
노인부부가구	75.3	24.7	76.4	23.7	98.6	1.4	98.0	2.0
자녀동거가구	67.1	32.9	70.4	29.6	96.4	3.6	96.2	3.8
기타가구	65.6	34.4	74.8	25.2	97.3	2.7	94.0	6.0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83.0	17.0	78.7	21.3	99.5	0.5	97.5	2.5
보통	72.8	27.2	75.4	24.6	99.1	1.0	98.2	1.8
나쁨	69.2	30.8	69.9	30.1	99.5	0.5	96.6	3.4

〈부표 5〉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s) 변화: 화장실 이용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87.5	12.5	84.4	15.7	97.5	2.5	97.3	2.7
지역								
동부	89.0	11.0	86.1	13.9	97.6	2.4	97.0	3.0
읍·면부	85.4	14.6	81.3	18.7	97.4	2.6	97.8	2.2
성								
남자	89.3	10.7	87.9	12.1	98.1	1.9	97.4	2.7
여자	86.3	13.7	82.3	17.7	97.2	2.9	97.3	2.8
연령								
65~69세	94.8	5.2	89.7	10.3	99.1	0.9	98.9	1.1
70~74세	90.8	9.3	84.6	15.4	99.0	1.0	97.9	2.1
75~79세	81.8	18.2	80.6	19.4	97.7	2.3	97.1	2.9
80세 이상	62.6	37.4	74.1	25.9	91.0	9.0	92.7	7.3
출생년도								
1909년 이하	51.5	48.5	53.7	46.3	92.2	7.8	45.4	54.6
1910~1919년	77.3	22.7	78.4	21.6	88.3	11.7	81.6	18.4
1920~1929년	93.1	6.9	83.9	16.1	96.2	3.8	94.7	5.3
1930~1934년	96.1	4.0	91.0	9.0	99.0	1.0	97.4	2.6
1935~1939년	-	-	-	-	99.0	1.0	97.9	2.1
교육수준								
무학	84.1	15.9	79.0	21.0	96.0	4.0	96.2	3.9
초등학교	93.9	6.1	90.1	9.9	98.5	1.5	97.6	2.4
중고등학교	92.1	7.9	89.3	10.7	98.2	1.8	97.9	2.1
전문대이상	92.6	7.4	95.0	5.0	99.6	0.4	98.8	1.2
결혼상태								
유배우	89.4	10.6	88.0	12.0	98.4	1.6	97.6	2.5
무배우	85.7	14.4	80.8	19.2	96.4	3.7	96.8	3.2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89.7	10.3	82.8	17.2	99.1	0.9	98.6	1.4
노인부부가구	89.5	10.6	87.1	12.9	98.6	1.4	97.7	2.3
자녀동거가구	85.4	14.6	82.9	17.1	95.9	4.1	96.2	3.8
기타가구	93.3	6.7	87.8	12.2	96.3	3.7	94.1	5.9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94.1	5.9	91.3	8.7	99.7	0.3	98.0	2.0
보통	91.4	8.6	88.3	11.7	99.3	0.7	98.2	1.8
나쁨	87.8	12.2	84.3	15.7	99.4	0.6	96.6	3.4

〈부표 6〉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집안일하기

(단위: 명,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74.6	25.4	71.5	28.5	91.0	9.0	87.5	12.5
지역								
동부	75.2	24.8	72.2	27.8	90.9	9.2	86.8	13.2
읍·면부	73.8	26.2	70.4	29.6	91.2	8.8	89.0	11.0
성								
남자	82.4	17.6	82.4	17.6	92.1	7.9	87.9	12.1
여자	69.7	30.4	65.2	34.8	90.3	9.7	87.3	12.7
연령								
65~69세	87.2	12.8	80.7	19.3	96.3	3.7	93.9	6.1
70~74세	81.8	18.2	73.3	26.7	95.4	4.7	90.6	9.4
75~79세	62.2	37.8	65.2	34.8	89.1	10.9	84.2	15.8
80세 이상	31.7	68.3	51.2	48.8	72.8	27.2	70.8	29.2
출생년도								
1909년 이하	16.5	83.5	32.2	67.8	56.6	43.4	0.0	100.0
1910~1919년	54.6	45.4	55.5	44.5	61.9	38.1	50.6	49.4
1920~1929년	84.9	15.1	71.8	28.2	86.6	13.4	75.0	25.0
1930~1934년	92.7	7.3	83.4	16.6	95.6	4.4	85.5	14.6
1935~1939년	-	-	-	-	96.2	3.8	91.7	8.3
교육수준								
무학	70.0	30.0	62.8	37.3	85.9	14.1	82.7	17.3
초등학교	82.0	18.0	79.2	20.8	94.1	5.9	89.5	10.5
중고등학교	80.6	19.4	82.5	17.6	94.7	5.3	89.7	10.3
전문대이상	94.2	5.8	93.2	6.8	95.2	4.8	93.4	6.6
결혼상태								
유배우	81.7	18.3	79.2	20.8	93.1	7.0	89.5	10.5
무배우	68.1	31.9	64.1	36.0	88.6	11.5	84.0	16.0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75.3	24.7	70.0	30.0	96.9	3.1	91.8	8.3
노인부부가구	81.7	18.3	79.4	20.7	92.9	7.1	90.2	9.8
자녀동거가구	70.6	29.4	67.7	32.3	86.8	13.2	82.1	17.9
기타가구	77.6	22.4	70.4	29.6	86.4	13.6	77.4	22.6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85.5	14.5	82.2	17.9	96.5	3.5	89.8	10.2
보통	80.0	20.0	77.6	22.4	95.8	4.2	89.6	10.4
나쁨	74.7	25.3	69.2	30.9	94.9	5.1	85.6	14.4

〈부표 7〉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전화 이용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65.9	34.2	76.5	23.5	86.6	13.4	86.3	13.7
지역								
동부	74.2	25.8	79.5	20.5	87.6	12.4	87.7	12.4
읍·면부	55.1	44.9	71.4	28.6	84.5	15.5	83.8	16.2
성								
남자	80.5	19.5	87.5	12.5	93.1	6.9	91.9	8.1
여자	56.6	43.4	70.1	29.9	82.6	17.4	82.6	17.4
연령								
65~69세	83.3	16.7	92.3	7.7	95.6	4.4	95.2	4.8
70~74세	67.8	32.2	79.0	21.0	92.9	7.1	89.9	10.1
75~79세	51.5	48.5	64.8	35.2	84.5	15.5	82.6	17.4
80세 이상	21.9	78.1	43.9	56.1	56.9	43.1	63.2	36.8
출생년도								
1909년 이하	7.3	92.7	19.0	81.0	29.5	70.5	0.0	100.0
1910~1919년	44.1	55.9	50.9	49.2	37.6	62.4	39.9	60.1
1920~1929년	76.8	23.2	77.9	22.1	80.2	19.8	68.3	31.7
1930~1934년	90.1	9.9	93.2	6.8	93.0	7.0	84.6	15.4
1935~1939년	-	-	-	-	95.8	4.2	91.2	8.8
교육수준								
무학	51.8	48.2	62.2	37.9	72.7	27.3	72.8	27.2
초등학교	88.5	11.5	92.4	7.7	95.1	4.9	91.3	8.7
중고등학교	96.3	3.7	91.6	8.4	97.1	2.9	94.8	5.2
전문대이상	92.6	7.4	96.8	3.2	97.7	2.3	96.9	3.1
결혼상태								
유배우	78.2	21.8	87.5	12.5	93.1	6.9	90.9	9.1
무배우	54.5	45.5	65.8	34.2	78.9	21.1	78.1	21.9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62.7	37.3	80.8	19.2	90.1	9.9	84.3	15.7
노인부부가구	79.5	20.6	87.7	12.3	93.2	6.8	91.8	8.2
자녀동거가구	59.4	40.6	68.7	31.3	79.7	20.3	81.5	18.5
기타가구	71.8	28.2	74.2	25.8	81.7	18.3	71.8	28.3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82.2	17.8	84.1	16.0	95.5	4.5	91.1	9.0
보통	72.3	27.7	81.6	18.4	94.1	5.9	88.8	11.3
나쁨	64.2	35.7	77.0	23.0	89.5	10.5	83.7	16.3

〈부표 8〉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물건 사기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71.4	28.6	68.3	31.7	92.3	7.7	87.4	12.6
지역								
동부	77.1	22.9	70.5	29.5	92.0	8.0	87.9	12.1
읍·면부	64.1	35.9	64.6	35.4	93.0	7.0	86.6	13.4
성								
남자	80.4	19.6	78.3	21.7	94.9	5.1	90.2	9.8
여자	65.8	34.3	62.6	37.4	90.7	9.3	85.6	14.4
연령								
65~69세	85.3	14.8	78.7	21.3	97.5	2.5	94.0	6.0
70~74세	75.2	24.8	70.7	29.3	96.3	3.7	91.7	8.3
75~79세	65.2	34.8	61.1	38.9	93.0	7.0	84.2	15.8
80세 이상	24.4	75.6	44.9	55.1	72.5	27.5	67.9	32.1
출생년도								
1909년 이하	10.3	89.7	27.6	72.4	42.6	57.4	45.4	54.6
1910~1919년	54.0	46.0	49.7	50.3	59.4	40.6	37.9	62.2
1920~1929년	81.1	19.0	68.7	31.3	89.4	10.6	73.2	26.8
1930~1934년	90.6	9.4	81.7	18.3	96.5	3.5	85.7	14.3
1935~1939년	-	-	-	-	97.5	2.5	92.6	7.4
교육수준								
무학	64.5	35.6	58.9	41.1	87.0	13.1	79.9	20.1
초등학교	82.0	18.0	76.5	23.5	96.0	4.0	90.0	10.0
중고등학교	85.4	14.6	80.1	19.9	96.0	4.0	91.6	8.4
전문대이상	94.2	5.8	92.6	7.4	96.0	4.1	96.0	4.0
결혼상태								
유배우	79.2	20.8	75.7	24.3	95.7	4.3	90.4	9.6
무배우	64.3	35.7	61.2	38.8	88.4	11.6	82.1	17.9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68.5	31.5	65.1	34.9	96.6	3.4	88.2	11.8
노인부부가구	78.3	21.7	75.2	24.8	95.3	4.7	91.3	8.7
자녀동거가구	68.7	31.3	65.7	34.3	88.2	11.8	82.7	17.3
기타가구	71.7	28.3	67.2	32.8	87.9	12.1	75.9	24.1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84.4	15.6	77.8	22.3	97.4	2.7	90.0	10.0
보통	77.1	22.9	73.5	26.5	97.8	2.2	89.6	10.4
나쁨	70.5	29.5	67.1	33.0	96.2	3.8	85.4	14.7

〈부표 9〉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s)의 변화: 교통수단 이용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완전 자립	도움 필요
전체	62.0	38.0	59.8	40.2	86.2	13.8	85.7	14.3
지역								
동부	64.2	35.8	61.0	39.0	86.1	13.9	85.4	14.6
읍·면부	59.2	40.8	57.6	42.4	86.4	13.6	86.2	13.8
성								
남자	75.0	25.0	74.8	25.2	91.1	8.9	89.6	10.4
여자	53.8	46.2	51.0	49.0	83.1	16.9	83.0	17.0
연령								
65~69세	76.9	23.1	72.6	27.4	95.7	4.3	93.4	6.6
70~74세	69.2	30.8	62.5	37.6	91.6	8.4	89.0	11.0
75~79세	47.9	52.1	49.0	51.1	84.4	15.6	83.6	16.4
80세 이상	13.8	86.2	33.3	66.7	56.1	43.9	63.7	36.4
출생년도								
1909년 이하	6.0	94.0	11.6	88.4	29.5	70.5	45.4	54.6
1910~1919년	37.9	62.2	36.3	63.7	36.0	64.0	34.4	65.6
1920~1929년	73.7	26.3	60.5	39.5	79.9	20.1	69.3	30.7
1930~1934년	86.5	13.5	75.8	24.2	92.4	7.6	85.0	15.1
1935~1939년	-	-	-	-	95.6	4.4	90.6	9.4
교육수준								
무학	53.1	46.9	47.5	52.5	77.0	23.0	76.9	23.1
초등학교	76.4	23.6	69.4	30.6	91.6	8.4	88.6	11.4
중고등학교	76.4	23.6	77.7	22.3	92.9	7.1	91.0	9.0
전문대이상	94.2	5.8	88.8	11.2	94.7	5.3	94.5	5.5
결혼상태								
유배우	74.0	26.0	70.5	29.5	91.7	8.3	89.0	11.0
무배우	51.0	49.0	49.3	50.7	79.6	20.4	79.6	20.4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61.7	38.3	55.5	44.5	91.6	8.4	86.4	13.6
노인부부가구	74.8	25.2	71.5	28.5	91.3	8.7	89.9	10.2
자녀동거가구	55.9	44.1	54.9	45.1	79.7	20.3	81.2	18.8
기타가구	60.6	39.4	56.9	43.2	80.1	19.9	70.1	29.9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74.8	25.2	71.1	28.9	93.8	6.2	88.8	11.2
보통	66.6	33.4	65.7	34.3	93.4	6.6	88.9	11.1
나쁨	61.9	38.1	57.1	42.9	90.0	10.0	82.4	17.7

〈부표 10〉 노인의 시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전체	22.6	13.9	63.5	25.5	15.4	59.2	31.7	24.0	44.3
지역									
동부	23.8	14.9	61.3	23.6	16.6	59.8	33.2	23.2	43.6
읍·면부	21.1	12.5	66.4	28.7	13.3	58.1	28.4	25.7	45.9
성									
남자	26.2	14.6	59.2	27.8	16.1	56.1	37.8	23.0	39.3
여자	20.4	13.4	66.2	24.1	14.9	61.0	27.9	24.6	47.5
연령									
65~69세	21.2	12.2	66.7	23.1	15.6	61.4	33.8	22.7	43.6
70~74세	23.3	16.7	60.0	26.9	16.6	56.5	33.3	24.4	42.3
75~79세	25.8	13.7	60.5	28.8	14.9	56.3	28.5	24.9	46.6
80세 이상	21.5	13.0	65.5	24.7	12.8	62.4	27.5	25.3	47.1
출생년도									
1909년 이하	19.4	11.7	68.9	25.6	15.9	58.5	48.4	0.0	51.6
1910년~1919년	24.7	13.7	61.6	24.6	12.6	62.8	29.6	27.1	43.4
1920년~1929년	22.1	14.1	63.9	26.4	16.8	56.8	27.2	25.1	47.8
1930년~1934년	20.9	18.8	60.3	24.1	14.1	61.8	33.4	24.4	42.3
1935년~1939년	-	-	-	-	-	-	34.3	22.4	43.3
교육수준									
무학	20.4	12.7	66.8	24.7	15.3	60.1	25.4	26.8	47.8
초등학교	22.1	12.8	65.2	25.8	15.2	59.0	33.5	22.4	44.1
중고등학교	31.8	24.7	43.6	28.6	14.4	57.0	37.5	22.1	40.5
전문대이상	51.4	18.4	30.2	22.4	21.3	56.3	46.0	19.9	34.1
결혼상태									
유배우	22.8	14.8	62.4	26.4	15.7	57.9	35.7	23.5	40.8
무배우	22.4	13.0	64.6	24.6	15.0	60.4	26.7	24.7	48.6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0.2	12.1	67.8	22.9	14.8	62.3	25.3	23.8	50.9
노인부부가구	23.7	15.0	61.3	26.7	14.9	58.3	34.9	23.7	41.5
자녀동거가구	22.9	13.7	63.4	26.6	16.3	57.2	33.4	24.5	42.1
기타가구	21.1	12.5	66.4	17.5	11.5	71.0	25.0	22.7	52.3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35.3	12.8	51.9	32.2	11.6	56.2	42.7	19.0	38.3
보통	19.7	17.3	63.0	25.7	17.1	57.2	33.5	25.6	41.0
나쁨	18.5	10.7	70.9	22.9	15.2	61.9	28.2	23.1	48.7
기능상태									
제한없음	26.5	13.9	59.6	26.5	16.8	56.7	32.6	24.2	43.2
ADL제한	22.2	12.1	65.7	25.9	12.6	61.5	29.3	21.6	49.1
IADL제한	16.9	14.8	68.3	23.3	14.4	62.3	25.8	25.4	48.8

〈부표 11〉 노인의 시력 보조기 착용 여부 변화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전체	56.6	43.4	55.7	44.3	65.7	34.3	62.8	37.2
지역								
동부	64.3	35.7	61.8	38.2	68.2	31.8	67.9	32.1
읍·면부	46.7	53.3	45.4	54.6	60.6	39.4	53.2	46.8
성								
남자	63.6	36.4	62.1	37.9	72.6	27.4	68.0	32.0
여자	52.3	47.7	52.0	48.0	62.1	37.9	59.4	40.6
연령								
65~69세	66.0	34.0	62.6	37.4	71.8	28.2	63.9	36.1
70~74세	52.6	47.4	57.3	42.7	63.4	36.6	64.5	35.5
75~79세	51.5	48.5	48.7	51.4	62.3	37.7	64.1	35.9
80세 이상	41.9	58.1	42.8	57.2	59.6	40.4	56.1	44.0
출생년도								
1909년 이하	36.1	63.9	31.6	68.4	55.5	44.5	0.0	100.0
1910~1919년	49.3	50.7	45.4	54.6	52.8	47.2	47.9	52.1
1920~1929년	60.4	39.6	56.7	43.4	63.3	36.8	58.1	41.9
1930~1934년	62.8	37.2	61.7	38.3	63.6	36.4	64.3	35.7
1935~1939년	-	-	-	-	72.0	28.1	64.4	35.6
교육수준								
무학	46.4	53.6	45.0	55.0	53.7	46.3	51.6	48.4
초등학교	73.9	26.1	64.5	35.5	70.5	29.5	64.8	35.2
중고등학교	76.4	23.6	68.8	31.2	80.6	19.4	71.5	28.6
전문대이상	77.0	23.0	86.3	13.7	84.3	15.7	78.1	21.9
결혼상태								
유배우	63.4	36.6	60.0	40.1	69.5	30.5	65.1	34.9
무배우	50.5	49.5	51.6	48.4	61.7	38.3	58.6	41.4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54.5	45.5	55.5	44.5	63.2	36.8	59.4	40.6
노인부부가구	63.7	36.3	58.3	41.7	70.6	29.4	64.2	35.8
자녀동거가구	54.5	45.5	53.8	46.2	63.6	36.5	63.7	36.3
기타가구	48.8	51.2	60.7	39.3	62.8	37.2	58.7	41.3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61.1	38.9	62.1	37.9	81.3	18.7	68.9	31.1
보통	62.9	37.1	60.4	39.6	70.7	29.3	63.7	36.3
나쁨	54.9	45.1	53.8	46.2	62.9	37.1	61.3	38.7
기능상태								
제한없음	66.5	33.5	64.5	35.6	69.3	30.7	64.3	35.7
ADL제한	42.0	58.0	44.7	55.3	55.2	44.8	58.3	41.7
IADL제한	49.5	50.5	46.8	53.2	46.9	53.1	57.1	42.9

〈부표 12〉 노인의 청력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전체	55.6	18.4	26.0	60.8	15.9	23.3	50.0	27.4	22.6
지역									
동부	58.5	18.7	22.8	62.8	16.1	21.1	52.5	26.0	21.5
읍·면부	51.8	18.0	30.2	57.4	15.6	27.0	44.7	30.2	25.1
성									
남자	57.4	14.7	27.9	60.1	14.2	25.7	52.4	24.8	22.8
여자	54.5	20.7	24.8	61.2	16.9	21.9	48.5	29.0	22.5
연령									
60~69세	67.2	14.9	17.9	67.5	14.5	18.0	61.4	24.5	14.1
70~74세	59.5	18.1	22.3	63.8	16.9	19.4	52.8	29.5	17.8
75~79세	42.5	28.5	29.0	57.2	16.6	26.2	43.4	29.3	27.3
80세 이상	24.7	17.1	58.2	41.0	16.9	42.1	25.6	28.4	46.0
출생년도									
1909년 이하	5.0	15.6	79.4	19.5	12.5	68.0	0.0	0.0	100.0
1910년~1919년	40.0	25.0	35.1	46.5	19.3	34.2	17.1	25.0	58.0
1920년~1929년	64.0	16.3	19.8	62.4	16.0	21.6	39.3	30.8	29.9
1930년~1934년	73.3	11.2	15.5	69.1	14.0	16.9	53.6	28.7	17.7
1935년~1939년	-	-	-	-	-	-	62.0	24.1	13.9
교육수준									
무학	51.7	19.6	28.7	54.9	17.0	28.2	38.2	32.0	29.8
초등학교	58.3	18.9	22.8	65.1	15.9	19.0	55.0	25.2	19.9
중고등학교	71.4	10.8	17.8	68.1	13.3	18.6	60.8	23.9	15.3
전문대이상	74.2	8.6	17.2	82.4	10.4	7.1	65.1	20.5	14.4
결혼상태									
유배우	59.5	16.2	24.3	64.3	13.8	22.0	57.0	24.3	18.7
무배우	52.0	20.4	27.6	57.5	18.0	24.6	41.5	31.1	27.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56.2	17.1	26.8	62.3	18.2	19.6	41.7	36.0	22.2
노인부부가구	58.7	18.2	23.2	66.3	12.5	21.2	55.6	25.4	19.0
자녀동거가구	53.9	18.5	27.7	56.9	17.4	25.7	49.9	23.8	26.3
기타가구	57.3	20.7	22.0	62.3	13.3	24.5	46.8	31.7	21.6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70.3	14.3	15.5	73.8	9.1	17.1	63.6	22.4	14.0
보통	56.8	19.9	23.3	65.2	14.8	20.0	54.0	30.3	15.7
나쁨	54.0	20.6	25.4	57.4	19.1	23.5	48.6	28.3	23.1
기능상태									
제한없음	68.5	16.5	15.0	68.5	14.2	17.3	54.3	27.9	17.7
ADL제한	45.5	20.6	34.0	54.0	19.0	27.0	32.3	24.9	42.8
IADL제한	41.4	20.1	38.5	51.2	17.3	31.5	31.2	25.4	43.5

〈부표 13〉 노인의 청력 보조기 착용 변화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전체	2.8	97.2	2.4	97.6	11.5	88.5	3.8	96.2
지역								
동부	2.8	97.2	2.4	97.6	12.3	87.7	3.6	96.4
읍·면부	2.8	97.3	2.4	97.6	10.1	89.9	4.1	95.9
성								
남자	3.4	96.7	3.1	96.9	14.4	85.6	5.1	94.9
여자	2.4	97.6	2.0	98.0	9.7	90.3	3.0	97.1
연령								
60~69세	2.1	97.9	1.8	98.2	14.5	85.5	2.6	97.4
70~74세	3.3	96.7	2.2	97.8	11.8	88.3	2.9	97.2
75~79세	2.0	98.0	2.9	97.1	15.6	84.4	5.1	94.9
80세 이상	4.6	95.4	4.0	96.0	6.6	93.4	7.1	92.9
출생년도								
1909년 이하	5.1	94.9	3.8	96.2	13.1	86.9	45.4	54.6
1910~1919년	2.8	97.2	3.3	96.7	7.9	92.1	9.3	90.7
1920~1929년	2.6	97.4	2.3	97.7	10.6	89.4	6.5	93.5
1930~1934년	1.2	98.8	2.0	98.1	13.0	87.0	4.6	95.4
1935~1939년	-	-	-	-	14.2	85.8	2.8	97.2
교육수준								
무학	2.5	97.5	2.6	97.4	10.4	89.6	3.9	96.1
초등학교	1.5	98.5	2.7	97.3	14.2	85.9	3.7	96.3
중고등학교	8.0	92.0	1.2	98.8	6.3	93.7	3.7	96.3
전문대이상	5.8	94.2	2.3	97.7	24.6	75.5	4.2	95.8
결혼상태								
유배우	3.1	96.9	2.5	97.5	13.4	86.6	4.1	95.9
무배우	2.4	97.6	2.3	97.7	10.0	90.0	3.7	96.3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2.1	97.9	1.9	98.1	11.4	88.6	3.6	96.5
노인부부가구	3.5	96.5	2.3	97.7	14.5	85.5	3.7	96.3
자녀동거가구	2.7	97.3	2.6	97.4	9.4	90.6	4.1	95.9
기타가구	0.8	99.2	3.4	96.6	13.4	86.6	4.6	95.4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1.0	99.0	2.0	98.0	22.2	77.8	3.4	96.6
보통	3.4	96.6	2.4	97.6	9.9	90.1	4.2	95.8
나쁨	1.6	98.4	2.0	98.0	10.7	89.3	3.4	96.6
기능상태								
제한없음	1.3	98.7	2.4	97.6	13.3	86.7	3.4	96.6
ADL제한	4.4	95.6	2.1	97.9	10.9	89.1	5.9	94.1
IADL제한	4.1	95.9	2.6	97.4	4.3	95.7	4.4	95.6

〈부표 14〉 노인의 씹기 보조기 미착용시 상태 변화

(단위: %)

	1994년			1998년			2004년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좋음	보통	나쁨
전체	12.4	6.9	80.7	15.1	8.1	76.8	12.2	13.0	74.9
지역									
동부	13.2	6.8	80.0	16.2	8.5	75.4	13.8	14.1	72.1
읍·면부	11.3	7.1	81.6	13.2	7.4	79.4	8.7	10.5	80.7
성									
남자	15.3	8.6	76.1	17.1	9.3	73.6	15.5	13.1	71.4
여자	10.5	5.9	83.6	13.9	7.4	78.7	10.1	12.9	77.0
연령									
60~69세	16.7	8.0	75.3	20.6	9.8	69.6	17.9	15.6	66.6
70~74세	11.8	7.0	81.2	13.4	7.6	79.0	11.5	14.6	73.9
75~79세	7.6	7.6	84.9	9.9	7.5	82.7	7.8	10.6	81.6
80세 이상	5.7	2.4	92.0	10.2	5.1	84.7	4.8	6.5	88.7
출생년도									
1909년 이하	1.3	3.3	95.4	4.2	1.1	94.7	8.1	0.0	91.9
1910년~1919년	7.7	5.7	86.6	11.8	6.3	81.9	2.2	6.6	91.2
1920년~1929년	14.7	7.6	77.7	13.7	7.8	78.5	7.3	9.4	83.4
1930년~1934년	22.3	10.1	67.6	20.5	10.2	69.3	11.7	14.8	73.5
1935년~1939년	-	-	-	-	-	-	18.4	15.6	66.0
교육수준									
무학	10.1	6.0	83.9	9.9	7.4	82.6	5.9	11.6	82.5
초등학교	14.2	7.7	78.1	19.3	7.5	73.2	13.3	13.0	73.8
중고등학교	18.2	11.5	70.3	24.8	8.9	66.3	18.2	14.7	67.1
전문대이상	32.7	7.7	59.6	18.2	18.2	63.6	30.0	16.6	53.5
결혼상태									
유배우	15.4	7.6	77.1	18.0	8.4	73.6	15.7	14.2	70.1
무배우	9.7	6.4	84.0	12.2	7.8	80.0	7.8	11.5	80.7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10.3	8.7	81.0	13.8	9.8	76.4	8.8	10.8	80.4
노인부부가구	16.8	7.6	75.7	17.3	7.6	75.0	14.0	14.9	71.0
자녀동거가구	10.8	6.1	83.2	14.7	7.9	77.4	12.9	12.7	74.4
기타가구	12.7	8.3	79.0	10.6	6.4	83.0	8.8	10.8	80.4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19.6	6.6	73.8	23.4	9.6	67.0	23.1	14.7	62.3
보통	9.9	7.7	82.3	15.2	9.3	75.6	13.1	15.0	72.0
나쁨	11.9	7.2	80.9	13.4	7.1	79.5	9.7	10.9	79.4
기능상태									
제한없음	17.3	8.4	74.2	18.8	8.8	72.4	13.7	13.4	72.9
ADL제한	7.7	8.1	84.2	9.9	7.8	82.3	5.4	10.9	83.8
IADL제한	7.4	4.0	88.6	11.4	7.1	81.5	7.3	11.2	81.6

〈부표 15〉 노인의 씹기 보조기 착용 변화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착용	미착용
전체	49.2	50.8	51.3	48.7	69.2	30.8	53.3	46.7
지역								
동부	53.3	46.7	50.8	49.2	69.9	30.1	50.7	49.4
읍·면부	43.9	56.1	52.2	47.8	67.9	32.2	58.5	41.5
성								
남자	45.7	54.3	47.2	52.8	67.4	32.6	49.8	50.2
여자	51.5	48.5	53.7	46.3	70.2	29.8	55.7	44.3
연령								
60~69세	52.9	47.1	49.6	50.4	74.0	26.0	43.9	56.2
70~74세	54.0	46.0	55.3	44.7	68.2	31.8	54.4	45.6
75~79세	42.9	57.1	54.8	45.2	70.8	29.2	62.8	37.2
80세 이상	33.8	66.2	43.0	57.0	60.4	39.6	63.5	36.5
출생년도								
1909년 이하	26.8	73.3	38.5	61.5	82.2	17.8	45.4	54.6
1910~1919년	41.1	58.9	44.3	55.7	55.0	45.0	57.7	42.3
1920~1929년	53.4	46.6	54.6	45.4	67.5	32.5	64.4	35.6
1930~1934년	47.5	52.6	49.6	50.4	70.1	29.9	62.5	37.5
1935~1939년	-	-	-	-	73.4	26.6	51.8	48.3
교육수준								
무학	46.7	53.4	51.6	48.4	65.5	34.5	59.8	40.2
초등학교	49.9	50.1	50.1	49.9	71.6	28.4	54.4	45.6
중고등학교	64.0	36.0	52.2	47.8	71.5	28.6	47.2	52.8
전문대이상	59.6	40.4	52.9	47.1	79.2	20.8	35.7	64.4
결혼상태								
유배우	50.1	49.9	51.1	48.9	70.5	29.5	50.7	49.3
무배우	48.4	51.6	51.4	48.6	67.6	32.4	58.1	41.9
가구유형								
노인독거가구	49.9	50.1	51.5	48.5	73.7	26.3	59.5	40.5
노인부부가구	50.0	50.0	53.9	46.1	70.2	29.8	51.7	48.3
자녀동거가구	48.7	51.3	48.9	51.1	65.3	34.7	51.4	48.6
기타가구	48.3	51.7	57.9	42.1	71.6	28.4	54.6	45.5
주관적 경제상태								
좋음	58.4	41.6	52.1	47.9	83.5	16.6	48.9	51.1
보통	55.1	44.9	54.3	45.7	72.7	27.3	52.1	47.9
나쁨	44.2	55.9	50.8	49.2	67.5	32.5	55.2	44.8
기능상태								
제한없음	53.4	46.6	54.9	45.1	73.2	26.8	52.1	47.9
ADL제한	45.2	54.8	51.0	49.1	58.9	41.1	60.1	39.9
IADL제한	45.1	55.0	45.5	54.5	46.4	53.7	54.1	45.9

(단위: %)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303)

##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Policy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
연구 2010-02	회귀난지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
연구 20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증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미정
연구 20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증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가혜	6,000
연구 20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린	7,000
연구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
연구 20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증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신	5,000
연구 20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
연구 20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미정
연구 20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
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세대 육상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지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지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자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석	10,000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과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기차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외부)	6,000
연구 2010-30-8	차여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석	6,000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
연구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
연구 20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엄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20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
연구 20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
연구 20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지원태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구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
연구 2010-35	취약위기와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행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지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활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지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